30 Onnuri Anniversary

낮은곳 더 낮은곳으로

온누리행전 30년

Onnuri
Community Church

온누리행전 30년

온누리행전 30년

발행인 | 이재훈
편집인 | 문창극
편 집 | 노치형 서 철
발행처 | 온누리교회
발행일 | 2015년 10월 4일
전 화 | 02-793-9686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7-11(용산동 6가)
표 지 | 윤선디자인 work@ysdesign.kr
인 쇄 | 페이지원 02-757-3111

온누리행전 30년

목 차

프롤로그 –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 이재훈 담임목사 _11

축하의 글 – 보세요. 온누리 30년의 눈부신 비상(飛翔) / 이어령 선생 _20

I. 온누리교회 2기의 서막

1. 이재훈 담임목사 위임예배 _25
2. 닻을 올리고 돛을 펼치다 _30
3. 새로운 온누리호의 순항을 위해 _40
4. 장로 리더십 재정비 _44
5. 온누리 목회철학의 실천적 성숙, '3닻 5돛' _52
6. Acts 29 비전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가? _62

II. 온누리교회 1기를 마무리하며
–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 '변화산에서 생긴 일' - 故 하용조 목사 마지막 설교 _67
2. 믿음의 큰 별, 하나님의 품에 안기다 … 故 하용조 목사 천국 가는 길 _79
3.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천국환송예배 _86
4.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누리소서" - 하관예배 _100
5. 복음과 사랑으로 한평생 사도행전적 교회 일구다 _113

III. 온누리행전 30년을 되새기며

– 온누리교회 목회철학의 5가지 뼈대를 중심으로

〈1〉 성경중심의 교회

1. '바로 그 교회'의 꿈 _125
2.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_128
3. 가건물에서 입당예배까지 _131
4. 큐티로 세워진 성도들의 공동체 _134
5. Acts29 비전을 품고 온 세계로 퍼지다 _137

〈2〉 복음중심의 교회

1.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 일대일 제자양육 _147
2. 순, 다락방,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_152
3. 말씀과 성령과 함께 춤추는 온누리 _156
4. 온누리와 윌로우크릭의 만남 _164
5. 온누리를 풍성하게! 축제의 시작! _167
6. 시대를 선도하는 온누리 전도집회 _172
7.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차세대 교육 _180
8. Acts29의 견인차, 대학청년 _185
9. 새로운 공동체를 낳는 대청공동체 _190
10. JDS,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새 역사를 쓰다 _197
11. 더 풍성해진 가정사역 _202

12.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누리 여성사역 – Eve2Mary _207
13. 전인적 회복의 장을 연 온누리 회복사역 _213
14.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Acts29 패밀리 – 협력사역 _218
15. CGNTV, 더 멀리 & 더 가까이 – 복음 싣고 땅끝까지 _222
16. 온누리 디지털 목회의 시작, '아이케어, 아이스쿨' _227
17. 복음통일을 준비하는 온누리 _230

〈3〉 선교중심의 교회
1. 선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_235
2. 생명처럼 붙잡고 가라! '2천/1만 비전' _238
3. '땅끝선교'를 이뤄낼 영적 도장, 'Acts29 비전빌리지' _242
4. 선교의 비전, 온누리를 덮다 _248
5. 영원한 형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서사시 _251
6. 아프간 선교 _258
7. 이라크 선교 _261
8. 일본 선교 _265
9. 일본 부흥의 불길, '러브소나타' _268
10. 찾아오는 선교지, 다문화 가족 선교 _280
11. 온누리 순교열전 _284
12. 투병 중에 더욱 커진 선교의 비전 _291

〈4〉 긍휼을 베푸는 교회

1. 가시밭에 날린 '예수향기회' _301

2. 세상과 함께 울고 웃은 온누리 _306

3. IMF 파고를 넘은 남성 대각성 운동 _311

4. 램프-온에서 CMN까지, "세상에 희망의 빛 비추다" _315

5. 세상 속에서 빛이 된 리더십, '크리스천 CEO' _322

6. 더 멋진 세상을 꿈꾸며, 'The Better World' _326

7. 사회선교본부 출범, 'Loving U' _334

〈5〉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1.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예배' _339

2. 문화에 복음을 실은 교회 _342

3. 온누리를 휩쓴 찬양의 물결 _347

4. 하나님의 비전을 밝히 제시하는 '온누리신문' 창간 _351

5. 온누리와 지역사회가 하나되는 자리, '비전의 땅' _359

*표어로 본 온누리행전 30년 _362

*에필로그 _370

*위험한 교회, 낮아진 교회, 연약한 교회 _383

온누리행전 30년과 관련된 영상은
위의 QR코드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2기 (2011 ~ 2015)



프롤로그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이재훈 담임목사

하용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창립하실 때 가지신 교회의 비전은 '사도행전적 교회'였다. 그리고 목회하시는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설교하셨다. 첫 번째는 1985년 온누리교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이고, 두 번째는 1999년이었다. 창립 후 10년 이상이 되었을 때 다시 사도행전을 설교하신 것은 교회의 처음 비전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이었다. 이제 오는 10월초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다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비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재훈 목사는 세 번째 사도행전 강해를 하기로 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할 지를 논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도행전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가르쳐주신 교회

가 실제로 나타난 모습이 사도행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대, 당시 문화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통해 이뤄졌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적 교회는 '유동적 교회(Liquid Church)'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회적 지위도, 재물도, 조직이나 통신수단도, 선전도구도 없었습니다. 아주 미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세상을 요동치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조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움직이는 돈이 있습니다. 이념이 있습니다. 강력한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조직도 없었고, 이름도 불분명했습니다.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현상을 이 세상의 어떤 사회학자들이 해석할 수 있을까요. 3세기에 이르러 콘스탄틴 황제는 교회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로마제국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되돌아간다면 한국사회가 뒤집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운동이나 사회이념운동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세력화가 아니라 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흔드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유동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유동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 빼고는 모두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명칭, 조직 등 모든 것들이 유동적 상태가 될 때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예수공동체'

사도행전 1장 1-2절에 사도행전적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예수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행전입니다. 성령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임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는 훌륭하게 살다가 죽은 위인의 과거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보좌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라고 해도 죽으면 영향력이 끝납니다. 종교가 세워져서 그 영향력이 계속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영향력이 감소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 이후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분은 아직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행 1:9).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부인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 승천을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늘로 올라 가셨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건은 과학적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은 에녹을 홀연히 데려 가셨습니다. 그가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데려 가셨습니다. 기적은 꼭 선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믿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선례를 남겨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신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성령공동체'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행 1:4-5).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고난 받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이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과 예수님을 연결시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성취하면서 유월절 어린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40일이 지난 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걸쳐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사시고, 고난 받고, 죽으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원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성령님이 구원의 증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적 교회의 두 번째 정체성에 대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성령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확신이 없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확신의 조건입니다. 교회의 이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행전적 교회의 이론이 됩니다. 세상의 관습과 인습, 인간적인 철학, 세속적인 가치관과 전통문화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회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판단하고, 생각한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성령 세례는 사도들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역사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 세례를 두려워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신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오히려 분별력이 뚜렷해집니다. 더 지성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질문했습니다(행 1:6). 엉뚱한 질문 같지만 근거 없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맞는 질문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을 종말의 증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이뤄지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논리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요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그들의 질문은 모두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명사, 동사, 부사가 모두 하나님 나라를 혼동하고 있다고 했습니

다. 그들이 사용한 '회복하다'란 단어는 영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통치되는 영적인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때입니까?"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쓴 것을 보면 여전히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열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입니다.

레슬리 뉴 비긴(Lesslie Newbigin)이라는 선교학자는 사도들의 바로 이 질문이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빠지는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 역사를 끝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빨리 역사를 끝내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유혹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모든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증인공동체'

사도행전적 교회의 세 번째 정체성은 증인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은 증인행전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이 땅 끝까지 흩어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행 1:8).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

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투스'입니다. 순교라는 단어로 같이 씁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예수님에 관하여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공동체였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한 사람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수의 성도들이 로마제국을 뒤집어엎고,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사실을 말하는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진실대로 말하는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안다고 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생명의 위협이 오면 사실을 왜곡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절대로 사실을 거짓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고, 사실이 사실대로 전해질 때 세상이 변화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증거가 온 세계를 향해 나갑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갑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모든 곳이 땅 끝입니다. 이웃집일 수도 있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 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심으로 역사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행 1:11).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재림의 날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에 증거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 씨가 자라 추수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이요, 은혜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스런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역사가 끝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온누리교회가 증인공동체, 성령공동체, 예수공동체로서 사도행전 교회의 참된 모습을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2015. 9. 13

축하의 글

보세요.
온누리 30년의 눈부신 비상(飛翔)

이어령 선생

남들이 앉아 있을 때 홀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남들이 떠날 때 홀로 남아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외톨이라 부르고
바보라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저기 계십니다.
남들이 다 가난을 저주 할 때 가난한 삶을 찬미하고
남들이 애통하는 것을 피할 때 그 쓴잔을 마신
저 분이 바로 저기에 서 계십니다.

가시밭길인 줄 알면서 오늘도 따라갔더니
무거운 짐인 줄 알면서도 지고 갔더니
길 끝에 거짓말처럼 환한 백합과 장미 밭.
그 분 때문에 바보처럼 살면서 행복합니다.

뽕밭이 바다가 되어 산천이 바뀌어도
보세요. 30년 살아온 지붕에 비가 새지 않는 까닭은
문이 열리고 닫히는 돌쩌귀에 녹이 슬지 않는 까닭은
저 분의 바보 같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풀조차 자라지 않는 돌땅을 사라 하시기에
남들이 버린 땅을 구해 열심히 밭을 일구었습니다.
보세요. 그 곳에 저리도 많은 보석이 파묻혀 있는 것을
30년이 지나서야 겨우 알았습니다.

어리석음이 지혜가 되고 약함이 강한 것이 되고
천한 것이 존귀한 것이 되는 바보들의 찬란한 행진
지금 온누리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는 순간
보세요. 저 분을 따라 일제히 날아오르는 눈부신 비상(飛翔)

I. 온누리교회 2기의 서막

(2011. 10. 27 - 2015. 9. 30)





1. 이재훈 담임목사 위임예배

2011.10.27.

넘치는 은혜와 축복 속에 제2기 온누리교회가 힘차게 출발했다. 2011년 10월 27일 서빙고 본당에서 한국 교계와 온누리가 하나 되어 이재훈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렸다. 이로써 故 하용조 담임목사 소천이후 8월 9일부터 진행된 담임목사 청빙과정이 80일 만에 모두 마무리 되었다. 담임목사 청빙과정은 교회 곳곳에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가진 기도모임과 장로들의 헌신으로 경쟁의 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순례의 과정이었다. 온누리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한국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위임예배

서빙고 본당에서 드린 위임예배는 박종길 목사의 인도로 사랑챔버의 특별찬양,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의 메시지, 당회서기 최도

성 장로의 담임목사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임예배에는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평양노회장 최기용 목사(염광교회), 부총회장 손달익 목사(서문교회), 증경평양노회장 장창만 목사(록원교회), 김창근 목사(무학교회), 성홍모 목사(영주교회), 증경평양노회장 한명원 목사(신장위교회) 등 노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홍정길 목사는 설교에서 "사명의 사람은 자신이 가야될 길을 분명히 아는 사람, 인생의 마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맡긴 일이라고 믿는 사람,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서 故 하용조 담임목사의 뒤를 이어 사명감을 갖고 제2기 온누리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권면했다.

위임식

임시당회장 김진홍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위임식은 목사와 성도의 서약, 서약불변을 위한 기도, 선포, 목사와 성도에게 권면, 축사, 담임목사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손달익 목사는 이재훈 담임목사에게 "자기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온누리교회를 넘어 한국교회 전체를 품는 목회를 해달라"고 권면했다. 장창만 목사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곁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며 도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재훈 담임목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사에서 김영근 목사는 "온누리교회가 예수님만을 높이며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계속해서 불태워주길 바란다"고 했고, 성홍모 목사는 "온누리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복된 교회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인사말에서 "귀한 직분을 맡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서지만 생명을 다해 헌신하신 故 하용조 담임목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고 신실하게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온누리의 축제

성도들이 두 손을 내밀고 제2대 온누리교회 담임 이재훈 목사를 축복하며 부른 축복송이 위임예배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장로들과 교역자들은 단상에 올라 이재훈 담임목사의 위임을 축하했다.

위임예배는 온누리의 축제였다. 예배가 시작되기 2시간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이재훈 담임목사를 축하하기 위해 온 누리에서 모여든 축하행렬이 줄을 이었다. 특히 위임예배에 故 하용조 담임목사의 아들 성석 형제와 형 하용삼 목사, 동서 이형자 원장, 최순영 장로 등이 참석해 이재훈 담임목사의 위임을 축하해 눈길을 끌었다.

취임사

“사명의 바통 이어 받아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은혜가 충만한 온누리교회의 담임목회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천국에서 지켜보시며 환하게 웃고 계실 故 하용조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실패와 허물을 덮어주신 故 하용조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격려해주시는 이형기 사모님을 비롯한 故 하용조 목사님의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임을 위해 애써주신 한국 교계의 여러 지도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귀한 직분을 맡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서지만 故 하용조 목사님의 사역의 흔적과 생명을 다해 헌신하신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며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故 하용조 목사님이

40대 초반일 때로 돌아가 그분의 사역을 본받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겸손하고 신실하시며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셨던 故 하용조 목사님의 사역을 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데 사용되는 도구로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2. 닻을 올리고 돛을 펼치다

2대 담임목사 청빙 과정

2015년 10월이면 온누리교회가 세워진지 30년이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어려운 도전과 위기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마도 교회가 겪은 가장 큰 위기는 제1대 하용조 담임목사님의 소천과 그에 이은 제2대 담임목사의 청빙일 것입니다. 30주년을 맞아 이 과정을 한 번 뒤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는 물론 다른 교회까지도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 그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필자가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담임목사 소천과 후임 담임목사 청빙과정에서 함께 동역해 주신 모든 장로님, 교역자 여러분들께, 특히 청빙위원들과 당회운영위원회 장로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8월 2일(화) 아침에 하용조 목사님은 우리를 떠나 하늘나라로 가셨다. 바로 이틀 전 주일 예배 설교도 거뜬히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지 않았고 전 교인은 슬픔에 잠겨 울었다. 준비가 없는 가운데 경황없이 일어난 일이었지만 당회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상상황에 대처하기로 하고 우선 장례절차를 진행과 함께 교회 리더십 공백을 하루 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었다. 8월 4일 천국환송예배를 마치고 이틀 후 당회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다섯 가지 기본방향(아래 참조)을 논의하고 그 다음 주에 개최할 임시당회에 상정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8월 2일 노회 임원회에서 임명한 임시당회장 대신 두레교회의 김진홍 목사님을 임시당회장으로 노회에 추천하기로 하고 그 일을 당회서기 최도성 장로에게 일임하였다. 노회 임원회는 임시당회장 선임은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번복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당회운영위원회의 간청이 있었고 임시당회장으로 임명되었던 목사님께서 자진 사퇴의사를 밝혀주셨기에 노회에서 김진홍 목사님을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하였다.

2011년 8월 9일(화) 하목사님이 소천하신지 꼭 일주일 후 김진홍 목사님께서 임시당회장으로 주재하신 임시당회를 열게 되었다. 이 당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비상상황 대응 기본 방향을 확정하고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를 당회운영위원 중 당회서기 포함 5인(연장순), 전 당회서기, 당회에서 선출하는 9인을 포함, 총 15인으로 구성하였다. 당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은 의결권 있는 장로(은퇴장로, 명예장로, 협동장로 제외)들이 각각 10명의 후보를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다수 득표순으로 선출하였다. 당회원인 교역자들은 청빙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청빙위원회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현직 부교역자 중 한 분 이상이 담임목사 청빙 대상이 되는 경우 당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결정이었으며 모든 교역자들께서 이 결정을 이해하고 수용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비상 상황 대응 기본 방향

(1) 온누리교회의 비전, 목회철학 및 핵심가치는 유지·계승·발전시킨다.

(2)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 되기를 힘쓴다. 모든 모임은 기도와 큐티로 시작한다.

(3) 현재 목회체제(캠퍼스·비전교회, 차세대, 선교, 국제 등)의 조직, 인사 및 운영은 새로운 담임목사가 취임할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한다.

(4) 조속한 시일 내에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이를 위해 담임목사청빙위원회를 당회 소위원회로 구성한다.

(5) 담임목사청빙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담임목사 청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청빙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당회에서 의

결한다. 담임목사 청빙과 관련되지 않는 일상적 교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하고 당회에서 추인한다.

청빙위원회 구성

고건, 김성묵, 김영수, 김의득, 김종인, 김하중, 서찬교, 손기철, 손한기, 안용태, 양유식, 이장로, 이철, 최도성(위원장), 최득린

(이상 15명, 가나다순)

당회에서는 청빙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청빙위원회가 교회의 안정을 위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청빙 절차를 완료해야 하겠지만,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충분한 논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 서두르지 말고 일정에 약간의 여유를 가지도록 하였다. 당회는 청빙위원회가 최종 후보 2인을 당회에 추천하도록 하였고, 후임 담임목사는 당회에서 투표로 결정하여 공동의회에 상정, 최종 확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당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라고 판단하고 8월 13일(토) 온누리교회 소속 장로님들은 서빙고 본당에 모여서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금식하며 위기의 온누리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기로 하였다. 이 금식기도에 약 250명의 장로님들이 출석하여 눈물로 회개하고 진

심으로 기도하였다. 또한 같은 회의에서 결정한대로 8월 15일(월)부터 청빙이 끝날 때까지 특별새벽기도를 실시하였다. 이 특별새벽기도 기간 중 매주 수요일 새벽에는 장로님들이 특별찬양을 하였고, 새벽예배 후 청빙과 관련된 청빙위원회 보고를 듣고 함께 중보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져 소통의 원활화까지 도모할 수 있었다.

청빙위원회에서는 8월 14일(주일) 저녁시간에 첫 회의를 열고 가장 먼저 청빙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논의하였다. 청빙위원회의 역할은 "당회의 위임을 받아 온누리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절차와 일정을 결정하고, 담임목사 후보를 결정하여 당회에 상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담임목사 청빙 절차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1단계: 후임 담임목사(이후 '후임') 후보군을 모든 당회원(은퇴, 명예, 협동장로 포함) 추천으로 생성

2단계: 청빙위원회에서 4인의 후임 중간후보군으로 압축하고 후보자들을 심사; 최종 투표로 1,2위 후보를 당회에 상정

3단계: 당회에서 2/3이상의 득표를 하는 후임 후보를 선정하고 동 후보 인준(안)을 공동의회에 상정

4단계: 공동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후임 후보자를 시찰회와 노회에 보고

5단계: 노회는 동 후보를 위임목사로 위임

청빙위원회는 우선 후임 담임목사의 자격으로 장로교 헌법 제26조(목사의 자격), 제31조(다른 교파목사의 청빙)의 형식적 요건 이외에 아래와 같은 실질적 요건을 추가하고 제1단계 후보군을 생성하기로 하였다.

(1) 온누리교회의 목회철학과 핵심가치를 이해하며 교회의 비전을 이어 갈 의지와 능력이 탁월하신 분
(2) 지적 영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설교 능력이 탁월하신 분
(3) 온누리교회 네트워크를 협력하여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으신 분
(4) 인품이 훌륭하고, 영성이 탁월하며, 개인과 가정에 흠이 없어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으신 분

2011년 8월 27일(토)에 온누리교회 134분의 장로들이 추천한 29인의 후보들을 온누리교회에 대한 이해, 영적 지성, 대규모 조직 운영 능력 등의 기준에 의거 1차 후보 9인을 기도하며 선정하였다. 동시에 면접 대상 후보자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내용을 확정하였다. 하목사님이 소천하신지 꼭 한 달째 되는 9월 2일(금)에 1차 후보 9인 중 청빙심사기준*에 부합한 후보 6인(예비후보 1인 포함)을 면접 대상 후보로 선정하였다.

✲ 담임목사 청빙 심사는 아래 다섯 가지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고 검증하고 단계별로 더 상세한 세부기준을 적용하였음.

① 온누리교회의 비전, 목회철학 및 핵심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끌어갈 자질이 있을 것
② 영적 지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설교능력이 탁월할 것
③ 성도를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과 영혼구원의 열정이 있을 것
④ 메가처치(mega-church)를 운영할 수 있는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을 것
⑤ 인품이 훌륭하며, 개인적 영성이 탁월하고, 개인과 가정에 흠이 없어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

2011년 9월 3일(토)에 청빙위원장이 면접 대상 후보들에게 후보지원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동의하는 후보들에게 9월 13일까지 지원서, 비전제시자료, 추천서를 써주실 분들의 명단 제출을 요청하였다. 면담대상 후보군에 포함되었던 해외 후보 2인은 이 과정에서 본인이 담임목사 후보가 되는 것을 사양하였다.

같은 날 오후에 열린 목양대회에서 청빙위원장인 최도성 장로는 이날 현재 다섯 분(한 분의 해외 거주 목사님이 사양하심)의 목사님들이 후보로 결정(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음) 되었음을 알리고 이제부터 기도하며 후보 목사님들 중 어느 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인가를 찾아

가야 하겠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들 중 한 분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청빙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담임 목사의 청빙은 다섯 분 중 한 분을 뽑는 것이지만 미인대회, 인기투표가 아니고, 어떤 공직의 선거도 아닙니다. 따라서 선거운동도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담임목사님의 청빙이 후보 목사님들의 경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 한 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빙은 경쟁이나 선거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볼 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담임목사님을 찾아 주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아멘'하며 축제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주 9월 10일(토)에 담임목사 청빙심사에 지원한 4인을 심층면접 대상 후보로 확정*하고 면접 시간을 제비뽑아 결정하였으며, 동시에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일정과 절차를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2011년 9월 15일(목)에 청빙위원회는 청빙심사과정에 참여한 4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심층면접(비전발표 포함)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 날 최종후보 2인을 선정하여 익일에 열리는 당회

에 추천하기로 하였다. 다음 날인 9월 16일(금)에 청빙위원회는 오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2시 45분까지 교회 서빙고 순형홀에서 4인의 최종 후보들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와 검증을 기도하며 진행하였다. 일부 청빙위원들이 2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당회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교회의 분열이 우려되므로 청빙위원회에서 1인만 추천하자는 제안도 있었고, 또한 2인을 추천하는 경우에도 청빙위원회의 득표순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으나 수차례의 기도와 토론을 거쳐 당회의 의결대로 2인을 추천하되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박종길 목사와 이재훈 목사(가나다순) 2인을 당회에 추천할 최종 후보로 결정하였다.

불과 몇 시간 후, 9월 17일(토) 오전 7시 열린 당회(임시당회장 김진홍 목사)에서 담임목사 최종후보를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하였다. 총 유권자 229명이 투표를 한 결과 이재훈 목사가 다수 득표를 하였으나 총 투표 수의 2/3에 미치지는 못하였다. 이에 임시당회장이 2차 투표 실시 여부를 논의하려 하였으나 차점자인 박종길 목사가 이를 사양하고 이재훈 목사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당회는 만장일치로 이재훈 목사를 청빙 대상 위임목사로 선출하고 이재훈 목사 위임목사 청빙동의안을 공동의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2011년 9월 24일(토) 오후 5시에 역사적인 공동의회(의장 김진홍 임시당회장)가 개최되었다. 당회에서 상정한 안건은 “이재훈 목사를 온

누리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함"이었으며 온누리교회 세례교인들이 오후 4시부터 5시 30분 사이에 교회 여러 곳에 마련된 투표 장소에서 투표하였고 오후 6시 경에 개표를 완료하였는데 총 4,757명이 참석하여 '위임목사 청빙동의안'을 총 투표수 4,757표 중 찬성 4,421(92.9%)표로 가결하여 이재훈 목사가 제2대 온누리교회 담임목사로 확정되었다.

공동의회 의결에 따라 당회는 위임목사 청빙신청을 남시찰위원회를 경유하여 평양노회(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에 제출하였다. 평양노회는 장로교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재훈 목사를 온누리교회 2대 위임목사로 위임하고 위임예배를 2011년 10월 27일(목) 오후 7시 30분에 드림으로 청빙 절차를 완료하였다.

*이 글은 담임목사 청빙위원장이었던 최도성 장로가 기록한 글이며, 자세한 내용은 온누리신문 869호(2011.9.18)에 소개되었습니다.

3. 새로운 온누리호의 순항을 위해

프랜시스 챈, 데이빗 플랫 초청 집회

최고의 사랑(The Ultimate Love) / 2011.10.12-13.

새롭게 출항한 온누리교회 2기는 창립 26주년을 맞아 프랜시스 챈(Francis Chan) 목사를 초청해 부흥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3천 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석했고 연일 뜨거운 열기가 온누리를 덮었다.

주강사인 프랜시스 챈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즐겨라'(빌 4:4-6),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을 사랑하라'(롬 9:1-3)는 메시지를 온누리에 던졌다. 챈 목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이것은 주님이 거듭 강조하신 명령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을 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진정한 ' 믿음' 을 가져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 잃어버린 영혼' 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외쳤다.



프랜시스 챈 목사의 창의적이고 정직한 설교는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으로 다가갔다. 특히 출산과정에서 사망한 생모, 암으로 돌아가신 폭력적인 아버지 등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면서도 그가 꽉 붙잡고 놓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 을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생하게 일깨워줬다.

하나님의 흔적(The Signature of God) / 2012.10.24-26.

"집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곳에 남아 온누리교회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다시 온누리를 찾은 프랜시스 챈 목사는 주제강의와 저녁 집회를 각

각 세 차례 인도했다. 주제강의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거룩함, 신실함, 임재하심), 저녁 집회는 모든 믿는 자의 특징에 관하여(능력, 겸손, 기도) 말씀을 나눴다. 챈 목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는 것을 즐길 뿐만 아니라 실천할 것'을 강하게 권면했다. "솔직함, 진실성을 갖고 가르치라", "기도는 조건적이다. 의심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정말로 성령의 임재를 느끼려면 교회 본당 안에만 있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가라" 등 단호하고 명료한 말씀으로 온누리 성도들에게 도전과 열망을 부어주었다.

2012년 부흥집회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참석자들로 붐벼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130여 명의 선교사와 270여 중국 목회자들, 50여 일본인들, 횃불트리니티 학생들과 영어예배 성도 220명, 농어촌교회의 60여 목회자, 11명의 제주도 목회자와 사모 등 매일 유례없는 3,600여 명이 모였다. 차고 넘치는 사람들로 인해 비전홀뿐만 아니라 두란노홀, 한동홀도 문을 열었다. 본당은 강의 시작과 동시에 만석이 되는 등 하나님의 흔적을 사모하는 온누리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절대 제자(Absolute Disciple) / 2013.10.9-11.

2013년 가을, 3일 동안 온누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쳤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메시지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절대 제자로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온누리는 "아

멘"으로 화답하며 세상으로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부흥축제 '절대 제자'는 제자의 삶을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었다. 말씀으로, 십자가로 돌아간 자리에서 온누리 성도들은 다시 사명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절대 제자'는 데이비드 플랫 목사의 '복음'과 '주권', '제자의 삶', '사도로 부르심', '나를 따르라'에 대한 말씀으로, 프랜시스 챈 목사는 '권리 포기와 순종', '새 계명을 주노라', '고난 속의 승리'의 메시지로, 김춘근 장로는 '헌신'으로 각각 모습을 드러냈다. 또 삶에서 제자의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하는 두 목사의 실제 삶을 이야기했다. 3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도 행할 것을 다짐했다.

온누리교회 2기는 이러한 부흥축제의 열기와 감동, 새로운 헌신과 결단으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었다. 온누리 모든 리더십과 성도들은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새롭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 교회'의 꿈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4. 장로 리더십 재정비

15개 분과위원회, 장로수련회

2013년을 시작하며 온누리교회는 장로리더십의 재정비를 실시했다. 기존에 있던 당회소위원회의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처음에는 선교, 대외협력, 미래성장, 사역조정, 디자인건축 위원회를 신설하여 12개 분과위원회로 시작되어(2013. 2. 3일자 온누리신문) 현재는 안전관리위원회, 사회선교위원회, 통일위원회가 추가된 15개 분과위원회로 확장되어 운영되고 있다. 15개의 당회분과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비전교회협력위원회, 재정위원회, 장학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감사위원회, 캠퍼스협력위원회, 해외선교위원회, 대회협력위원회, 미래성장위원회, 사역위원회, 디자인건축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사회선교위원회, 통일위원회'이다.

2013년 당시 당회서기 양유식 장로는 당회소위원회가 당회분과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배경에 대해 "성도와 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기 위해 당회소위원회의 명칭을 당회분과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여러 장로님들이 다양한 사역에 헌신하면서 성도와 교회가 소통하는 창구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당회분과위원회는 사역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역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멘토이자 코치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소개하면서 "2기 온누리교회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성도와 교회가 아름답게 소통해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소통의 창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들을 모아주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 나아가 세상을 섬기는 온누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답게 성장한 온누리교회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욱 따뜻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섬기고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던 초대교회처럼 온누리교회도 바로 그 교회의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라고 성도를 향한 부탁도 잊지 않았다.

2기 온누리교회를 시작하면서 장로리더십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2013 장로수련회가 기획되고 준비되었다. 2013년 5월 24-25일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라는 주제 하에 열린 2013 장로수련회에는 415명의 장로, 권사, 교역자 리더십이 참석하여 '서로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 되는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동체와

순, 다락방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설 것을 다짐했다.

장로수련회에 참석한 정인순 장로는 "저는 이번 수련회가 매우 특색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과 다른 스타일의 내용으로 알차게 꾸며져 더 젊어지고 상당히 변화가 느껴진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지만 지루하지 않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젊어진 수련회를 보니 우리 교회가 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교회가 젊어진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되어 교회에 덕이 되는 사역을 위해 힘쓰며 화합하기를 바랍니다"라는 격려와 당부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2015년 장로수련회는 5월 15-16일 '기도하고 행하라'를 주제로 열렸다. 장로 228명, 목사 24명이 참석해 온누리교회의 지난 30년과 앞으로 30년에 대한 비전을 나눴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개회예배에서 '부



르심에 합당한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다. 이 목사는 "우리는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면서 "서로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2015년 장로수련회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비전 공유 및 미래 준비, 장로들의 친목 도모, 하나되어 부르짖음이 바로 그것이었다. 수련회에서 만난 장로들은 이구동성으로 온누리교회가 그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30년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더 잘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2014년 온누리 정책포럼에서 선포되었던 '3개의 닻'(선교의 영성, 창의의 영성, 하나됨의 영성)과 '5개의 돛'(새로운 선교 모델,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차세대 복음화와 양육방안, 통일한국의 주역이 되는 교회, 거룩한 직장을 만드는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2013년 장로수련회 메시지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이재훈 담임목사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천상의 모습을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때 무엇이 영적 리더십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일까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천국백성의 예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아름다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일한 비결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천국에서 이뤄질 아름다운 것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는 것이 연결된 것은 '예배'입니다. 온전히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참된 교회와 참된 영적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예배 · 성령 ·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 출발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사역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지 못할 때는 그 후에 이루어질 공동체 모습이 무너지게 됩니다.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계 4:10)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4라는 숫자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합쳐져 24라는 숫자가 이뤄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시대와 신약의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놀라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씌어주신 금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씌어주실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면류관 받을 때 질투하고 경쟁하고 시기하지만, 천국에서는 면류관을 받는다고 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거나 경쟁하는 마음 없이 모두가 각자가 받는 면류관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마치 내가 받는 것처럼 면류관의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온누리 장로님들이 온누리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들로서 단지 질투 때문에 받는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양을 돌보

는 헌신과 수고에 따른 하나님께서 씌어주시는 그런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4장로들이 자신이 받은 면류관을 주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이뤄지는 예배의 절정입니다. 자신이 받은 면류관을 자랑하고 뽐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섬길 수 있었으니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치 않다고 여기며 주님 보좌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의 절정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부흥과 성장과 발전, 아름다운 공동체 위해 세워진 이름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온누리 목회자, 온누리 장로라는 영광스런 면류관도 내려놓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면류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열매를 끊임없이 내려놓을 때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배 · 성령 · 선교 공동체로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쓰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저를 비롯해 영적 리더십들이 천상에서의 면류관을 내려놓는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다면 온누리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면류관을 씌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면류관조차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역할 때 어떤 직분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아니라 직분의 영광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섬기고 나아갈 때 이 땅



에서 우리를 통해 천국의 아름다운 것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온누리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 온누리 목회철학의 실천적 성숙 "3닻 5돛"

온누리교회의 목회철학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소망하며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목표로 세우고 시작되었다. 이러한 목회철학에 따라 선포된 공동체의 성격은 성경적 공동체였으며, 그것은 예배공동체요, 성령공동체요, 선교공동체였다. 이러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은 온누리교회를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이상적인 교회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와 성령과 선교 공동체'는 '국내와 해외의 선교'로, '지역사회 및 대한민국을 향한 사회참여'로 그 영향력을 퍼뜨려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역동적 공동체로 성장해온 온누리교회는 5가지 목회철학의 뼈대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성경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긍휼을 베푸는 교회',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5가지 목회철학의 뼈대를 중심으로 실천하며 성장해오던 온누리교회는 2003년 이후 Acts29 비전을 선포하며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Acts29 비전'은 사도행전(Acts)은 28장까지 있지만,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져야 한다는 소망을 담아 이 시대의 성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Acts29 비전은 온누리교회가 모든 교회들과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기 원한다는 온누리교회의 비전이다. 또한 Acts29 비전은 '흩어지는 교회의 비전'으로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다시 세워감으로 온 누리에 복음을 전하는 온누리교회의 비전이다.

2기를 맞이한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Acts29의 비전'을 함께 하며 새로운 한 걸음을 시작했다. 2대 담임목사로 세워진 이재훈 목사는 2014년 온누리 정책 포럼 행사에서 5가지 목회철학을 기초로 한 걸음 더 전진한 모습의 '3닻 5돛'의 실천적 목회철학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온누리 정책 포럼 당시 선포한 내용을 요약하여 실어보았다.

“온누리 미래를 위한 비전과 도전”

이재훈 담임목사

여러분들에게 전할 내용은 미래를 향한 비전과 도전인데,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새 것처럼 좋은 교회(Good as a new Church)가 아니라 오래된 것처럼 좋은 교회(Good as an old Church)”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충분히 전통적이지 못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의외로 전통의 많은 부분들을 무시하며 전통에 대한 한 가지 고정된 해석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새로움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것은 안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럴 때의 의미는 전통은 한 가지의 것만을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새로운 상태의 교회가 아니라 오래된 것 이후에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다면 사도행전적 교회 역사가 전통에 충분히 나가있고, 도전하고 실험되는 교회를 향한

제 마음 속에 남아 있는 것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온누리교회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전통 3가지를 요약하고,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 도전을 5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3개의 닻(Anchor)과 5개의 돛(Sail)이 필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배가 항해하는 데에 닻(Anchor)은 매우 중요합니다. 풍랑이 오고 물결에 휩쓸려가고 연료가 떨어지고 바람이 안 불때도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닻을 앞으로 들어 배를 끌고 가게 되는데, 이 닻이 바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붙잡아야 될 소중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누리교회가 포기하지 말고 붙잡아야 될 많은 전통 중에서 이 내용은 미시적인 전통이 아닌 거시적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은 섭섭해하실 수 있지만 미시적인 내용보다 거시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를 고정시키고 배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더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닻과 같은 비전을 가진 온누리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3개의 닻

온누리교회가 포기하지 말아야할 전통 중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선교의 영성'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선교의 영성

을 체험했지만, 온누리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발적인 것처럼 보이는 계획되지 않은 일들로 인해 온누리교회의 역사가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핵심이 선교의 영성입니다. 지금도 온누리교회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있고, 그 어느 교회보다 선교헌금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것은 지구 상에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선교 헌금 작정이 온누리교회에 있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볼 때, 선교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교의 영성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통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장로님들과 다른 분들의 조언 중 "목사님께서 가진 비전과 철학대로 조금 더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온누리교회 안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창의적인 변화가 문화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전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통은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겸손과 존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하나됨이란 각자의 소

리와 각 공동체와 각 캠퍼스들이 각자의 목소리와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교회도 놀라워하는 부분이며, 요즘 들어 온누리교회가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격, 성품의 한도 내에서 서로의 차이를 하나로 만들어 가는 영성, 이것이 우리의 소중한 전통이라 생각합니다.

5개의 돛

다음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모험해야 될 가치는 '돛 비전'(Sail Vision)입니다.

돛(Sail)은 멋있는 장식이 아니라, 압력과 긴장, 스트레스의 바람을 맞아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돛단배와 같은 존재라 생각합니다. 돛단배는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같지만 때론 맞바람이나 순풍,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항로로 반드시 가지 않더라도 때론 그 바람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는 것, 그런 돛단배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도전이 있어야 하고, 긴장이 있어야 하고, 모험이 있어야 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것이 없을 때 거룩한 도전이 상실되고 돛은 내려오고, 결국 장식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때론 성령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십

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요청이 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의 교회에 대한 비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비판과 바라는 것, 돛을 높여 받아들이면서 에너지로 만들어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돛과 같이 모험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역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선교사 개인 중심의 팀 사역의 선교사역을 해왔습니다. 미전도종족, 종족별, 지역별로 사역을 진행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개별적 선교사 중심의 사역이 더 많습니다. 종족별, 지역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히 선교사가 비전과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라면 이제는 선교 사역에 필요한 내용을 발굴해서 나가는 선교사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선교국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온누리교회 안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선교단체와 기관들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함께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 모였다는 것입니다. CGNTV, 아버지학교, CMN 등 이런 여러 선교단체들이 하나되어 시너지를 만드는 선교, 이것이 우리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팀워크가 분산되어 각 팀마다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확실한 선교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대형교회를 넘어선 조직적, 유기적 멀티사이트 공동

체를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시도한 것입니다. 한국적 상황에서 멀티사이트 공동체로 만들어 갈 때, 미국적 멀티사이트 교회들의 사례가 긍정적 모델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차후에 온누리교회가 어떻게 나가야할지에 대해 잠시 말해본다면, 세계의 수 많은 멀티사이트 교회들 가운데서 온누리교회가 단순히 멀티사이트 교회로 조직적 대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많은 분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는 있지만 영향력 있는 감동을 줄 수 없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쇠퇴화되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목회자 개인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된다는 것입니다. 노회나 교단에서 개척하는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개인 중심의 교회를 보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께서도 '교회를 낳는 교회'는 회중들이 함께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건강한 교회를 계속 세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많은 수가 문을 닫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주의 사례가 정착되는 것을 막으려면 그 대안은 개척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목회자 개인이 개척하게 되면 성공보다는 실패의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기초에 엄청난 카리스마를 갖게 되고, 사실은 성공할수록 목회자 개인 중심의 사역이 고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캠퍼스 멀티사이트를 통한 좋은 교훈은 교회가 비전을 통해서 개척을 한 캠퍼스, 목회자 개인에게 의존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 중심과 프로그램 중심, 성도 중심의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캠퍼스 개척의 경험을 통해 회중들 가운데 건강한 목회자와 함께 그 숫자는 얼마든지 붙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왜 그런 것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교회적 관점을 가지고 함께 끌고 나갈 목회자들이 없었습니다. 자기중심으로 하고 싶어 하는 목회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젠 "교회 중심의 교회를 개척할 준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지역교회 교단을 넘어서는 한국 교단과 차세대 선교입니다. 차세대 사역은 교육이라는 단어를 선교로 바꿔야 합니다. 선교에 대해서는 너무 폭넓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미션이라는 것은 수평적 선교, 차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수직적 선교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외 선교에 투자하는 것만큼 전심을 다해 차세대 선교에 과감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사회선교를 넘어서 통일을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독일에서 통일을 주제로 포럼을 했는데 목사님들 마음속에 가진 결론은 통일은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닌 영적인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치

관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으며 교회가 주도하는 만큼 통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은 바라보는 만큼 이뤄지는 것인데,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나라들은 정부조차도 통일에 대한 시나리오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교회의 주도적인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바꾸는 일에 온누리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수년간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주도하는 중보를 통해 영적 중심지가 되어 통일을 일으킨 독일이 통일의 영적인 상징이 되었던 것처럼, 훗날 역사에서 한반도의 통일에 온누리교회가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방을 올 수 있게 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님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일터에서 세상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도전해야 할 마지막 가치로 정했습니다.

6. “Acts29 비전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가?”

온누리 30주년 위원회의 질문

온누리교회 30주년을 앞둔 온누리교회에서는 ‘30주년 위원회’를 세워 30주년 기념 관련 사역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온누리교회의 지난 30년을 돌아보는 것으로 ‘기억함’, ‘함께 나눔’, ‘다짐함’이라는 흐름에 맞추어 온누리 30주년을 기념하는 사역들을 진행했다.

기억함, 함께 나눔, 다짐함

‘기억함’으로는 하용조 목사 4주기 추모행사와 함께 ‘하용조 목사 기념관 준공 및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과 창립주일을 맞아 ‘온누리교회 30주년사: 온누리행전 30년’를 발간하는 사역이 계획되고 진행되었으며, ‘함께 나눔’으로는 ‘건강한 교회 세미나’와 창립주일 행사로 ‘해외비전교회 담당 목사와 비전위원 초청 행사’와 ‘선교사 초청 행사’, 그리고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 선교 열린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짐함'으로는 '10월 4일 주일에 창립주일축하예배'를 시작으로 10월 6-8일에 '부흥 비전 집회'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그리고 10월 9일에는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 모여 창립 30주년 축하행사와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인 '울어라, 한반도여!' 집회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3닻 5돛의 실천적 비전 – '예수바보행전'

또한 온누리 30주년 위원회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제시한 '3닻 5돛의 실천적 비전'을 중심으로 미래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에도 시간과 기도로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를 위해 창립 30주년을 기도함으로 맞이하기 위해 '리더십 새벽기도회'를 9월 7-21일 3주 동안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이재훈 담임목사가 직접 생명의 삶 본문인 빌립보서와 에스겔의 말씀을 강해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리더십이 되어 새로운 미래와 비전을 맞이하자"고 선포했다.

2015년 9월 23일 온누리 30주년 위원회의 해단모임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다음과 같은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고, 위원회는 이 비전을 공동의 비전으로 채택하여 9월 24일 당회운영위원회에 보고했고, 당회운영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받아 선포하기로 결의했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제시한 비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선택(고전 1:25, 27)인 '성육신'과 '십

자가'를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들, 곧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들을 세상은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를 위한 바보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의 행전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은 '예수바보행전'(Fools for Christ - "F4C")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의 행전'으로, 3닻 5돛의 실천적 목회철학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II. 온누리교회 1기를 마무리 하며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 변화산에서 생긴 일

故 하용조 목사 마지막 설교 - 2011.7.31.

본문 : 마가복음 9장 2-13절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토대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변화산에서 생긴 일'입니다.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한 후 6일이 지나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습니다. 변화산은 경사가 심해 오르기 쉽지 않은 산입니다. 숨이 차고 땀을 뻘뻘 흘려야 오를 수 있는 산에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까요.

기도하기 위해 오른 변화산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2절)

열두 명의 제자 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가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 사람과 특별히 가깝게 지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힘들게 변화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변화산 정상에 올라 말씀을 전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까지 특별한 핍박 없이 비교적 평온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오른 이후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변화산에 오른 이후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고난과 역경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았을 때에는 관대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연인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막 연애를 시

작한 연인들은 모든 것에 관대하지만 사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작은 것까지 간섭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셨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눅 9:29)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지상에서는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천국에서 입는 하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옷뿐만이 아닙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땅에 계실 때와 하늘에 계실 때가 다릅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충격과 혼돈에 빠진 베드로

예수의 옷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희고 광채가 났습니다.(3절)

마태복음 17장에도 변모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됐습니다.(마 17:2)

우리는 변모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천국의 의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그분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 선 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계 1:16)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 있게 비추고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계시지 않고 두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4절)

예수님이 변모하신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데, 서로 보완하며 말씀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싸여 나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눅 9: 30~31)

누가복음에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일을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충격을 받고 혼돈에 빠졌습니다. 이성과 상식으로 살고 있는 베드로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광경을 보고 굉장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너무 놀라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세 개를 만들어 하나에는 주를,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5절)

당시 베드로의 신앙은 미성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미성숙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사십시오. 자신의 미성숙을 인정해야 신앙은 성숙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봤고, 닭이 울 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자신의 생업이던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믿음은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서야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길은 한참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열심히 가십시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를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7절)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나타났다는 것은 마치 모세가 시

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는 장면도 이와 비슷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짓고 기름을 붓자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 찹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성막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교회를 가볍게 들락거리는 곳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는 언제나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주신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원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요청을 듣고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째서 예수님이 제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라고 말하며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거절하지 마라.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

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와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긴다"는 음성을 들려주시면 다른 어떤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두 가지 음성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만약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보면 고난과 억울함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지쳐서 결국 실족하고 맙니다.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완성

그 순간 그들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 두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8~9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이 합해져야 완성됩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 소문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셨지만 비밀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마음에 새겨 두면서도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물어보았습니다.(10절)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는 누군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 자기들끼리 많은 토론을 했지만 결국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토론을

자주 하지 마십시오. 토론을 많이 한다고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다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과 사역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믿으시고 지상명령을 수행하도록 하신 예수님은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라면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실 수 있었을까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안하거나 걱정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고 '왜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왜 모세가 나타났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까?"(11절)

제자들의 질문은 율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말과 같았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 성경에 기록돼 있는 대로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12~13절)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요,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창녀처럼 살던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를 알아봤습니다.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 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요 4:28~29)

여러분들은 최소한 수가성 여인보다 높은 학력과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2. 믿음의 큰 별, 하나님의 품에 안기다

故 하용조 목사 천국 가는 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9-20)

목숨을 걸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켜왔던 하용조 목사가 2011년 8월 2일 뇌출혈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소천했다. 향년 65세. 영적 지도자를 잃은 6만여 성도는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하용조 목사의 땀과 눈물로 세운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비전교회, 두란노, 전주대, CGN TV 등은 한 마음으로 소천을 애도했다.

8월 1일 뇌출혈

하용조 목사는 7월 31일 서빙고 1부와 양재 3부 주일예배를 마치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8월 1일 새벽 뇌출혈을 일으켰다. 긴급하게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되어 오전 4시 38분경 1차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으나 오후에 뇌압이 올라가 2차 수술을 받았다.

하 목사의 뇌출혈 수술 소식이 전해지자 교회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즉각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와 〈목회와 신학〉 트위터 등을 통해 중보기도 요청 메시지가 퍼졌고,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혹은 교회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 목사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8월 1일 밤 9시 임시확대당회가 소집되었다. 교역자와 장로 200여 명이 참석한 당회에서 최도성 장로로부터 "하용조 목사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리더십들은 눈물을 쏟아내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하 목사의 회복을 의탁했다.

8월 2, 3일 위로 · 추모예배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을 뒤로한 채 8월 2일 오전 8시 40분, 하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소천 소식이 전해지자 성도들은 비통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망연자실 눈물만 흘렸다. 장례는 온누리교회장으로 서빙고에서 엄수되었다.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김지철 목사(소망교회), 최도성 장로(당회서기), 최순영 장로(할렐루야교회)가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아 장례 일정을 진행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고, 8월 2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8시에

각각 라준석 목사와 서정오 목사(동숭교회)가 위로예배를 인도했다. 8월 3일 오전 10시 입관예배는 김지철 목사, 오후 2시와 8시 위로예배는 각각 김창근 목사(무학교회)와 김정서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가 인도했다.

8월 4일 천국환송

8월 4일 오전 7시,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출발한 운구차가 오전 7시 40분 경 교회에 도착했다. 시신이 본당으로 옮겨지는 동안 성도들은 찬양하면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찾은 하 목사를 맞이했다. 오전 9시. 이동원 목사의 인도로 천국환송예배가 엄수되었다. 이날 천국환송예배의 특순자는 다름 아닌 하용조 목사. 생전에 즐겨 부르던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부르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흘러 나오자 성도들은 슬픔을 참지 못하고 또 다시 눈물을 흘렸다.

오후 2시. 장지가 마련된 강원도 문막 온누리동산에서 홍정길 목사의 인도로 하관예배가 엄수되었다. 장례의 마지막은 하용조 목사의 천국 입성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은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예식으로 장식했다.

추모 발길

장례가 치러진 8월 2일부터 4일까지 각계각층에서 조문 행렬이 이

어졌다. 빈소가 마련된 서빙고, 대전, 평택, 전주대, 두란노에는 6만여 명이 찾아와 조문했다. 열방에서는 CGNTV를 통해 하 목사의 천국 가는 길을 환송했다.

빈소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 정몽준, 손학규, 박진, 이용경 국회의원, 이용훈 대법원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 정재계 인사와 조용기 원로목사,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김성혜 한서대 총장, 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영주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총무, 박위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부총회장, 김선도 목사(광림교회), 박종순 목사(충신교회), 김창근 목사(무학교회), 이철신 목사(영락교회) 등 교계 인사가 다녀갔다. 또한 배우 강부자, 코미디언 구봉서, 영화배우 고은아, 김자옥, 엄지원, 유선, 작곡가 주영훈, 축구선수 이영표, 골퍼 최경주, 가수 양파, 작가 이지선 씨 등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다녀갔다.

자원봉사

갑작스럽게 들려온 비보에 하용조 담임목사를 조문하기 위해 교회를 찾아온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뤘다.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교회로 몰려들면서 혼잡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권사회, JDS, 여성사역, CGNTV, 간사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사



고 없이 장례를 치렀다. 봉사자들은 주차, 안내, 식당봉사, 의전, 휴게소 등에서 3일 동안 조문을 하기 위해 찾아 온 6만여 명의 손과 발이 되었다.

애도의 트윗

- “아. 처음 그 분의 설교를 듣던 날이 생각납니다. 온화하지만 열정적이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셨던 ‘하용조 목사님’ ” – 엄지원 (배우)
- “하용조 목사님의 소식에 마음이 무거운 아침.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정경미 (코미디언)
- “오라... 그리고 가라! 그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 이영표 (축구선수)
- “아... 하용조 목사님” – 이지선 (〈지선아 사랑해〉 저자)
- “사랑하는 하 목사님. 편히 쉬세요. 너무너무 보고 싶을 거에요. 그 사랑 잊지 못할 거에요.” – 한혜진 (배우)
- “아. 아직 하실 일들이 많으신데...마지막까지 설교하다가 떠나시고 싶으시다던 목사님. 결국 마지막 주일 설교를 마치시고 가셨네요. 사랑하는 하 목사님. 벌써 그립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 주영훈 (작곡가)
-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사랑합니다. 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슬프지만 하 목사님을 위해 준비된 천국의 축제가 얼마나 크고 기쁠지 생각만으로도 설레입니다. 그 삶을 닮아 살길 원합니다.” – 김범수 (가수)
-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만 떠오릅니다. 이제야 편히 쉬시겠죠. 그러하리라 믿으면서도 가슴이 막힙니다.” – 백지연 (아나운서)
- “찾아뵈야지 했는데... 건강 악화로 하시기 어려운데 선뜻 주례를 해주셨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따뜻하고 고생 많으셨던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편히 쉬시길” – 윤종신 (가수)
-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 신현준 (영화배우)
- “기도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마음써 주신 만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 늘 죄송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곁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목사님. 늘 감사했어요. 사랑합니다.” – 박기영 (가수)
- “지금 하용조 목사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귀한 순종과 사명의 인생, modeling 너무 감사하며... 저도 그 길을 따라 다음세대와 온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 전하겠습니다. 목사님과 가족 그리고 저희 온누리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 브라이언 (가수)

- "우리 부부를 많이 아껴주셨는데... 결혼식 새벽에도, 아이를 가졌을 때도 기도를 해주셨는데...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열정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품안에서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 – 션 (가수)
- "사랑하는 목사님이 소천했다." – 윤영미 (아나운서)
- "대한민국 또 한 분의 큰 별께서 하나님 곁으로 가셨네요. 평소 존경하던 하용조 목사님.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행복하세요." – 최시원(가수)
- "하용조 목사님. 너무나 거룩하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 가신 당신을 잊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 유선 (배우)
- "저에게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고 새 마음과 새 행복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할거에요. 계속." – 티아라 소연 (가수)
- "지금 천국에서는 파티가 열리고 있을 것. 하 목사님, 하늘에서 평안하세요." – 유키스 동호 (가수)
-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셨군요. 마음 너무나 아픕니다. 평안히 쉬시길.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 문정희 (배우)
- "어젯밤에 하용조 목사님이 직접 주신 성경책을 끌어안고 잤는데. 목사님 주님 곁에서 편히 쉬세요." – 린 (가수)
- "목사님, 하나님 품에서... 우리도 곧... 사랑해요! 아..." – 하하 (가수)
- "따뜻한 기도와 말씀해주셨던 하용조 목사님... 하늘나라에서 아프지도 마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 이정 (가수)
- "목사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안녕히 가세요. 주님 곁에서 편히 쉬세요." – 소이 (가수)

3.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故 하용조 목사 천국환송예배

“한 평생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땅 끝까지 달려가신 목사님 위해, 지금 천국에서는 축제가 펼쳐질 것입니다.”

2011년 8월 4일 목요일 오전 7시 40분,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운구된 故 하용조 목사가 지난 26년간 몸 담았던 서빙고 본당에 내려졌다. ‘천국환송예배’에 참석한 1만 여 성도들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일찍부터 예배당을 가득 메웠다. 발 디딜 틈 없는 본당에는 고인이 살아 생전 걸어온 길을 그린 추모영상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예배는 생전에 하 목사가 가장 좋아했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함께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고인을 웃으며 축복하며 떠나보내자는 라준석 목사(총괄수석)의 말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부르던 도중, 예배당 곳곳에서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

한 애달픈 통곡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날 설교는 신학교 시절부터 뜻을 같이 한 오랜 친구이자 '복음주의 4인방' 중 한 명인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목사)가 맡았다. 이 목사는 "하용조 목사는 말씀과 성령의 깊은 샘에서 일생을 살았다. 그는 꿈을 만들고 꿈을 나누고 꿈을 주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서 하 목사의 일생을 추억했다. 이동원 목사는 특유의 위트를 발휘해 "아마도 오늘이 하 목사의 뒤치다꺼리 사역을 하는 마지막 날이 아닐까 생각한다. 천국에 가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해 눈물범벅이 된 성도들의 얼굴에 잠시나마 웃음을 선사했다. 천국환송예배는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와 첼리스트 송영훈 형제가 특순으로 고인을 기렸고,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김인중 목사(안산동산교회),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가 생전 하 목사와의 추억담을 전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예배 후 하용조 목사의 관은 운집된 성도들의 마지막 인사를 받으며 강원도 문막 온누리동산으로 향했다. 7번의 수술을 받고 1주일에 3번씩 투석하는 연약한 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비전을 품었던 사람, 65년의 생애를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마지막 한 올까지도 남김없이 내어드린 참된 헌신자, 하용조 목사. 성도들은 이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 곁에서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진정한 '쉼'을 누리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천국환송예배 기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김종인 장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종 하용조 목사님의 천국환송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 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중에 오셔서 영광중에 거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하나님.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며, 만유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들과 65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를 통하여 교회와 선교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열정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익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를 통하여 이 시대에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것 밖에는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

다. 오직 교회와 선교 외에는 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아픈 몸으로 몸에 남은 진액 한 방울 없이 복음에 다 쏟아 붓고 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의 열정으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다가 그는 사그라져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는 것이 없으시되 저희는 손실이 너무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무 준비의 시간이 없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불시에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사모님과 아버지를 떠나보낸 성석, 성지를 기억해 주옵소서. 불시에 꿈꾸는 이를 잃고, 목자 잃은 양 떼가 된 온누리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불시에 시대를 통찰하는 영적 리더를 잃은 이 땅 위의 교회들과 그가 그토록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했던 열방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는 저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한 종의 사랑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분별력과 영적 지혜를 주셔서 주께서 이 땅 위에 건설하려고 하셨던 아름다운 공동체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온누리교회 목회자, 장로, 모든 영적 리더들에게 연합과 일치와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영이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도 그를 닮아 계속 성령으로 불타올라 온누리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Acts29의 발걸음을 계속하게 하시고, 저희 앞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절차와 특별히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위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광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환송예배 설교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본문 : 창세기 49장 22절

여러 언론사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올린 대답은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그의 꿈이었습니다. 꿈이 그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꿈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는 꿈을 심고 살았습니다. 그는 꿈을 나누고 살았습니다. 그는 꿈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곱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적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유언적 축복인 동시에 예언적 축복이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요셉을 향한 축복, 예언을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제 마음 속에 하 목사님을 닮은 성경의 인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하 목사님다운 모습을 성

경에서 찾는다면 요셉이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성한 열매' 맺은 인생

하 목사님의 인생, 그것은 첫 번째로 무성한 열매의 인생입니다. 말씀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로 시작합니다. '무성한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가 애굽의 축복이 되었고, 조국 이스라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겪어야 했던 고난,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겪어야 했던 오해와 고난, 억울한 옥살이의 고난, 그러나 마침내 이런 시련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그가 결혼하고 두 아들을 얻습니다. 그는 첫째 아들을 므낫세(하나님이 다 잊게 해 주셨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열매 맺게 하신다)이라고 짓습니다. 하 목사님이 인생에서 맺었던 그 열매로 이 자리에 와있는 온누리 공동체와 우리 중 많은 사람들, 그 열매는 바로 하 목사님의 고난이 가져다 준 보상으로서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온누리 공동체의 열매, 온누리 비전교회의 열매, 두란노서원 사역을 통해 한국 교회에 남긴 열매, 그러나 이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 하 목사님은 많은 고난의 세월을 견뎠습니다. 7차례에 걸친 대수술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면서 마지막 산화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고난



속에도 한 가지 비전의 성취 앞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별명은 '종합병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걸음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투석을 하면서도 사역을 생각했고, 병원에서도 새로운 사역을 지시했고, 일본에 치료하러 가서도 일본 비전교회를 낳았고,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을 축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 목사님의 그 많은 열매는 고난을 통해 맺어진 열매이기에 더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 마디로 그의 인생은 무성한 '열매 인생'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샘에 뿌리를 둔 삶

본문을 통해 보는 두 번째 하 목사님의 인생은 '인 리치'(in rich)의 인생입니다. 하 목사님은 아웃리치를 위해 자기 생애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웃리치의 배후에 하 목사님의 인생 속에는 깊고 부요한 샘이 있었습니다. 마치 요셉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샘에 뿌리를 두고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을 몰랐던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찌 찾으리요"라고 말했습니다. 하 목사님은 성령의 감동을 사모했습니다. 복음주의에서 성령운동을 증폭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목회 초기에 성령 사역에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이었

고, 하 목사님이 성령사역 쪽으로 가는 것도 비판적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홍 목사님과 함께 조금씩 하 목사님의 손을 잡아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 목사님이 저를 바꾸었습니다. 저도 하 목사님과 더불어 성령운동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목사님의 첫 번째 사랑은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증언한 시편 105편 19절을 보면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했습니다. 하 목사님은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했고,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주야로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는 말씀과 성령의 샘에 뿌리를 대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저는 하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남긴 중요한 공헌 가운데 하나가 말씀 묵상을 보편화시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묵상에 근거해서 하 목사님의 설교는 맑은 샘에서부터 나온 묵상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잡고 한 평생을 살았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깊은 샘에서 하 목사님은 일생을 살았고, 아마도 천국에서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위로를 즐기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In Rich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선한 영향력' 끼친 인생

요셉을 통해 보는 하 목사님의 인생, 세 번째로 담을 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자기 담을 넘지 못

하고 일생을 끝냅니다. 자기 가족을 챙기다가 일생을 끝냅니다. 자기 교회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목회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 목사님의 인생은 담을 넘어, 교회의 경계를 넘어, 민족의 경계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말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사명을 다했을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보디발이 요셉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요셉, 당신은 우리 가정의 축복입니다." 일이 잘못되어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여전히 성실했고, 감옥의 모든 책임을 맡은 자가 됩니다. 감옥의 교도소장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요셉, 당신은 이 감옥의 축복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오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에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애굽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풍년기에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기를 대비했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애굽을 살리고 조국에까지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 목사님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일을 만들었고 축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안식과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간 일본에서도 교회가 태어났고, 사역이 태어났고, 러브소나타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무리한 출혈을 감수하고도 그가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는 고백처럼 온 세계 선교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CGNTV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라는 방법, 재원 조달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사역이라면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열방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쉬게 하시다

저는 엊그제 새벽에 하 목사님이 산소 호흡기를 떼고 마지막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거야." 천국에서도 예수님께 일하자고 하면 아마도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 목사님께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여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마 하 목사님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쉬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쉬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부탁받으면서 조용히 생각하다가 하 목사님의 일생을 요약하는 한국의 아름다운 가스펠 송이 떠올랐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김인식이 만들었던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정확하게 하 목사님의 인생의 그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

했던 하 목사님은 천국에 꽃피우는 나무가 되어 천국에 아름다운 그늘을 만들어, 그 그늘 아래에서 온누리 공동체를, 한국 교회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 목사님에게 조용히 우리의 가슴을 담아 마지막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 목사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4.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누리소서”

故 하용조 목사 하관예배

“목사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잘 하겠습니다.”

하용조 목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하관예배에 참석한 1천여 명의 온누리 성도 및 추모객들은 하늘 위로 풍선을 날리며 하 목사를 떠나보냈다. 그렇게 하 목사는 투석도 수술도 아픔도 병도 없는 주님의 품, 하늘나라로 마지막 길을 떠났다.

지난 2011년 8월 4일(목)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충효공원 온누리동산에 故 하용조 목사가 안장됐다. 온누리동산은 하 목사 부모를 비롯해 고 김사무엘 목사 등 교회 성도들이 안장돼 있는 곳이다.

하관예배는 김지철 목사(소망교회)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김 목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충성했던 주님의 귀한 종 우리 하용조 목사님을 주님께 보내드린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온누리 교역자들은 하 목사가 생전에 좋아하던 찬양 '순례자의 노래'로, 손인경 집사는 바이올린 연주(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로, 김영미 권사는 찬양(하나님의 은혜)으로 하 목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는 '최상의 생애'(창 5:21~24)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홍 목사는 "하 목사 생애의 멋진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 목사의 능력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였다"면서 "온누리교회가 하 목사의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됨으로써 입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라준석 목사(총괄수석)가 대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라 목사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시는 목사님을 형상화시킬 수는 없지만 풍선을 날리면서 목사님을 떠나보내고자 한다"면서 "목사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잘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인사를 선창했다. 하늘로 풍선을 날리는 세리머니가 이어졌다. 하늘 높이 날아가는 알록달록한 색깔의 풍선과 함께 온누리 성도들은 하 목사를 떠나보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날을 고대하며.

하관예배 기도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최도성 장로(당회 서기, 장례위원회공동위원장)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랑하는 하용조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그립고 보고 싶은데, 이제 누워 계신 관에 흙이 덮이면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나 힘듭니다. 육신의 헌 장막이 묻히는 것일 뿐, 하 목사님은 이미 주님과 함께 평안히 계시는데, 그 위로도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기에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종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떠나시면 온누리교회 목사님의 빈자리는 어떻게 채우나요. 한국 교회와 사회의 빈자리는 또 어떻게 하나요. 하 목사님은 건강과 생명 모든 것을 던져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고, 그 기반을 닦으셨습니다. Acts29 비전, 2천/1만 비전을 가지고 36개의 캠퍼스 교회와 해외 비전 교회, 두

란노서원, CGNTV, 아버지학교, 러브소나타, 블레싱 아시아, 블레싱 무슬림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창의적인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꿈꾸셨던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자 없는 양떼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남은 자들이 이 일을 완성해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슬피 울고 내일부터는 굳은 믿음으로 하 목사님이 남기신 일들을 목숨 바쳐 이루어가는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 목사님을 더 이상 투석도 없고, 아픔도 괴로움도 병도 없으며, 바쁜 것도 없는 편히 쉴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천국 동산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목사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던 사모님과 자녀들의 눈물을 씻어 주옵소서. 하늘의 평화로 위로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로 아픈 마음을 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 목사님, 이제 안녕. 안녕. 이제 편히 쉬세요. 멀지 않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하는 소망으로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위로와 평화로 우리 모두를 감싸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홍정길 목사님과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예배자들의 슬프고 아픈 마음이 모두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관예배 설교

“최상의 생애”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본문 : 창세기 5장 21-24절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북전쟁 막바지에 국방장관 선임을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스탠튼이라는 변호사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스탠튼은 명문가문에서 태어나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가 법조인으로 명성을 떨칠 당시, 시골 출신 변호사인 링컨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링컨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모두 링컨의 선택을 반대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분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잘 알아. 그러나 그 분은 이 전쟁을 마지막까지 잘 끌고 갈 수 있는 인물이야.”

스탠튼은 에이브러햄 링컨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링컨이 암살되던 날, 스탠튼은 현장을 찾아와 애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와 사람은 누워 봐야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 것을 안다.”

하나님 만난 인생이 진짜 인생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사랑하는 하용조 목사님이 누우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가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얼마나 큰 분이었는지 절실하게 느낍니다. 저는 처음 임종예배를 드린 후 이동원 목사님과 통화하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 목사 없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리셋(reset)을 해야 하나'하는 생각에 실컷 울었습니다.

여기 하 목사의 시신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 목사가 아니라 하 목사를 65년 동안 담고 있었던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만든 원재료를 다시 돌려드리는 하관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흠이 없고 깨끗하고 죽음없이 하나님 앞에 간 에녹의 생애를 기억하며, 진실로 거룩하고 위대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델을 생각해봅니다. 사람 인생의 축복은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에녹이었기에 그 당시 보통 사람이 살았던 삶의 3분의 1 정도 되는 시간에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에녹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운 생애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에녹의 삶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녹은 65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21절)

에녹은 그때까지 평범한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므두셀라를 낳은 즈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는 기록이 없지만 65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인생인 것은 하

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숭이와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유일한 차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동물처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만날 때까지는 인생도 아직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은 처음 신앙을 가질 때에 이런 슬로건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났다." 우리는 성경 말씀처럼 거듭났다는 말을 기쁨으로 가졌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밖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 밖에 죽지 않는 인생인 것을 친히 목도하는 증인들입니다.

하 목사의 능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용조 목사는 1966년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습니다. 하 목사의 인생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삶은 생존에서 삶으로, 생명되신 그분을 향해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하 목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내 것인 사람만이 예수님이 구세주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 목사 생애의 멋진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하 목사가 살았던 모든 능력은 그 다음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뜻이 다르면 동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뜻이 같으면 동지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동원 목사나 옥한흠 목사도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뜻이 같았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평생지기로서 가족이나 형제보다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 목사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온누리 공동체에 속한 젊은 교역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출발점은 하 목사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게다가 하 목사는 처음부터 병앓이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20대에 결핵을 앓아서 토요일이면 하 목사를 만나러 결핵 요양소에 가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등산 갔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업고 내려와야 하는 등 그의 육체는 연약했습니다. 그는 원래 축구선수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건강에는 전혀 관심 없는 채로 살았습니다. 예전에 40여 일 동안 하 목사와 둘이서만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홍콩에 갔었는데 하 목사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B형 간염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허약해지니까 간

염이 도져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제 기억 속에 하 목사가 안 아픈 때를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 목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젊은 목회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 목사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였습니다. 하 목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 목사가 믿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실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하 목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누리교회는 하 목사의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입증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 목사는 몸이 약하니까 결사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축복인 것을 많이 봅니다. 몸이 건강해서 못된 죄를 짓는 것보다 몸이 약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많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 목사의 병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붙잡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하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하 목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 온누리 공동체 위에 성령으

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곧 만납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어린 소년에게 에녹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과 늘 재미있게 놀았대요.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하나님과 계속 즐겁게 놀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멀리 데리고 가시더니 '에녹아, 해는 저물었고 너희 집은 멀고 우리 집은 가까우니 나랑 같이 가지 않으련?'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옮겨 갔답니다."

여러분, 하 목사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24절)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 목사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인해 여기에 있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얼마 있으면 만납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제가 먼저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순서가 바뀌니까 오늘 하관예배를 집례하는 아픔을 맞았습니다. 이 아픔 속에서 유일한 소망은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 목사를 다시 만날 때에는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다가 승리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

다. 이미 하 목사는 옥한흠 목사를 만나서 옥 목사 떠난 다음의 이야기, 사랑의교회를 짓는 현장을 가보았다는 말도 자세히 할 것입니다. 제가 하 목사 덕분에 결혼식장을 얻어서 아들을 장가보냈다는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얼마 있으면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날 때 우리의 달려갈 길을 아름답게 달리되, 동행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다가 개선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5. “복음과 사랑으로 한평생 사도행전적 교회 일구다”

故 하용조 목사의 생애(1946.9 - 2011.8)

약한 자 섬긴 따뜻한 사람

하용조 목사는 1946년 9월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났다. 5살 되던 해에 터진 6 · 25 전쟁으로 부모님과 함께 한반도 끝자락인 목포로 피난해 그곳에서 자랐다. 당시 거리에는 전쟁과 질병,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았다. 하용조 목사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거리의 고아들을 자주 집으로 데려왔다. 부모님이 운영한 고아원은 25년 넘게 250여 명의 고아들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보금자리가 되었다. 하용조 목사는 어린 시절을 고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약한 자를 섬기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부르심에 순종한 아름다운 청년

청소년 시절 하용조 목사는 역사와 문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



을 읽는 젊은 사색가였다. 삶의 의미, 실존, 생의 방향을 깊이 묵상하던 중 한국대학생선교회(C.C.C.)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C.C.C.에서 학생 리더로 캠퍼스를 섬기며,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대학생활을 보낸 하용조 목사는 졸업 후에도 C.C.C.의 학원선교 간사로 대학생 선교에 헌신하였다. 하용조 목사는 한국 C.C.C.를 세운 김준곤 목사의 영향으로 복음, 성령, 민족을 향한 열정을 갖게 되었고, 대형 집회와 소그룹을 통해 전도와 양육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 하루하루 하나님께로 나아가던 하용조 목사

는 갑작스럽게 폐결핵을 앓는다.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대학 졸업 후 장로회신학대학교에 입학하여 1974년 신학 공부(M.Div)를 마쳤고, 1976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신학교 시절 만난 장로회신학대학원 주선애 교수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성, 긍휼의 마음, 거룩한 삶을 배웠다.

문서사역의 새 지평, 두란노서원

하용조 목사는 신학생 시절부터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코미디언 등 수많은 연예인을 전도했다. 당시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황무지에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다. 그 씨앗이 한국 최초인 '연예인교회'로 열매를 맺었다. 이 교회에서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대중을 위한 열린 새신자예배가 시작되었다. 연예인교회에서 7년동안 사역한 하용조 목사는 또 다시 쓰러졌다. 과로로 인한 만성간염과 당뇨, 고혈압이 겹쳤다. 목회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하 목사는 연예인교회를 사임하기에 이른다.

병상에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던 중,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서원'을 세우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하용조 목사는 최고 수준의 기독 서적, 잡지, 세미나를 통해 복음으로 세속문화를 변화시키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된다. 그리고 병상에서 일어난 1981년 12월 두란노서원을 창립했다.

2010년 창립 30주년을 맞은 두란노서원은 3,000여 종의 단행본을 출판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큐티지인 〈생명의삶〉과 평신도를 깨우는 〈빛과소금〉, 목회자를 위한 〈목회와신학〉등 7종의 잡지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생명의삶〉은 영어판, 일본어판, 중국어판, 스페인어판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또한 하용조 목사는 두란노서원에 성경대학을 개설하였다. 이곳에서 가정, 문화, 선교 등 다양한 분야의 세미나와 훈련 프로그램으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 두란노서원을 시작할 무렵, 하용조 목사는 OMF 선교사이자 강해설교가로 유명한 데니스 레인 목사를 만났고, 그에게서 선교사의 삶과 강해설교의 축복을 배웠다.

한국 교회의 모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는 뉴질랜드 바이블칼리지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이형기 사모와 1978년 결혼하였다. 이들 부부는 안식과 기도, 학업을 위해 1981년에 영국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폭넓은 지적 경험을 맛보며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다. 이들 부부는 LBC에서 복음주의 신학을 배웠고, 선교단체 WEC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다. 특히 런던 인스티튜트(London Institutes)에서 만난 존 스토트를 통해 '현대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영향력'에 대한 큰 도전을 받았다. 영국에서 안식하는 동안 하용조 목사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1985년 귀국한 하용조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12가정과 함께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교회 창립 당시부터 말씀 사역에 전념한 온누리교회는 지금도 강해설교와 성경공부, 일대일 양육, 큐티 사역 등 제자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예꿈, 꿈땅, 파워웨이브, 대학청년공동체는 한국 교회에 영아에서 청년에 이르는 차세대 목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가정사역, 여성사역, 전도사역, 장애인사역, 회복사역, 상담사역 등 다양한 사역은 한국 교회의 목회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특히 경배와찬양, 일대일, 큐티, 아버지학교, 열린예배, 비전과 리더십 축제, 맞춤전도 등의 프로그램은 한국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었다.



복음 들고 땅 끝까지

하용조 목사는 2003년 Acts29 비전을 선포하고 국내, 미주, 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중동에 34개의 비전 교회를 설립했다. 2005년 3월에는 지구촌 전역을 신앙 네트워크화하는 꿈을 갖고 선교전문 위성방송

인 CGNTV를 개국하였다. CGNTV는 전 세계를 9개 권역으로 나눠 설치된 인공위성을 통해 650만 명의 해외 한인들과 수많은 선교사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있다. 또한 '디지털 목회' 라는 새 장을 열고 인터넷, 위성, 케이블, 모바일 등 매체를 활용해 사이버 공간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미국 바이올라대학교와 트리니티신학교, 숭실대, 명지대, 장신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하용조 목사는 한동대학교와 전주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했고,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써 후학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데 헌신했다.

선교 열정 불태운 큰 별 지다

지난 2005년, 한국교회사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교회 발전에 이바지한 10대 설교가'의 한 사람으로 선정된 하용조 목사의 저서로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정신차리고 삽시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창세기 강해 설교-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도행전 강해설교』, 『로마서의 축복, 로마서의 비전』, 『마태복음 강해 설교 시리즈』(전12권), 『행복한 아침』, 『예수님만 바라보면 행복합니다』 등이 있다.

‘온 세상을 위한 교회’, ‘온 세상을 향한 교회’를 향한 꿈

‘걸어 다니는 종합병동’이라는 별명을 가진 하용조 목사는 그동안 일곱 번의 간암 수술을 받았다. 젊은 시절부터 질병과의 싸움으로 연약해진 육체의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욱 더 소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용조 목사는 온누리교회, 두란노, CGNTV를 통해 물붓듯 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한국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온 세상을 위한 교회’, ‘온 세상을 향한 교회’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진액을 쏟아내고 2011년 8월 2일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하용조 목사는 이형기 사모와의 사이에 아들 성석 군과 딸 성지 양을 두었다.



약력

- 1946년 9월 20일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3남 3녀 중 셋째로 출생하다.
- 1951년 한국 전쟁 중 한반도 남서부 끝의 목포로 피난하다.
- 1964년 3월 건국대학교 축산가공학과 입학, 1972년 2월 졸업하다.
- 1965년 한국대학생선교회(CCC)에 입문, 7년간 학생 리더와 전임 간사로 봉사.
- 1966년 8월 4일 경기도 입석에서 CCC 여름대회 중 거듭남의 체험을 하다.
- 1972년 3월 장로회신학대학에 입학, 1975년 2월에 졸업하다.
  3월 마포교회 전도사로 부임, 1974년 6월까지 사역하다.
- 1976년 5월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다.
  5월 한국 최초의 '연예인교회'를 개척하고 1980년 8월까지 시무하다.
- 1980년 12월 '두란노서원'을 창립하다.
- 1981년 7월 영국 런던 바이블칼리지에 입학, 1982년 6월 수료하다.
- 1982년 7월 영국 WEC 국제선교센터에서 훈련 받고 같은 해 12월 수료하다.
- 1983년 3월 영국 런던 인스티튜트에 입학, 1984년 2월 수료하다.
- 1984년 10월 한남동 횃불회관에 12가정과 함께 '온누리교회' 모태를 만들다.
- 1985년 4월 월간잡지 '빛과 소금' 편집인 되다.
  10월 '온누리교회'를 창립하다.
- 1994년 12월 18일 세계선교교육센터를 기공하다.
- 1995년 3월 21일 '국가조찬기도회'서 설교하다.
  11월 한동대학교 이사장에 취임, 1996년 8월까지 역임하다.
- 1998년 5월 미국 바이올라대학교 명예문학박사학위를 받다.
  9월 미국 바이올라대학교 이사로 취임, 2002년 12월까지 역임하다.
- 1999년 8월 사단법인 '온누리복지재단'을 설립, 초대 대표이사에 추대되다.
  12월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전주대, 비전대학, 전주사대부고, 영생고) 이사장 추대되다.
- 2000년 10월 온누리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하다.
  11월 1일 언론문화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문화관광부 표창 받다.
- 2002년 2월 미국 트리니티대학교 명예신학박사학위를 받다.
  4월 시립 용산 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다.
  11월 20일 군포시 청소년쉼터 하나로 개관하다.
- 2004년 2월 한동대학교 이사에 추대되다.

- 2005년 2월 28일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에 추대되다.
  3월 29일 CGNTV 본사 설립 및 개국, 이사장에 추대되다.
  8월 16일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개원하다.
  10월 한국교회사학회 주최 '한국교회 10대 설교가'에 선정되다.
  12월 9일 세계건국인대회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건국인상' 수상하다.
  12월 29일 외국인근로자 위한 온누리 M센터 개원하다.
- 2006년 4월 27일 명지대학교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다.
  5월 10일 용인 '온누리노인요양센터'를 개관하다.
- 2007년 1월 10일 온누리 희망밥차 운영 시작하다.
  10월 10일 숭실대학교 명예기독교학박사학위를 받다.
- 2008년 9월 17일 '위대한 설교 콘퍼런스' 주강사 5명 중 한 명으로 초대받다.
- 2009년 5월 온누리요양 신축센터 개원하다.
  6월 일만사역자 위한 홈페이지 오픈하다.
- 2010년 6월 26일 'Acts29 비전 빌리지' 개원하다.
- 2011년 5월 3일 장신대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다.
  7월 31일 주일 3부 예배를 마지막으로 설교하다.
  8월 2일 뇌출혈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천하다.

병상일지

대학생 시절 폐결핵 발병

군 시절 폐결핵 재발병

연예인교회 사역 당시 만성간염, 당뇨, 고혈압 발병

1999년 간암 수술

2001년 2차 간암 수술

2001년 3차 간암 수술

2004년 4, 5차 간암 수술

2008년 6차 간암수술

2009년 7차 간암수술

2010년 심장 수술

2011년 뇌출혈로 소천

III. 온누리행전 30년을 되새기며

온누리교회 목회철학의 5가지 뼈대를 중심으로



1

성경중심의 교회

1. '바로 그 교회'의 꿈

1980년, 연예인교회를 섬기던 하용조 목사는 "건강이 좋지 않으니 사역을 내려놓고 쉬라"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국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하용조 목사는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있었던 것과 같이 약 6개월 동안 하루 12시간씩 수면을 취하며 회복의 시간을 보냈다. 하용조 목사는 건강을 돌보면서 두란노서원과 온누리교회에 대한 그림을 확인하는 기회를 맞았다.

존 스토트 목사를 만나면서 알게 된 런던 인스티튜트는 두란노서원의 모델이 되었다. 특히 짐 그래함 목사의 교회는 하용조 목사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조그만 예배당에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모인 사람들은 손을 들고 열정적으로 찬양했다. 예배는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1시간이 넘도록 설교가 이어졌고, 설교 후 성도들은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었다. 눈물로 함께하는 성찬식은 큰 감동이 있



건강 문제로 연예인교회를 내려놓고 영국으로 떠난 하용조 목사. 이곳에서 하 목사는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





(좌) 신학교 시절부터 뜻을 같이 해 온 4인방. 앞에서부터 옥한흠 목사, 홍정길 목사, 이동원 목사, 하용조 목사.
(우)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하는 짐 그래함 목사의 교회에서 온누리교회 예배에 대한 그림을 그렸다.

었다. 하용조 목사는 이 교회에서 온누리교회의 예배에 대한 그림을 그렸다.

그러던 1983년, 하용조 목사는 한국에서 연락을 받았다. 신동아건설

의 최순영 장로와 이형자 사모가 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 목회를 해 보지 않겠냐는 제의였다. 하용조 목사 부부는 이 일을 위해 1년 동안 기도했다. '한국에 이미 많은 교회가 있고, 서빙고 인근에도 좋은 교회가 있는데 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 주셨다. 하지만 그 후에도 기도는 계속 되었다. '2천 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이 의도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보여 주셨던 그 교회가 가능할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응답하셨다. 그 응답에 하용조 목사는 비로소 확신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사도행전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면 2천 년이 지난 지금도 가능하다.' 하용조 목사는 비로소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품었고, '성경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긍휼을 베푸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라는 5가지 목회 방향을 설정했다.

귀국 후, 하용조 목사는 과학원아파트에서 소그룹 성경공부를 인도했다. 소그룹 성경공부는 점차 자신의 집을 내어 놓고 밤늦게까지 성경을 공부하는 사도행전적 공동체로 성숙해 갔다. 그렇게 모인 12가정에게 하용조 목사는 사도행전의 교회 모습을 지속적으로 전했고, 이들은 점차 사도행전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헌신과 열정이, 온누리교회가 '바로 그 교회'로 자라는 초석이 되었다.

2.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1984년 귀국한 하용조 목사는 과학원아파트에서 소그룹 성경공부를 인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꿈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 해 10월, 한남동 횃불회관(한국기독교선교관)에 12가정이 모였다. 이날 모인 12가정은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었다. 이들 모두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인 것은 아니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던 한 부인이 하용조 목사를 찾아온 것이 발단이 되었다. 하용조 목사는 그 자리에서 3개월 동안의 성경공부를 제안했고, 남편의 친구들과 몇몇 부인들이 합세해 성경공부가 시작되었다. 성경공부는 숨 가쁘게 진행되었다.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은 후 내용을 요약하고, 정해놓은 주제에 따라 리포트를 썼다. 일주일에 책 3권을 읽고 독후감도 썼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성경공부가

진행되었다. 성경공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후 성경공부 모임은 2기, 3기로 이어졌고, 1기 성경공부를 마친 사람들이 2기 성경공부 멤버들을 도왔다. 그들이 각각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자, 하용조 목사는 성경 가르치는 일을 평신도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성경공부는 주일 아침 10시에 시작해 예배와 성찬식, 식사와 교제로 이어졌고, 다시 성경공부가 시작되어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끝나곤 했다.

당시 얼마 안되는 멤버들 사이에도 신앙의 차이가 컸고, 신앙적 배경도 천차만별이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는 "이제까지의 직분이 무엇이었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장로, 권사, 집사라는 호칭 대신 모두 형제, 자매라고 불렀다.

성경공부와 동시에 이들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꿈을 함께 꾸었다. 이들은 '교회를 세우기에 앞서 1년 동안 훈련하며 기도로 준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수요예배는 각 가정을 돌면서 드렸다. 자연히 예배 후에는 교제가 이어졌고, 각 가정의 깊은 기도 제목까지도 함께 나누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이들은 각 가정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해졌다. 교회의 모습과 방향을 주제로 새벽 1-2시까지 머리를 맞대는 일도 많았

다. 1985년 10월 6일 창립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12가정은 각자 한 가정씩 초청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갔다. 그렇게 모인 78명이 온누리교회의 창립예배를 준비했다.

12가정

허영오 류석인/ 조성록 유은필/ 황재규 김혜영/ 송영태 강숙경/ 이은호 변봉춘

송만석 김해리/ 김정환 김경애/ 김종배 박상순/ 김종욱 허정희/ 박화수

신현길 김춘란/ 김충섭 임영선



한남동 횃불회관에 모인 12가정은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고 내용 요약, 일주일에 책 3권 읽고 독후감 쓰기 등 다소 힘든 훈련과정을 마치고 2기, 3기 훈련생들을 양육했다.

3. 가건물에서 입당예배까지

1985년 10월 6일, 창립예배를 드리기로 한 날에도 오전 10시부터 '창세기 일대일 공부'를 빼먹지 않고 했다. 공부 후에는 예배, 성찬식, 식사, 교제가 이어졌다. 그 후 가건물로 옮겨 오후 3시에 창립예배를 드렸다.

한남동 기독교선교원에서 드린 창립예배에는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성록, 황재규 등 2명의 협동장로와 김정욱 외 11명의 남자 집사, 허명희 외 17명의 여자 집사가 임명되었다. 일주일 뒤인 10월 13일에는 첫 제직회가 열렸고, 10월 27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오후 7시 30분 주일 저녁예배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제자훈련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창립예배를 드린 후부터 매주 2배씩 새신자들이 늘어났다. 이들을 위해 12월부터 12주 과정으로 새신자 교육을 시작했다. 이 교육은 ▷

새신자반 ▷구원반 ▷성령반 등으로 나누어 각 4주 동안 진행되었다. 새신자반에서는 사영리, 성령충만한 삶의 비결, 훈련, 온누리교회의 비전 등을 나눴고, 구원반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성령반에서는 성결한 삶을 강조했다. 새신자 교육을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했던 까닭은 초신자 중에 다른 교회에서 온 이른바 '수평 이동자'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온누리교회는 이들에게 교회의 사역과 비전 등을 명확하게 보여주어 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부터 하용조 목사는 설교 때마다 "배웠으면 돌아가라"고 말했다. "7년된 성도는 떠나라"는 말은 창립예배 때부터 선포한 메시지였다.



△1985년 10월 27일부터 가건물로 옮겨 예배를 드렸다. 가운데 하용조 목사의 모습이 보이고, 좌측으로 이동훈 집사(현 온누리교회 부목사)의 모습이 보인다.

▽신동아건설 측에서 무상으로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했지만, 조금씩이라도 건축비를 갚아 나가기로 결정하고 1987년 7월 19일 입당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에는 한경직 목사(하용조 목사 왼쪽)가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복했다.



4. 큐티로 세워진 성도들의 공동체

온누리교회 초창기부터 중점을 두었던 것은 성경공부와 큐티였다. 1984년 12가정으로 시작하여 꾸준히 모임을 했던 온누리교회는 1985년 6월 2일부터 전성도가 주일 5부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예배는 1부 묵상(오전 10:00-11:00), 2부 찬양(오전 11:00-11:30), 3부 예배(오전 11:30-오후 1:00), 4부 친교(오후 1:00-1:30), 5부 신구약성경공부(오후 1:30-3:00) 순으로 진행되었다. 진행을 위해 시간을 구분했을 뿐, 사실상 오전 10:00부터 오후 3:00까지 모임이 이어졌다. 특히 5부 예배시에는 매주 큐티 나눔과 간증의 시간을 가졌다.

1986년 2월에는 본격적인 큐티 훈련이 시작되었다. 하용조 목사와 고무송 목사가 4주에 걸쳐 큐티란 무엇인가, 큐티의 실제, 워크숍과 간증, 워크숍과 나눔 등을 이어갔고, 그해 9월 주일성경공부 안에 경건훈련(QT) 코스가 마련되었다. 1987년에는 큐티 특강과 간증이 있는

'큐티 간증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큐티 간증은 주일 저녁예배나 수요일 저녁예배 시간에 계속되었고, 이것은 큐티나눔방의 모델이 되어 전국적으로 퍼졌다. 큐티는 한걸음 더 나아가 1천만 명의 성도가 큐티를 하자는 '천만큐티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두란노를 중심으로, 큐티 전문 사역자를 키우고 지역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를 여는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하용조 목사는 온누리교회의 기본적인 양육 체계 7가지(새신자 등록, 큐티, 일대일, 제자도, 전도 훈련, 비전과 리더십, 선교사·사역자 파송)에 큐티를 반드시 포함시켰다. 그 이유를 하용조 목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성도들이 항상 교회 옆에 있거나 목사님 옆에 있을 수 없다. 새벽기도는 성도의 10분의 1 정도가 참석한다. 그러면 10분의 9는 어떻게 하는가? 목사님이 안 계시면 그들의 신앙은 죽어야 하는가? 아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스스로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눌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처음에 온누리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성도들의 큐티 노트 검사까지 했다. 큐티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기에 검사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만,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었다. 그만큼 나는 큐티를 양육의 기본으로 생각한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중에서

온누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큐티로 한 마음이 되었고, 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하용조 목사의 설교도 큐티에서 나왔다. 하용조 목사는 늘 강단에 설교 원고가 아니라 낡은 큐티 노트를 들고 올라갔다. 이렇게 온누리의 모든 모임의 중심에는 그날의 말씀 묵상이 자리잡게 되었는데, 순예배에서도, 일대일에서도 큐티는 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었다.



5. Acts29 비전 들고 온 세계로 퍼지다

1999년 7월 25일 온누리교회는 14년 동안의 서빙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재 횃불회관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이후 온누리교회는 예배와 목회 등 전방위적이며 역동적으로 활성화 됐다. 기독교 문화 공간으로써 위상을 높이던 횃불회관과 문화를 선도하는 온누리교회의 만남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양재에서 드리는 주일예배는 단 한 번이었지만 새신자반, 유초등부 · 대학청년부 모임, 기도회, 성가대 연습, 큐티 세미나 등 각종 모임이 연일 이어졌다. 이후 예배와 행사, 모임 등이 더욱 늘어나자 2001년 2월부터 횃불회관 전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교회사무국, 재단사무국, 두란노해외선교회 등이 사무실을 양재로 옮기면서 양재 온누리교회의 막이 올랐다. 그러나 본격적인 양재 시대는 월세로 사용하던 횃불회관을 전세로 전환해 사용하기 시작한 2002년 3월부터다. 이때부터 온누리 사역

축제 등 큼직한 행사들이 양재에서 개최되었다.

같은 해 12월 15일, 부천 온누리교회에서도 예배가 시작되었다. '신사도행전의 선봉대',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 '부천성시화' 등의 비전 아래 힘차게 출발한 부천 온누리교회는, 이듬해 3월 온누리교회가 Acts29 비전 즉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비전을 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Acts29 비전 선포

하용조 목사는 2003년 3월 주일예배에서 'Acts29'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다. 그리고 30개의 비전교회 설립에 대한 개척의 꿈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하 목사의 Acts29 비전은 그동안의 온누리교회의 모든 목회 철학과 사역을 국내외의 여러 지역 교회와 함께 나누어서 모든 교회들을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자는 비전이다.

이 Acts29 비전은 그동안의 '2천/1만 비전'을 업그레이드 시킨 비전이요, 온누리교회의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과 활동을 하나의 선교 비전에 총집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의 창립 정신인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 그 사역을 계승하고 사도행전 29장을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용조 목사의 Acts29 비전의 선포와 함께 온누리교회의 역사 구분은 '성숙기'에서 '결실기'로 나아가고 있다.

Acts29 비전을 위한 교회의 정체성

하용조 목사는 Acts29 비전을 선포하면서 온누리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로 확고히 하고,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에 대하여 세 가지로 정리했다.

▶ 교회를 재생산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또 다른 성도를 재생산하듯이, 건강한 교회는 또다른 교회를 재생산해야 한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에 의해 설립되고 지원될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는 교회를 낳는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 전도를 위해 흩어지는 교회

사도행전의 예루살렘교회는 짧은 기간에 급성장한 대형교회였다. 하나님께서 대형교회로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흩어져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온누리교회는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이제 훈련되고 준비된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복음이 필요한 미개척 지역으로 나가야 한다.

▶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선교에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과 전략이 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전략은 미개척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온누리교회는 교회 개척 중심의 선교 비전을 회복하고 온누리 비전교회를 세울 것이며, 다시 온누리교회와 온누리 비전교회는 합력하여, 선교지에 세

워지는 또 다른 2,000 교회의 설립을 감당할 것이다.

Acts29 비전의 네 가지 축

하용조 목사는 Acts29 비전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전교회의 설립, CGNTV 위성방송의 설립, Acts29 비전빌리지 운영, 사회참여의 확대를 언급했다. 이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와 전 세계 곳곳에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누리교회의 Acts29 사역이다. 이 네 가지 축의 내용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 참여

▶ LAMP ON(온누리 긴급구호재난본부) 활동

▶ 외국인노동자와 탈북민들을 품는 교회

▶ 문화 복지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

▶ 자원봉사시스템을 극대화하는 교회

2. CGNTV(위성방송)

▶ 적도 상 인공위성 9개를 통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것

▶ 복음과 좋은 정보가 인터넷과 인공위성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각 권역별 주요 평성 시간대에는 영어와 각 현지어로 방송하는 것

3. 온누리 비전교회

▶ 세력 확장이 아니라, 지역속에 들어가 연약한 교회들을 격려하며 돕는 것

▶ 국내외 지역 교회들과의 협력과 매트릭스 팀워크를 통해 인력과 자원을 공급하는 것

▶ 교파와 교단의 벽을 넘어서서 상호간에 목회적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것

4. Acts29 비전 빌리지

▶ 선교사 훈련을 중요시하는 선교사 사관학교로서의 역할

▶ 안식년 선교사들의 휴식과 재충전의 자리로서의 역할

▶ 평신도들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헌신과 침묵의 훈련장으로서의 역할

계속 흩어지는 온누리교회

Acts29 비전 선포 이후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는 수원 온누리교회다. 2003년 7월 수원 온누리교회가 세워졌고, 2개월 후에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시작되었다. 살아있는 예배, 아웃리치, 행복한 가정이란 세 가지 가치를 표방하며 시작한 대전 온누리교회는 온누리교인이 한 명도 없는 지역이라는 어려움을 안고 시작됐다. 9월 7일 창립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본당에만 의자가 놓여 있었고 예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향 장비만 세팅돼 있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모하고 부족한 상태였다. 그러나 11개월이 지났을 때 성도 수 1천여 명을 기록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후에도 Acts29 비전의 근간이 되는 국내 교회 개척은 계속됐다. 2004년 수도권 동북부 중심지에 위치한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지역 복음화를 사명으로 내걸고 문을 열었고,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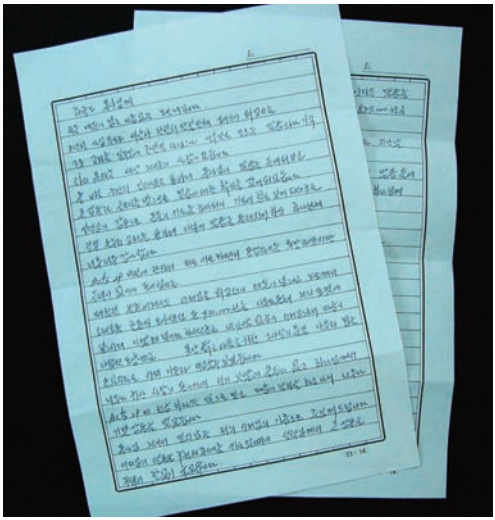
년에는 평택 온누리교회, 2006년에는 인천 온누리교회, 2008년에는 건대 온누리교회가 창립해 교회가 교회를 낳고 세상에는 평화를 심는 사명을 감당해오고 있다. 건대 온누리교회는 2010년 10월 3일 캠퍼스를 강동구 천호동으로 이전해 '강동 온누리교회'로 이름을 바꿨다. 또한 2010년 3월 14일 역동적 차세대 양육을 위한 '온누리 숙명여고 교육관'(도곡 교육관)이 오픈하면서 영적 리더를 양육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곳곳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 올리고 있는 기도처가 문을 열었다. 2004년 충남 서산의 서산기도처, 충남 태안읍의 태안기도처, 경북 봉화군 만리산 정상 해발 720m에 위치한 봉화 기도처, 충북 옥천의 인포교회 등이 기도처로써 Acts29 비전을 함께 써내려가고 있다.

해외 비전교회 설립

하용조 목사는 Acts29 비전을 선포한 후에 국내외의 비전교회들을 설립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하용조 목사는 2001년에 간암 수술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장기 치료를 받았는데, 그는 질병 치료 중에도 교회를 개척했다. 그 결과 2001년에만 동경과 우에다 두 곳에 온누리 그리스도교회가 창립되었다.

그리고 계속하여 하 목사는 중국 대련(1996년)과 단동(1999년)에 교회를 개척하는 열정을 이어갔다. 하용조 목사는 Acts29 비전 선포와



◁ 틀니를 할 돈을 Acts29에 헌금한 이른바 '틀니 할아버지'(방석환 성도) 등 온누리 성도들은 Acts29 헌금으로 국내외에 교회를 세우고 비전을 공유하는데 주력했다.

▽ 목회사관학교와 순장사관학교는 국내외 비전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한 리더십을 양성했다. 교역자, 장로 등 온누리 리더십은 기간을 정해 국내 비전교회를 순회하며 섬기는 '매트릭스'에 참여했다.



함께 30개의 비전교회 설립 추진을 발표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해외 비전교회의 수는 해마다 증가했고, 2015년 현재 해외 비전교회는 30개가 되었다.

비전교회 창립 일지

국내

• 양재 온누리교회	1999년 7월 25일
• 부천 온누리교회	2002년 12월 15일
• 수원 온누리교회	2003년 7월 6일
• 대전 온누리교회	2003년 9월 7일
• 남양주 온누리교회	2004년 11월 7일
• 평택 온누리교회	2005년 12월 25일
• 인천 온누리교회	2006년 4월 30일
• 강동(건대) 온누리교회	2008년 2월 24일
• 양지 온누리교회	2012년 6월 15일

일본

• 야치요 온누리교회	1994년 6월 12일
• 오사카 온누리교회	2000년 4월 23일
• 동경 온누리교회	2001년 4월 7일
• 우에다 온누리교회	2001년 10월 27일
•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2003년 6월 10일
• 나고야 온누리교회	2008년 5월 15일
• 교토 온누리교회	2012년 5월 6일

미주

•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2003년 1월 18일

- 보스톤 온누리교회 2003년 5월 11일
- 얼바인 온누리교회 2002년 10월 13일
- 밴쿠버 온누리교회 2003년 12월 21일
-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2004년 5월 30일
- 노스시카고 온누리교회 2004년 6월 27일
- 괌 온누리교회 2004년 11월 27일
-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2005년 7월 3일
- 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 2005년 7월 31일
- 뉴욕 IN2 온누리교회 2005년 11월 6일
- 네이퍼빌시카고 온누리교회 2008년 11월 23일
-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2012년 4월 29일
- 뉴저지 온누리교회 2012년 5월 6일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온누리교회 2003년 6월 8일
- 시드니 온누리교회 2005년 5월 7일

중국

- 대련 온누리교회 1996년 10월 22일
- 단동 온누리교회 1999년 4월 4일
- 상해 온누리교회 2004년 8월 29일
- 북경 온누리교회 2005년 10월 16일
- 장춘 온누리교회 2006년 5월 4일
- 청도 온누리교회 2008년 3월 3일

중동 동남아시아

-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2011년 6월 3일
- 베트남 온누리교회 2011년 8월 21일

2

복음중심의 교회

1.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일대일 제자양육

"7년 된 교인은 떠나라."

온누리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받는 데 7년이 걸리는 것으로 봤을 때, 훈련을 받은 성도는 교회에 남아 있지 말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온누리 모든 성도들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는 말이다.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를 낳는 것보다 잘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목사는 코치, 성도는 선수.' 이 말들은 온누리교회의 양육 체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양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후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위해 탄생한 것이 큐티(말씀 묵상)와 일대일 제자양육이다. 12가정 모임 때부터 현재까지 온누리교회를 이끌어 오고 있는 이 두 양육 체계는, '떠

남'이라는 온누리교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1986년 9월 28일부터 시작한 주일 성경공부에 큐티와 일대일이 포함된 이래, 이것은 새신자 양육을 위한 필수 과정이 되었다.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 변화되는 통로가 큐티라면, 일대일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 서로 변화되는 통로 역할을 했다. 하용조 목사는 교회 초기부터 일대일을 강조했는데, 이는 일대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낳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즉, 양육자가 성경과 정보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은혜와 감동, 영적 유산을 나누는 부모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 일대일은 온누리교회를 영적으로 하나로 묶는 큰 힘이 되었다. 1986년에는 일대일 지도자반이 시작되었고, 2009년까지 3만 명이 동반자 과정을, 1만 명이 양육자 과정을 마쳤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온누리교회의 목회철학과 영성, 양육체계와 타교회의 부흥을 지원하는 역할도 감당했다. 일대일 사역팀은 타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5회 이상 양육경험이 있는 양육자를 선별해 2005년 4월 '일대일 벤처팀'을 구성했다. 벤처팀은 국내외 28개 교회 438명을 파송해 일대일 양육을 도왔다. 일대일은 해외 선교사들의 유용한 선교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몽골, 페루 등지에서 현지어 일대일 교재가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다. 큐티와 일대일은 평신도가 주인공이다. 온누리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해 전국, 세계 각처로 흩어져 헌신하고 있다.

“일대일은 온누리에 주신 선물”

하용조 목사

일대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성장 비결, 그리고 양육 체계를 말할 때 일대일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일대일은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온누리교회의 상징적 특징은 일대일과 큐티입니다. 목회적으로 적용한 예가 없기 때문에 일대일을 시작하고 처음 6년 동안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대일 사역과 성령 사역이 맞부딪치면서 일대일은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 발판이 되었습니다.

일대일을 통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약 6개월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경험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발견과 사역, 선교, 비전 등이 형성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귀한 일대일의 축복은 한 사람의 중요한 지도자가 탄

생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일대일을 배울 때는 잘 모르지만 양육자가 되어 가르치기 시작하면 한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한 영혼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새벽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역이나 순이나 소그룹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경험입니다.

일대일은 온누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졌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비전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일대일의 축복은 배우는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축복입니다. 내가 가르치면서 나 자신이 성숙해지고 나 자신이 깊어지고 나 자신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평생 일대일의 헌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대일을 나누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됐다 하십니까? 자신이 없다 하십니까? 그럴수록 일대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한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안에서 일대일을 더 극대화시키고 싶고, 그것을 우리의 양육 방법론으로 삼고 싶고, 일대일 사역을 세계 모든 교회에 나누어 주는 무기로 삼고 싶습니다.


양육자님
Thank you



2. 순, 다락방,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공동체는 '순'이다. '순'이란 문자적으로 줄기가 될 작은 싹을 뜻하는 것으로, 성경공부와 교제 등을 같이 하는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CCC(한국대학생선교회)에서 운용하는 것을 하용조 목사가 교회에 적용한 것이다. 온누리교회는 1985년 10월 5일 창립되기 전부터 '순'을 가장 작은 단위로 삼아 교회를 준비했고, 그 순이 지금까지 온누리교회의 핵심 개념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순을 포함하는 상위 단위는 어떻게 변천되어 왔을까. 온누리교회 창립 당시에는 다른 장로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역'조직으로 성도들을 배치했다. 하지만 1985년 이후, 교회는 교구 개념을 도입, '순〈구역〈교구'의 형태로 구성했다. 여러 순을 묶어 운용해 오던 '구역'은 1992년에 '다락방'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새롭

게 '순〈다락방〈교구'의 모습을 갖췄다.

1996년 12월 29일 기준으로 온누리교회는 성도 1만 명 시대를 맞았다. 1994년 성령사역을 선포한 이후, 온누리교회는 평신도 사역의 비중을 더욱 강화하며 오직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좇아가는 '아래로부터의 목회'를 견지해 오던 중이었다. 1997년에는 '아래로부터의 목회' 측면에서 '공동체' 개념을 도입하는데, 이 '공동체' 개념은 '지역 교회'를 의미했다. 이후 목회는 지역 교회에 해당하는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교회 본부에만 있던 위원회의 상당수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고 '작은 당회'라 할 만큼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각 공동체를 맡은 담당 교역자, 담당 장로를 중심으로 모든 행사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리더십들의 책임이 훨씬 커졌다. 담당 장로는 공동체에 속한 다락방을 담당 목사와 함께 돌보며 운영하는 한편, 공동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각 공동체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했다. 공동체의 사역들을 격려하고 점검하며, 공동체 내의 경조사를 담당하는 것도 담당 장로 몫이었다. 권사는 각 공동체 안에서 권사회를 구성하고 목회자의 심방을 돕는 역할을 했다. 또 경조사에 참여하고 공동체 내의 여성 리더십(권찰 혹은 집사)과 함께 기도에 힘써야 했다. 이 모든 것이 평신도가 중심이 된 '아래로부터의 목회' 개념 차원에서 적극 추진된 것이며, 이때 갖춰진 '순〈다락방〈공동체'의 형태와 내용

은 지금까지 그 골격을 유지해 오고 있다.

온누리교회가 부흥기를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맞춤 목회가 시작됐다. 탈북민을 위한 한터공동체, 33~44세 청년을 위한 브릿지33+공동체, 코리안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를 위한 1.5세공동체 등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한 공동체가 생겨났다.

또한 공동체가 '선교'의 주체로 성장했다. 1999년 도입된 공동체 책임 선교사 제도가 2010년 업그레이드되었다. 주 내용은 ▷선교사 케어 강화 ▷공동체 선교 영성 확대 ▷공동체 내 다양한 선교 동원 등이다. 2015년 9월 기준으로 297개 다락방에서 343유닛의 선교사와 결연을 맺었다.

한편, 2007년 3월 18일에는 실업인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온

온누리교회 공동체와 순 현황 (2015. 9. 현재)

캠퍼스	공동체	순
서빙고	40	1008
양재	20	752
부천	5	125
수원	4	117
대전	3	88
남양주	3	51
평택	1	14
인천	3	57
강동	2	45
양지	1	24
합계	82	2,281

누리 CEO 커뮤니티(Onnuri CEO Community)'가 출범했다. OCC는 주중 순예배와 매월 전체모임을 중심으로 양육과 친교, 그리고 기업을 통한 사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3. 말씀과 성령과 함께 춤추는 온누리

1990년 하용조 목사는 건강이 좋지 않아 하와이 YWAM 베이스로 안식년을 떠났다. 그곳에서 성령님을 새롭게 만난 하용조 목사는 1991년 11월 교회로 돌아와 1992년 5월 22~23일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주제의 순장목양대회를 시작으로 오순절 성령집회, 영적 전쟁을 위한 성령집회를 이어갔다.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 성령으로 만들어진 교회,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춤추는 교회입니다. 온누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 우리 온누리 성도는 모두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순교해야 합니다… 말씀이 춤추는 교회, 사랑과 구제, 봉사와 헌신으로 춤추는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성도님들 모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1994년 6월 20일부터 3일 동안 온누리교회 최초로 '새벽성령집회'가

열렸다. 온누리 성도들은 새벽을 깨우며 성령충만을 사모했다. 이 집회는 '2천/1만 비전'의 구체화와 전 분야에 걸친 수많은 기도회의 진원지가 되었다.

40일 특새로 '성령'의 은혜에 잠기다

온누리를 휘감은 성령의 역사는 온누리 특별새벽부흥집회를 통해 계속 불씨를 이어갔다. 2003년 9월 하용조 목사는 온누리교회의 정체성을 '꿈꾸는 교회 춤추는 교회'라 선포하고 '춤추는 교회'란 성령님이 춤추시는 사도행전적 교회임을 밝혔다.

새벽기도회는 2007년 새해를 맞아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를 주제로 40일 동안 드리는 특별새벽부흥집회로 발전됐다. 특별새벽부흥집회는 예배에서 특순과 대표기도를 생략하고 성령에 집중하며, 요일별 주제를 정해 말씀이 선포되는 등의 다양한 시도에 걸쳐 완전한 부흥집회의 모습을 갖춰갔다. 감사, 행복, 은혜, 응답, 축복, 감동 그리고 기적이 응집돼 2007년 1월 20일, 온누리 역사에 남는 새벽부흥집회가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금요일 밤에 출발해 5~6시간을 달려온 성도, 새벽 2시부터 체조경기장에 나와 집회를 기다린 성도 등 집회장은 시작 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길이 예비되고 있었다. 하용조 목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기름 부으심

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선포했다.

2008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온누리 성도들의 기도행전은 끊이질 않았다. 2월 16일 온누리교회는 '서울 러브소나타'라는 이름으로 잠실 실내체육관에 모여 특별새벽부흥집회를 드렸다. 온누리 성도들은 '세상에 평화를 심는 교회'로서의 결단의식을 했다.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며 크게 나팔을 불고, 세상에 평화의 빛을 밝히는 의미에서 야광봉을 꺾어 빛을 발했다. 또한 세상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의식으로 깃발을 높이 흔들며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이 온 땅을 덮는 비전을 선포했다.

2009년은 '화해와 일치'를 새 비전으로 선포하고 2주일 동안의 특별새벽부흥집회가 진행됐다. 2010년 새해를 '말씀과 성령'으로 문을 연 온누리교회는 40일 특새에 힘입어 열흘 더 연장한 '50일 신년특별성령집회'를 드렸다. 하용조 목사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셨다. 120명이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공동체에 어두움의 세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과 성령이 임한 사건이다. 온누리 40일 축제는 끝났지만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한다. 열흘 동안 기도에 집중해서 우리의 입술을 기도와 찬양으로 채우면 오순절이 온누리교회에 새롭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특새를 통해 온누리 성도들은 각자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고 병 고침



을 받는 등 구체적인 성령 체험을 했다고 고백했다. 간증자의 39%가 '나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대답했고, '상황과 환경이 변했다'(25%), '병을 고쳤다'(18%) 등이 뒤를 이었다.

40일 특별새벽부흥집회는 매년 온누리교회와 한국교회에 유례없는 부흥의 파도를 일으켰다. 연인원 30만 명이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국내외에서 2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CGNTV를 통해 동일한 은혜를 누렸다. 그 부흥은 온누리교회뿐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타교인, 해외 비전교회, 선교지에까지 전 세계에서 파도를 일으켰다. 투석 중에서 집회를 연일 인도한 하용조 목사는 "설교가 나를 살렸다"며 믿음의 결단으로 특새를 이끌었고, 사도행전 바로 그 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파노라마가 연일 펼쳐졌다.

"특새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김현정 성도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화리에서 인터넷으로 새벽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올림픽 체조경기장 새벽집회에 꼭 가야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일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혼자 갈 수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딸 둘을 데리고 10일 오후 10시30분에 출발

해 6~7시간 밤새 운전해 20일 새벽집회에 도착했습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 참 좋았습니다. 이 집회를 계기로 우리 아이도 변하고 저도 변했으면 합니다.

백동기 성도

사실 대전에서 버스를 타고 오며 '이건 제정신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지만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움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열심이 새벽을 깨우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추상미 성도

2007년 11월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뤘는데 신혼인 만큼 이번 특새는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결혼 전에는 일이나 진로에 대해 주로 기도했었는데, 결혼 후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일궈야 하기 때문에 제 기도제목과 필요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다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은 감사기도를 하며 행복을 느낍니다.

하용조 목사 칼럼

“성령 사역 가능케 하는 것은 기도”

온누리교회 사역의 열쇠는 성령님께 달려 있고 성령님의 사역의 열쇠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사람과 방법과 열정이 있다고 해도 기도가 없다면 결국은 아무 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엎드려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는 온누리교회에 놀라운 환상을 주셨는데 그것은 전문 사역자 1만 명과 해외 선교사 2천 명을 파송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명령입니다. ‘과연 이것은 가능한 일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해보게 됩니다. 그것도 선교단체가 아닌 한 지역 교회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요 말씀이라면 그 명령은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뤄질 수 있습니까? 그 대답도 간단합니다. 순

종과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 사탄에게 시험받으신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금식기도를 하심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그의 공생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심으로 자신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시고 엄청난 기적과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사람들을 위해서 홀로 기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때로는 밤이 맞도록 또 때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내면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도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기도로 그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온누리교회의 사역도 똑같습니다. 1만 명의 전문 사역자와 2천 명의 해외 선교사를 세상에 보내는 일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완성될 것입니다.

온누리신문 7호(1994.7.3.)

4. 온누리와 윌로우크릭의 만남

1996년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이 미국의 윌로우크릭교회를 방문했다. 이것이 온누리교회가 21세기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창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한국 교회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색다른 예배와 윌로우크릭의 전도, 소그룹, 네트워크 사역, 0~18세 사역 등은 온누리교회가 향후 지향해야 할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기회가 됐다.

윌로우크릭의 3,600여 평 성전과 2만여 명 성도가 드리는 예배,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호수와 넓게 펼쳐진 초록 잔디, 엄청난 규모의 주차장, 체육관, 깔끔하고 아름다운 교회학교와 식당, 눈부신 내부 장식 등은 교회에 대한 기존 통념을 깨는 것이었다. 그러나 방문자들은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향한 그들의 뜨거운 사랑'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윌로우크릭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믿게 되고



성장하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 교회의 존재 목적을 두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었다.

윌로우크릭 방문 후 온누리교회는 '구도자 예배'를 발전적으로 차용했다. 1996년 성탄절을 맞아 사흘동안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구도자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이 예배는 스트링챔버, 영상메시지, 1인극, 드라마 등 다채로운 문화 순서를 도입함으로써 고정관념을 가지고 참석한 구도자와 성도들을 흥분과 감격에 빠지게 했다.

이듬해인 1997년 1월부터는 매주 토요일에 구도자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 예배를 통해 점차 구도자들의 회심이 늘어나고 성령 체험의 증거들이 알려지자, 열린예배는 교계의 따가운 눈초리를 넘어 각 교회의 예배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사역도 윌로우크릭의 특징이었는데, 온누리교회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목회를 펼치게 됐다. 또한 5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움직이는 윌로우크릭 네트워크 사역의 장점을 들여와, 한층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창립 11주년을 맞은 온누리교회가 이후 10년의 부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여 주신 성령님의 비전이었다는 게 당시 리더십들의 공통된 해석이다.

5. 온누리를 풍성하게! 축제의 시작!

1997년부터 온누리교회는 '축제'에 푹 빠져들었다. 세상의 축제가 아니라 창립 10주년을 넘긴 온누리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들을 '온 누리'에 나눈다는 비전으로 시작한 축제였다.

그 첫 테이프는 1997년 7월 7-9일 열린 '가정사역축제'가 끊었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결혼예비학교, 상담훈련학교, 모세대학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었다.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집회를 섬겼고 연일 2,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열기가 뜨거웠다. 전국 곳곳에서 교역자와 사모들이 교파를 초월해 동참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온누리사역축제(OMC)'가 처음으로 열렸다. 온누리사역축제(OMC)의 취지는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다른 교회와 공유하는 것이었다. 하용조 목사는 "온누리교회의 모든 사역과 목회 철학을 종합 정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함께

이 땅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나누기 위해 갖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축제를 통해 온누리교회는 '바로 그 교회'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성도들은 한층 커진 비전을 품게 되었다.

이듬해인 1998년 3월 23~28일에는 '온누리성령축제(OHSC)'가 열렸다. 성령축제는 일본에서 참석한 95명의 교회 지도자를 비롯해 모두 1,800여 교회 지도자가 참석해 이 땅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회복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 줄 것을 무릎 꿇어 간구했다.

같은 해 8월 10~15일 온누리교회는 빌 하이벨스 목사(윌로우크릭교회),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등을 초청한 가운데 '비전과리더십축제'를 열었다. 사역축제(OMC)가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통해 이룩한 사역의 구체적인 모습을, 성령축제(OHSC)가 그 사역의 원동력인 영적 힘을 찾는 것이었다면, 비전과 리더십 축제(VLC)는 '무엇을'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축제였다. 특히 2만여 명의 한국 교회 리더십들이 참석한 잠실실내체육관 집회에서 빌 하이벨스 목사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경적 비전과 리더십의 모델을 제시했다.

OMC와 OHSC에 이어 1997년에 VLC가 펼쳐짐으로써 온누리교회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성령, 사역, 리더십'이라는 세 영역에 걸친 축제의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진행된 축제들도 많다. 여성들을 위한 여성사역축제(OWMC), 연령별로 맞춤


ALL NATIONS
VLC 참석회원
VLC 참석회원



기획했던 전도축제, 다채로운 접근을 통해 부흥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부흥축제, 위기에 직면한 이 시대 리더십들을 위한 리더십축제 등이 그것이다.

온누리교회가 '온 누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축제의 중심축에는 기도와 성령,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 성령의 불을 간구한 2006 성령축제 'The Fire', 영적 블루오션으로 부흥을 꿈꾼 2006 리더십축제 '끝없는 도전', 열방의 빛이 되길 소망한 2007 리더십축제 '위대한 열정, 위대한 국가', 거룩한 리더를 세운 2008 리더십축제 'Breakthrough'까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거룩한 리더십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길 소망하는 축제가 풍성하게 열렸다.

2009년부터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하용조 목사의 비전 선포에 발맞춰 말씀을 먹고 마시는 축제가 펼쳐졌다. 성령축제 '큐티에서 설교까지', 리더십축제 '영혼의 힘' 등에서는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결임을 깨닫게 했다. 또한 2010년에 열린 OMC에서는 '창조와 성령'을 주제로 창조의 역사를 통해 성령을 만나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온누리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축제 '더 멋진 세상'을 열고 그동안 받은 은혜를 온 누리와 나눴다.

| 온누리 축제 일지 |

1997년 가정사역축제
온누리사역축제(OMC)
1998년 온누리성령축제(HSC)
비전과리더십축제(VLC)
예수공동체축제(JCC)
1999년 성령축제
가정공동체축제
비전과리더십 축제(VLC)
온누리사역축제
2000년 온누리기도축제
온누리성령축제
OMC(창립15주년)
2001년 기도축제
성령축제 '성령을 부어주소서'
온누리큐티축제
2002년 온누리 여성사역축제(OWMC)
'성령 Make-up'
2003년 성령축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일만순장가정축제
온누리전도축제 '체인지업'
온누리성탄축제 '최고의 선물'
2004년 부흥축제 '파워웨이브'
리더십축제 '플러그인'
2005년 온누리예배축제 '어노인팅'
온누리리더십축제 '업그레이드'
2006년 온누리성령축제 'The Fire'
온누리리더십축제 '끝없는 도전'
2007년 온누리성령축제 'The Fire'
온누리리더십축제 '위대한 열정 위대한 국가'
2008년 온누리성령축제 'The Fire'
온누리리더십축제 'Breakthrough'
2009년 온누리성령축제 '큐티에서 설교까지'
온누리리더십축제 '영혼의 힘'
2010년 온누리성령축제 '창조와 성령'
온누리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축제 '더 멋진 세상'
2011년 온누리교회 창립 26주년 기념 부흥집회 '최고의 사랑'
2012년 가을부흥축제 '하나님의 흔적'
2013년 온누리부흥축제 '절대제자'
2014년 부흥축제 '주의 날개로 덮으소서'
2015년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비전집회

6. 시대를 선도하는 온누리 전도집회

1988년 10월 23일-25일, 창립 3주년을 맞아 열린 가을 전도대회를 시작으로 온누리교회는 매년 전도집회를 열었다. 1989년 10월에 3일 동안 열린 창립 4주년 가을전도대회에서는 총 300여 명이 결신했고, 147명이 결신카드를 제출했다.

1990년 10월 8일-10일 열린 창립 5주년 기념 전도집회는 오전 성경공부와 오후 전도대회로 나뉘어 열렸다. 하용조 목사가 안식년이었던 1991년에는 12월로 시간을 옮겨 '성탄특별전도집회'로 진행되었다. 이것이 절기에 맞춰 열린 첫 전도집회였다. 1993년에는 성탄절에만 전도집회가 열렸는데, 이 집회를 위해 전 성도가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기도 했다. 이후로 전도집회는 주로 부활절과 성탄절에 열렸다.

그러던 1997년, 전도집회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1월부터 시작된 '구도자를 위한 열린예배'의 영향으로 전도대상자들에 대한 세심한 연구

가 시작됐다. 전도집회의 대상을 세분화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 해 12월 성탄열린축제에는 축제 보름 전부터 전도 요청자들이 매일 전도 대상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전도위원회는 7장의 예문 편지를 제공해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했고, 교역자들은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중보기도회를 열었다.

1999년 12월 전도집회에서는 전도집회 사상 최초로 첫 날 집회를 발레 공연으로 대신했다. L발레단의 공연 '탄생'의 막이 오르면서 시작된 이 전도집회는 '구레네 시몬', '십자가 상의 두 강도', '의심 많은 도마' 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며 전도 대상자들을 구원의 길로 초대했다. 2001년 4월 23-25일에 열린 부활절 전도집회는 '결신자 189명'이라는 열매를 맺었고, 2001년 집회부터는 결신자들을 위한 교육 과정 '굿뉴스 스쿨'이 시작되었다. 이 스쿨에는 60명이 참석했는데, 그 해 6월 19일에는 31명이 세례를 받았다.

초신자 전도의 새로운 지평을 연 맞춤전도집회

2001년 맞춤전도집회가 막을 올렸다. 40대 남성을 위한 전도집회 '비상구'가 그 첫 무대가 되었다. 맞춤전도집회는 절기별 전도집회와 달리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기도회, 집회 참석 여부 확인, 후속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도왔다. 연령별, 성별에 따른 영적 필요에 초점을 맞춘 맞춤전도집회

는 온누리를 대표하는 전도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계를 놀라게 한 획기적인 전도방식으로 평가받았다.

맞춤전도집회는 치밀하게 기획되었다. 이재훈 목사를 중심으로 광고인들로 구성된 팀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세밀하게 분석한 뒤 그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을 마치 광고 제작 과정처럼 진행했다. 이들은 전도 과정을 '관계 형성, 복음 제시, 사후 양육' 3단계로 나눈 후 대상자를 세분화하고 접촉점을 찾기 위해 그들을 분석했다. 언어도 문화도 눈높이도 모두 대상자에게 맞추었다. 집회 공간은 흰 천을 덮은 원형 테이블로 고급 레스토랑 분위기를 연출하고, 봉사자들은 환한 얼굴과 말끔한 복장, 정중한 태도로 무장했다. 프로그램은 콘서트, 토크쇼 같은 형식을 취했다. 또한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참석자를 1천 명으로 제한했다. 이 모든 수고로움은, 참석자 1천 명 가운데 결신자 246명,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는 응답자도 284명에 달하는 등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2001년 12월 '비상구'부터 2002년 7월 '챔피언'까지 30대, 40대, 50대, 60대 남성을 전도 대상으로 삼았다. 2003년에는 여성을 위한 전도집회가 시작되었다. 44-55세를 위한 '클라이맥스', 55-66세를 위한 '해바라기', 33-44세를 위한 '프러포즈'가 잇달았다. 전도대상자들이 여성인 점을 감안해 동반 자녀들을 위해 탁아방을 운영했고, 김혜자, 송채환 등 각 세대에게 호소력을 갖는 유명인들을 초대했으며, 직접 봉사자로

나선 교역자들이 댄스를 선보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끌어냈다. 이 전도집회들 또한 성공적이었으며 결신자와 긍정적 반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04년 'Just for U'(J4U, 20~30대 대상)는 전도집회 사상 최대 인원인 5,300명이 신청해 2,651명이 참석하고 1,653명이 결신하는 열매를 맺었다. 이를 끝으로 성별, 세대별 전도집회가 막을 내리고 2004년 7월부터는 직업별 전도집회가 시작되었다. 의사를 위한 'Love Touch', 교사를 위한 'Dream Touch', IT인을 위한 'Hi Touch'가 이어졌다. 2005년 12월 5일-7일 금융인들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A+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3일동안 총 1,617명이 참석해 1,215명이 결신해 그동안 맞춤전도집회 사상 최고의 결신율 75%를 기록했다.

2006년 9월에는 간호사들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러브 O2'가 총 1,430



명의 결신자를 열매 맺었다. 2007년 5월에는 60세 이상 부모님들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내 생애 가장 귀한 선물'에서 총 462명의 어르신들이 결신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가족들을 멀리 보내고 홀로 살고 있는 이른바 '기러기 아빠'를 위한 맞춤전도집회 '슈퍼맨이 된 아빠'가 각각 열렸다. 이 집회는 기러기 아빠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춰 50명 내외로 진행되었다.

2009년 8월에는 클래식 음악인을 위한 맞춤전도집회가 열렸다. 이날 전도집회에 초청된 160여 명의 음악인 가운데 90%가 넘는 149명이 결신카드를 작성하고 108명이 후속 프로그램을 희망했다.

캠퍼스, 공동체, 사역팀별 분산 개최

전도사역본부가 주관하던 맞춤전도집회는 대학청년연합에서 진행한 'Just for U'를 계기로 각 캠퍼스, 공동체, 사역팀별로 분산 개최되기 시작했다. 2004년 11월 7일, 공동체로서는 처음으로 안양안산공동체가 '오렌지 향기 날리며'란 슬로건으로 성공적인 전도집회를 일궈냈다. 이후 관악공동체(민들레 홀씨), 송파공동체(푸른 초장으로의 초대), 성동광진공동체(러브 패밀리), 성북공동체(러브레터) 등 거의 매주일 공동체 전도집회가 열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됐다. 또한 고교동창을 대상으로 한 '아름다운 인생'이란 전도집회도 교역자를 중심

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같은 맞춤전도집회는 교회에 대한 기존 이미지를 개선하고, 전도대상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접근 방식으로 호의적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성장 둔화 · 사회 흐름에 뒤처지는 교회 문화로 고민에 빠진 한국 교회에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주었다.

온누리교회 장애우 부서(사랑부, 예수사랑부, 누리사랑부, 장애우선교위원회)는 2006년 6월 10일 장애우를 위한 맞춤전도집회 '원더풀 라이프'(Wonderful Life)를 열었다. 특히 전도대상자가 장애우였기에 더욱 세심하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준비에 전념한 결과 35가정 중 30가정이 결신하는 열매를 맺었다. 2006년 6월, 온누리 전도사역본부와 부천 온누리교회 대청은 대한항공 신우회가 준비하는 전도집회 'Friend'를 기획에서 진행까지 도왔다.

2008년 6월, 온누리 맞춤전도팀과 군선교팀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위한 전도집회 '여름밤 꿈으로의 초대'를 열었다. 육사교회 본당에서 육사 생도와 간부 가족, 병사 등이 참석한 이 집회는 전도대상자와 육사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됐다.

주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전도집회도 열렸다. 2008년 12월 21일 강남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네팔인을 위한 전도집회 '진더기'(JINDAGI)에는 예상보다 200여 명이 넘는 600여 명이 운집해 대 성황을 이뤘다. 이날 네팔인 참가자 가운데 23%가 결신하고, 46%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2010년 2월 22-23일에는 선천성 기형의 시련을 딛고 희망의 메신저로 세계인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 닉 부이치치 초청 전도집회가 있었다. 이 전도집회는 최초로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열려 10,900여 명이라는 참석자 수를 기록했다.

2013년부터는 매년 65세 이상 부모님들을 위한 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이 전도집회는 어떤 전도집회보다 더 많은 사연과 감격을 쏟아내고 있으며, 평균 82%라는 높은 결신율을 기록하고 있다.

맞춤전도집회 현황

일시		이름	대상	결신자(고려포함)
2001년	12월	비상구	40대 남자	530명
2002년	4월	앙코르	60대 남자	391명
	7월	브라보	50대 남자	358명
	12월	챔피언	30대 남자	710명
2003년	3월	클라이맥스	4455 여자	719명
	6월	해바라기	5566 여자	548명
	9월	프러포즈	3344 여자	710명
2004년	3월	J4U	2030 청년	1,800명
	7월	러브터치	의사	623명
	12월	드림터치	교사	786명
2005년	4월	하이터치	IT종사자	1,010명
	12월	A+	금융종사자	1,214명
2006년	3월	Smile Again	대학청년	1,134명
	6월	원더풀라이프	장애우	30가정
		Friend	대한항공 신우회	141명
	9월	러브02	간호사	1,430명
2007년	5월	내 생애 가장 귀한 선물	부모님	462명
2008년	6월	초여름의 콘서트	육군사관학교 생도	-
	12월	슈퍼맨이 된 아빠	기러기 아버지	44명
		진더기	외국인	414명
2009년	8월	The classic	클래식 음악인	149명
	12월	슈퍼맨이 된 아빠2	기러기 아버지	23명
2010년	2월	I love my life - 닉 부이치치	모든 계층(청소년 포함)	249명
	12월	With Him - 션	트위터 전도	519명
2011년	6월	열 달의 기다림	임산부	49명
	10월	3시의 만찬	외식산업	97명
	12월	You are Special	ROTC	-
2012년	1월	기다렸습니다	ROTC	736명
	3월	아름다운 손길	환경미화	-
	9월	KIZUNA	일본인	40명
	12월	Yellow Ribbon	1.5세대	92명
2013년	6월	행복드림 콘서트	65세 이상 부모	318명
	11월	커플 LOOK	신혼부부1년차	355명
2014년	5월	행복드림 콘서트	65세 이상 부모	344명
2015년	5월	행복드림 콘서트	65세 이상 부모	320명

7.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차세대 교육

1985년 교회 창립 때부터 온누리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다. 일대일제자양육, 큐티 등 다양한 성인 양육 과정이 있었지만 훈련 과정이 가장 길었던 것은 교사 교육이었다. 1988년부터 시작된 교사 대학은 14주 과정으로 개설되어 주일학교 교사들을 '어린이들의 목자'로 훈련시켰다.

1988년 처음 문을 연 교사 대학은 매주 토요일에 열려 주일날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미리 익히고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방법을 익혔다. 그러다 1989년 9월에 열린 2기 교사대학부터는 매주 화요일로 바뀌면서 14주 과정으로 개편되었고, 프로그램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의 교육적 사명 ▷성서(구약) ▷성서(신약) ▷신학(신론, 그리스도론) ▷신학(인간론, 성령론, 교회론) ▷교회사 ▷기독교 교육 원리 ▷교사론 ▷예배와 설교 ▷학습 지도 ▷



학생 이해 ▷기독교 윤리 ▷교회학교 음악 지도, 레크리에이션 지도 ▷시청각 교육, 교회학교 행정 등이다. 성서, 신학, 윤리, 교육법 등이 총망라된 이 과정은 온누리 주일학교의 큰 기둥이 되었다.

1991년 6기 교사대학부터는 3주가 늘어난 17주 과정으로 개편되었다. 6기 교사대학은 조직신학 특강과 수련회를 포함해 총 4단원 14과제로 진행되었다. 같은 해 9월에 열린 7기 교사대학도 내용은 거의 같으나 15주 과정으로 정리되었다.

1992년 3월에 열린 8기부터는 학점제를 도입했다. 16주 과정인 8기 교사대학은 공개강의를 제외한 전 과목이 각각 2학점으로, 정해진 학점을 이수해야만 수료할 수 있었다. 교사대학은 1년에 2회씩 1997년까지 계속되어 총 17기가 진행되었다. 강의 내용은 '교회의 교육적 사

명, 기독교 교육사론, 학습의 주체와 공동체 훈련, 효과적인 반 목회, 조직신학' 등이었다.

1998년부터는 교사대학이라는 통합 훈련 과정 대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겼다. 1997년 교회학교 명칭을 '꿈이 자라는 땅'으로 바꾼 온누리주일학교는 1998년 1월 31일 어린이들을 위한 첫 열린예배를 드렸다. 어린이 열린예배는 성인예배와는 다른 역할을 할 사역자들이 필요했는데, 이 사역자들을 위한 훈련 과정이 개설되었다.

1996년 윌로우크릭교회와의 만남은 온누리교회의 교회학교에도 큰 변화를 몰고 왔다. 윌로우크릭은 어린이, 적용, 관계, 창조성, 재미 등 5가지 시선으로 교회학교의 교육과 행사를 각 교회학교별로 특색 있게 운영했다. 이에 온누리교회는 1997년 교회학교 이름을 '꿈이 자라는 땅'(이하 꿈땅)으로 개명하고, 윌로우크릭의 프로그램들을 '꿈땅'에 맞게 접목시켜 나갔다. 1997년 2월 24일, 25일에 '좋은 친구 성령님'이란 주제로 열린 어린이 성령집회는 성인이 아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집회로 주목을 받았다. 중고등부도 '파워웨이브'로 바꾸고 창조적인 사역을 만들어 나갔다. 거룩한 영적 리더를 세운다는 비전을 내걸고 숨 가쁘게 달려온 온누리교회 교회학교는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

2007년 차세대는 또 한 번 옷을 갈아입었다. 연령별 맞춤 양육을 위해 기존 꿈땅(꿈이 자라는 땅)영역에서 영·유아·유치(7세까지) 어린



이들을 위한 예꿈(예수님의 꿈아이)영역을 분리해 새롭게 출범시켰다. 예꿈 영역은 출범 초기부터 부모와 어린이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돕고 말씀으로 무장한 차세대를 길러냈고, 영어, 뮤지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도 배우고 실력도 쌓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또한 차세대를 위한 잡지 〈새벽나라〉, 〈예수님이 좋아요〉 등을 펴내 물샐틈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차세대는 '기뻐 뛰고 춤추는 차세대'를 또 하나의 비전으로 삼고 있다. 영역별로 예꿈 뮤지컬, 파워키즈, 파워스테이션 등의 역동적 사역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차세대를 양육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아울러 온누리 차세대는 더욱 효율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훈련하기 위한 여름사역프로그램 개발, 교사와 부모가 함께 하는 교사강습회

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매주 수요일 진행하고 있는 수요어머니기도회, 새 학기 종일 기도모임, 어머니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와이즈마더링(Wise Mothering)' 등도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매년 겨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청소년이 되겠다는 거룩한 비전 선포의 장 '패션(Passion)집회'도 차세대를 대표하는 주요사역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부모를 통해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INTO 사역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INTO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의 7개 영역(교육, 경제금융, 종교, 미디어, 가정, 정부, 예술)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한다'는 비전으로, 부모교실, 청소년, 대학유학생, 청년직장인 등 4개 훈련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8. Acts29 견인차, 대학청년

Acts29 비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온 온누리 대학청년부의 역사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초창기(1995~2000)

대학청년 예배는 1985년 11월 17일 유소년, 중고등부 예배와 함께 탄생했다. 1986년 9월에는 대학청년부가 분리되어 대학부는 요한공동체로 토요일에, 청년부는 여호수아공동체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대학청년부는 '경배와 찬양'의 보급과 예배의 탁월함으로 한국교회에 신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동시에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대학청년부 내에 여러 공동체가 탄생했다. 2개였던 공동체가 9개로 늘어났다.

성장기(2001~2003)

2000년 1월부터 청년을 위한 집회로 드린 화요성령집회예배가 2001년부터 전국 화요성령집회 투어로 확장되었다. 이때부터 대청은 전국을 돌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한국 교회에 나누는 역할을 감당했다. 또한 아웃리치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 증거의 첨병으로 성장했다. 아울러 장기선교사훈련(OSOM)과 단기선교사훈련(TP) 등을 통해 대청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시작했다. 대청이 예배자에서 선교자로 성장한 시기다.

2003년 5월에는 대청이 자체적 양육 프로그램 '바이블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1년 2학기제로 운영되는 바이블 아카데미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 말씀을 통한 끊임없는 훈련과 양육으로 승리하는 청년 크리스천 리더십을 양성하기 위한 대청의 대표적 양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 매년 1,300여 명의 청년들이 바이블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다.

도약기(2004~2007)

맞춤식 문화전도집회를 주 사역으로 대청은 도약기를 맞았다. 비기독교인들의 전도를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문화전도집회는 2030전도집회 'Just For You'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이후 2004년 4월 전도 받은 사람들이 모여 J4U공동체를 탄생시켰고, 이는 양재 청년부가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청은 이때부터 '세상 속으로'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긍휼사역이 급속도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ODO(One Day Outreach)와 같은 사역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ODO는 대청 전 공동체로 확산되었다. 각 공동체마다 섬기는 지역을 선정해 주일예배 후 진행하고 있다.

Acts29 비전이 선포되면서 예배 장소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다. 대학부 이삭공동체는 2005년 7월 3일 홍대의 m2클럽에서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m2공동체(Miracle Maker)로 거듭났다. 바울공동체도 2003년 4월부터 도심을 변화시키기 위해 허리우드극장에서 예배드렸고, 청년부 갈렙공동체도 리버사이드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대청의 새벽예배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돼 스타벅스, 마리스코 등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됐다.



현재(2008~현재)

2009년, 대청은 금융위기, 불황, 청년 실업의 어려운 시기를 희망과

사랑으로 극복하기 위해 '희망코리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나눔이 희망입니다'를 타이틀로 연탄 나눔, 생수 나눔, 쪽방 사역, 쉘터 사역, 공부방 사역, 만원의 행복, 외국인 고향 방문 프로젝트, 희망나눔헌금 프로젝트, 희망수련회 등의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대학청년부 현황〉 (2015.9.11.)

구분	지역	공동체	예배 인원(평균)
대학부	서빙고	하늘	6개 공동체 1,417명
		Pole2	
	양재	허브	
	수원	Seed	
	대전	빌립	
	강동	프라미스U	
청년부	서빙고	요셉	11개 공동체 4,840명
		W	
		길	
		SNS	
		CH630	
	양재	여호수아	
		갈렙	
		J4U	
	수원	HIS	
	대전	O2	
	강동	프라미스	
대학청년부 (대학청년부가 분리되지 않음)	남양주	J1	4개 공동체 386명
	평택	Makers	
	부천	Dream	
	인천	Web	
합계			21개 공동체 6,643명

9. 새로운 공동체를 낳는 대청공동체

대학 청년부는 공동체를 도심 지역 및 교회에 파송, 협력교회를 섬김으로써 Acts29의 견인차 역할을 감당했다.

2004년 2월 15일, 서빙고 대학부 200여 명이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교회로 파송되면서 Acts29의 핵심 사역인 '지역교회와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다니엘공동체'라 이름붙인 이들은, 상업주의, 명품주의 등으로 물들어 있는 지역 사회를 예수주의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강남권 문화 속에서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시작된 지역교회로의 파송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4월에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은혜교회로 최원준 목사를 파송했고, 5월에는 청년 여호수아공동체 동아시아 선교부와 의료선교부 120여 명을 파송했다. 그들은 '다윗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했다. 9월에는 청량리중앙교회와 목회자를 맞교환하는 프로

그램을 진행했다. 2005년 1월에는 동대문 이문동교회로 6개월 동안 '부흥특공대'를 파송했다. 이들은 이문동교회 청년, 교역자에게 예배와 양육 체계를 나눴다. 이러한 방법은 한시적으로 파송된 전문팀이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구축해 온누리교회와 자발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각 공동체를 지역교회로 파송한 이후 공백이 된 자리에는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났다. 서빙고 대학부가 청담교회로 파송된 후 이삭공동체가 새롭게 출발했다. 이삭공동체는 포스트모던 사회에 강력하게 도전하는 문화공동체를 지향했다. 그 비전에 따라, 300명이 넘는 공동체로 성장한 후 홍익대 앞에 위치한 m2 나이트클럽으로 예배 장소를 옮겼고, M2공동체가 새롭게 태어났다. M2공동체는 클럽과 술, 마약으로 절은 홍대 땅을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비전으로 예배 전과 예배 후 예배당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클린 무브먼트(Clean Movement), 홍대와 신촌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노방전도 사역 등을 매주 실천해 나갔다. 이삭공동체가 자리를 옮기자 곧바로 서빙고 대학부가 시작되었고, 양재 대학부의 요한공동체가 예배 시간을 토요일로 옮기자 주일 대학부가 신설됐다. 예배 시간과 장소 이동으로 생긴 새로운 공동체는 1999년부터 있어온 것이었다. 서빙고와 양재, 두 곳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대학부와 청년부는 2002년 10월 '대학청년연합(대청연합)'공동체를 출범시켰다. 대청연합 출범 이후 점차

사역별, 세대별 · 지역별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다.

극장, 도심 등 '온 누리가 예배당'

Acts29 비전을 선포한 지 보름이 지난 2003년 4월 20일, 바울공동체는 종로구에 위치한 허리우드극장에서 예배를 드렸다. 극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다소 파격적인 시도는 당시 타교회와 교계, 그리고 사회적인 주목을 끌었다.바울공동체는 Acts29가 선포되기 1년 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 시내 전역을 다니며 도시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해 오고 있었다. 2002년 12월부터는 종로 버거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점차 근거지에 대



한 비전을 품게 되었고, 허리우드극장을 바라보며 극장에서의 예배를 꿈꾸게된다. 그러나 극장 주인이 불교신자라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의외로 쉽사리 허락을 받았다. 일이 너무나 쉽게 진행되었고, 깜짝 놀랄 만큼 기쁜 기도 응답이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극장 예배는 계속되었고, 그들은 극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매주 인사동, 수유역, 종묘공원, 낙산 등으로 ODO(One Day Outreach)를 떠났다. 도심 기도회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2005년 1월 17일부터는 광화문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Change the city'를 주제로 대학부 연합 도심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다. 바울공동체는 매주 금요일 저녁 광화문 공원에서 도심과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다. 그들은 2년째 극



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울 곳곳으로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갔다.

한편 대청연합은 2005년 6월 6일 현충일에, 교회에서 새벽기도회를 가진 뒤 청와대, 국회의사당, 시청, 정부종합청사 등 공공기관으로 흩어져 현장기도회를 진행했다. 850여 청년들은 각기관이 바로 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나라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다. 앞서 언급한 이삭대학부가 2005년 7월 3일부터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사건'이었다. 그들은 신촌지역 복음화와 도시 회복 그리고 도시에서의 기독문화 사수를 외치며, 홍대 앞 'm2 나이트클럽'으로 갔다. 공동체 이름도 나이트클럽 이름 그대로 'M2'로 정했다. 그 이름에 '미러클 메이커(Miracle Maker)'라는 뜻을 담았다. 신촌 지역의 캠퍼스들을 통해 신 족속운동(New Society)과 신 학문운동(New Academy)을 실현하고 비기독교인들과 거리감없이 만나기 위해 나이트클럽이라는 장소를 택했다. 300여 청년들은, 술과 음악에 취해 춤추던 클럽에서 성령과 찬양에 취해 춤추는 예배를 드렸다. 이후 2006년 8월 6일 청년부 갈렙공동체도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슈퍼나이트 클럽으로 예배 처소를 옮겨 예배를 드렸다.

낳고 낳는 공동체 열매 … 아름다운 연합까지

2005년 3월에는 대학부 이삭 · 바울 · 요한 · 샘공동체와 청년부 요셉 · 갈렙 · 여호수아 · 느헤미야 · J4U · 젊은부부공동체 등 10개 공동

체의 모양을 이뤘다(협력교회: 다윗, 다니엘, 사무엘공동체). 대청연합 공동체 출범 이후 계속적으로 공동체를 낳고 낳는 열매가 풍성해졌다. 2006년 4월 23일에는 양재에서 예배드리던 요한공동체과 샘공동체가 연합을 이뤄 '허브(HuB)공동체'를 탄생시켰다. 2005년 12월에는 여호수아공동체가 '더 프라미스 기도회'를 시작했고, 이는 2006년 4월부터 전교인 대상 기도회로 확대돼 이후 건대 온누리교회 창립시 여호수아 공동체 청년들의 협력으로 청년부 프라미스 공동체 탄생의 기틀을 마련했다.

2006년 6월 25일에는 증권사와 금융사가 밀집돼 있는 여의도에서 'W공동체'가 출범했다. 2007년 9월 9일에는 청년부 '길(GIL)공동체'가 출범했다. 바울공동체는 부흥함에 따라 청년부를 분리하기로 결정, 2008년 6월 29일 종로 둘로스 극장에서 대학 졸업생부터 35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샤인공동체'를 출범시켰다. 이후 샤인공동체는 2009년 3월 8일 여호수아공동체와 사랑의 연합을 하게 된다. 2009년 3월 1일 대학부 M2공동체와 바울공동체가 '폴투(Pole2)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연합했다.

2010년 8월 대청연합은 청년부 요셉 · 갈렙 · W · GIL · 여호수아 · J4U공동체와 대학부 Pole2 · 하늘 · 허브공동체의 9개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으며, 12곳에서 새벽기도인 홀리스타가 진행했다.

세상엔 희망을 대학청년에겐 도전을

2008년 8월 그루지야와 러시아의 전쟁, 9월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세계는 최악의 불황으로 빠져들었다. 한국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이에 대청은 12월 금융위기, 불황, 청년실업의 어려운 시기를 희망과 사랑으로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희망 코리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신림10동 밤골마을 연탄 나눔 사역을 시작으로 태안 모항교회, 2007년 6월 10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지진이 일어난 쓰촨성 지역 복구 사역, 태백 생수 나눔 사역,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돕는 희망 저금통 사역 등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서빙고, 양재 대청 전체 공동체, 온누리 성인공동체, 차세대에서 총 3,500여 명이 참여했다. 2010년에도 희망교복 나눔 운동 사역, 한부모가정 희망수련회 사역 등으로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대청은 2010년 3월부터 'The One'을 주제로 한 캠퍼스 부흥집회를 개최했다. 캠퍼스의 영적 부흥과 캠퍼스 선교단체 및 교회 청년 크리스천들의 연합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The One집회는 전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카이스트, 태안 온누리기도처, 포천차의과대학, 강릉 학산교회 등 전국 곳곳에 부흥의 신호탄을 쏘았다.

10. JDS,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새 역사를 쓰다

온누리교회는 2000년도를 앞두고 급속한 부흥이라는 축복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기에 대비해야 했다. 성도 수가 갑자기 증가하면 교회에 주신 비전에 따라 헌신한 리더가 상대적으로 격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온누리교회는 양육, 내적치유 등 그동안 교회 내에 축적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집대성해 평신도 지도자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1999년에 탄생한 것이 예수제자학교(JDS/ Jesus Disciples School)다. JDS는 선교단체의 훈련프로그램인 DTS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온누리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집약해 교회 내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재창조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JDS는 개개인이 가정, 직장, 교회라는 삶의 영역에서 '영적 제사장,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변혁자, 거룩한 리더'로 재헌신하

도록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십자가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삶을 견고하게 하는데 주력했다.

1999년 2월 25일 시작된 제1기 예수제자학교에는 136명이 지원했으며, 10월 21일까지 실시된 강도 높은 제자훈련을 통과해 121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2기는 2000년 2월 2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열렸다. 당시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에 붙잡혀(묵상하는 법, 중보기도하는 삶) ▷십자가 위에서(쓴뿌리 치우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세상속에서 능력있는 삶(그리스도인의 생활) 등이다. 2010년부터는 직장인과 학생 등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한 JDS 저녁반이 신설됐다. 저녁반은 여성 위주의 주간반과 달리 남성도 참여할 수 있는 반으로 훈련이 진행됐다.

2004년에 이르러 양재, 수원캠퍼스에 새로운 반을 개설하며 그 지경을 넓혔다. 2005년에는 온누리교회의 핵심적인 양육 프로그램으로 뿌리를 내리며 비약적인 보폭을 내디뎠다. 하용조 목사는 2004년에 "예수제자학교는 모든 프로그램이 총화를 이룬 검증된 제자훈련과정"이라며 "2005년부터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 교회 리더십들의 필수 코스로 뿌리내리길 소망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06년부터는 '한가족모임'을 하고 있다. 매년 1회 아웃리치 보고회



를 겸한 이 모임은 각 캠퍼스별로 팀들이 받은 은혜와 간증을 나누며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재결단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온누리 영성 갖춘 리더십 양성

2015년 현재 총 26주 과정인 JDS는 입학보다 졸업이 힘든 과정으로 정평이 나있다. 과제, 매일 큐티, 성경암송, 강의 내용 리포트 제출, 나눔 등의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매년 여름에는 국내와 일본 · 중국 · 인도 · 이스라엘 등 20여 개국으로 아웃리치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

JDS 출신의 간사들의 탁월한 섬김과 6회 이상 결석 시 졸업할 수 없다는 엄격한 규정은 JDS를 더욱 튼실하게 하고 있다. JDS의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등 다섯 가지 관계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다 JDS만의 프로그램은 참석자들을 복음에 굳건히 선 제자로 길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애찬식이 있다. 초대교회와 같이 깊은 형제애로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하는데, 자신에게 필요한 물질이나 아웃리치에 필요한 물품이 애찬식을 통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서로 짝을 이뤄 중보기도를 하는 QQ(Quaker Question)도 있다. 짝들은 서로 유아기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삶을 공개하여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고 용납해 영적 건강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친 JDS 졸업생들이 2015년 현재 95개 학교 6,251명이다. 그리고 매년 11개 학교에서 500여 명이 졸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회복사역, 문화사역, 긍휼사역, 일대일, 여성사역, 호스피스, 팀 리더 등 온누리교회 곳곳에서 솔선하여 사역을 섬기고 있다.

〈예수제자학교 약사〉

서빙고

1999년 1기 주간반이 개설된 이후 2015년 18기까지 진행
2001년 1기 저녁반이 개설된 이후 2015년 16기까지 진행

양재

2004년 1기 주간반이 개설된 이후 2015년 13기까지 진행
2004년 1기 저녁반이 개설된 이후 2015년 11기까지 진행

수원

2004년 1기 주간반이 개설된 이후 2015년 8기까지 진행
2004년 1기 저녁반이 개설된 이후 2015년 11기까지 진행

부천

2012년 1기 주간반이 개설된 이후 2015년 2기까지 진행
2005년 1기 저녁반이 개설된 이후 2015년 11기까지 진행

남양주

2005년 1기 주간반이 개설된 이후 2015년 3기까지 진행
2005년 1기 저녁반이 개설된 이후 2015년 3기까지 진행

인천

2012년 1기 저녁반이 개설된 이후 2015년 3기까지 진행

11. 더 풍성해진 가정사역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로 대표되는 온누리교회의 가정사역은 16가정이 중심이 되어 첫 발을 내디뎠다. '가정사역'이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시절이었다. 16가정은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실제 적용에도 적극적으로나섰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몇 번이나 일정이 연기 되다가 급기야 취소되는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됨을 원하셨다. 이때부터 16가정의 허물이 여지없이 드러나면서, 회개의 눈물과 함께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렇게 2년여 광야생활이 지나고 1993년 4월 2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가훈 제1기가 문을 열었다. 하가훈은 성서적 교육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을 돕고, 국내외 교회들을 모범적인 크리스천 가정들이 모여 이루

는 교회, 즉 하나의 큰 가정교회로 세우는 것이 목표였다. 이후 하가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 회복 사역을 잘 감당하며 수많은 가정들을 변화로 이끌었다. 24가정의 지원자로 7주 동안 진행된 1기를 시작으로 11월 19일에 48기가 배출되어 2010년 상반기까지 1,300여 가정이 훈련을 받았다. 하가훈은 기본적으로 ▷은혜와 치유 ▷가정 제도와 부부의 책임 ▷부부 대화와 가정 경제 ▷자녀 교육과 그리스도인의 성(性) ▷아버지의 영적 리더십 등을 주제로 5주 동안 진행되고 있다.

하가훈은 2005년부터 양재에서 '투게더(Together)'란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2003년 가을 1기를 시작한 수원 온누리교회 하가훈은 2005년 5월 4기에 24가정이 수료했다. 하가훈은 봉사자들이 섬김에 그치지 않고 전문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사역 강사 양성 세미나, 하나님의 가정 모임 소식지, 총 봉사팀 영성 훈련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2006년은 가정사역공동체에게 비약적인 부흥의 원년이었다. '온 세상을 향한 사역'을 표방한 가정사역공동체는 대외사역을 위해 명칭을 '드림패밀리(Dream Family)운동본부'로 정하고 어느 때보다 왕성한 사역을 펼쳤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역팀이 조직됐다. '드림사역팀'은 방송사, 정부기관, 기독연예인 등 다양한 경로로 마음을 열 수 있는 행사를 기획했다. 부부사랑콘서트, 아빠와함께, DRS 전도집회 등 녹록치 않은 행사도 은혜롭게 치러냈다. 가정사역공동체 사역(젊은부부학

교, 하가훈, DRS, 굿라이프, 마임하임, 출산예배학교, 헬로맘, 상담실 등)의 회복과 부흥이 가득했다.

2007년 결성된 '대외협력팀'은 세계를 돌며 행복한 가정학교의 강력한 전도사가 됐다. 인도차이나, 연변 과학기술대학, 얼바인, 애틀랜타, 청도 등을 거의 매달 아웃리치 했으며 특히 한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학교는 회복이 더 시급한 목회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중한 기회가 됐다. 하가훈은 대외적으로는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이란 뜻의 '패밀리 빌더즈(Family Builders)'란 이름으로 바꿨다. 그리고 2009년, 온누리교회 표어인 '화해와 일치'를 표방하며 캠퍼스별로 진행되던 하가훈을 통합해 사역자 교류 및 공동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사역을 전개했다.

가정사역본부는 '제1기 업그레이드(Upgrade) 부부학교'를 2009년 7월 4일 개강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모든 부부들을 대상으로 진새골 온누리교회와 사랑의 집에서 열린 제1기 부부학교는 7월 25일까지 4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진행됐다. 부부학교에서 다룬 내용은 ▷성격차이 ▷창조의 원리 ▷가정 제도의 목적 ▷남편과 아내의 역할 ▷내적 치유 ▷자녀교육 ▷부부 커뮤니케이션 등이었다.

양재 하가훈 1기부터 9기 수료 가정과 사역자를 대상으로 2009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2010년 사역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축복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아빠와 딸의 숲속캠프



양재 가정사역팀 투게더는 '함께하면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리마인드 해피투게더(Remind Happy Together)'를 2009년 11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하내테마파크에서 열었다. 하가훈에서 배운 것들이 각 가정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되돌아보고 나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함께 하지 못한 가정들을 초청해 ▷주제강의 ▷간증과 나눔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양재가정사역팀의 팀워크를 강화했다. 젊은부부학교도 '결혼을 세우는 사람들'이란 뜻의 '매리지 빌더즈(Marriage Builders)'란 이름으로 바꿨다.

12.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누리여성사역

Eve2Mary

온누리 여성사역을 체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1998년 '비전과리더십축제'때 여성리더십강좌를 개설하면서 부각됐다. 당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여성들이 이 강좌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 대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여성사역을 담당하고 있던 이종실 목사는 그 일로 온누리교회 여성사역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인 여성사역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때 마침 큐티를 하고 나눔을 갖는 모임이 한두 군데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차 여성들의 내면이 변화되고 정체성 회복이 이뤄진다는 고백이 전해져 졌다. 그래서 교회는 이 모임을 '마리아큐티나눔방'이라고 이름 붙이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후 큐티나눔방은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

면서 여성사역의 본형을 갖추는데 자양분이 되었다. 여성사역도 여느 사역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목표를 세우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현상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성장해 왔다. 큐티하는 여성이 늘어나면 큐티나눔방으로 묶어주고, 나눔방에서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나자 사역을 돕는 사역자학교를 열었다. 사역자가 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해지자 중보기도학교를 열고,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여성들을 발굴하고 훈련하기 위한 문화센터를 여는 식이었다. 1999년이 되면서 여성사역은 굵직한 걸음을 내딛었다. 여성예배가 시작되면서 이 예배가 여성사역의 구심점이 된 것이다. 또한 여성들을 위한 예수제자학교(JDS)가 처음으로 개설돼 온누리 여성들이 교회사역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자로 부상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여성사역이 꽃을 피웠던 2002년에는 서빙고와 별개로 양재에도 여성사역팀이 창설돼 빠른 시간 내에 정상궤도에 올랐다. 예배, 문화사역, 여성사역자학교, 큐티나눔방 등 다채로운 여성사역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그 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여성비전대회가 열렸고 여기서 확인된 여성사역의 축적된 역량이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여성사역축제로 열매를 맺었다.

여성사역축제는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전하는 등 예수님을 증거한 역사상의 많은 마리아들처럼 예수님을 예배하고 따

라가며 온 세상에 증거하겠다는 취지로 '마리아행전'으로 이름을 바꿨다. 여성사역축제 마리아행전은 '기도하는 여성! 세상의 희망!'(2007), '부르심'(2009), 여성기도부흥운동 '리멤버(Remember)'(2010) 등의 주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서빙고 본당에서 캠퍼스 연합으로 진행하던 마리아행전은 2008년 9월 흩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자는 여성사역본부의 결정에 따라 각 캠퍼스에서도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3년 3월 7일에는 서빙고에서 무릎선교사 훈련이 시작되었고, 양재는 주중 중보기도모임이 생겼다. 2004년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를 표제로 삼고, 지금까지의 여성사역을 되돌아보고 내실을 다졌다. 여성사역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이었다. 이에 따라 큐티나눔방 리더로 훈련시키는 '말씀묵상학교', '좋은어머니학교', '해피레이디', '찬양인도자학교' 등 각종 훈련프로그램이 여성들의 영성을 튼실하게 다졌다. 특히 양재 여성사역은 8월 24일부터 9월 21일까지 소그룹을 인도하는 여성 리더십 양성 코스인 'Woman to Woman'을 개설해 여성 리더십을 배출했다.

삶으로 쓰는 여성들의 Acts29

2004년 이후부터 여성사역은 사역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전도집회의 일상화를 시도해 큰 성과를 거뒀다. 2004년 12월 21-23일 양재 사

랑성전에서는 '여고동창'이 진행됐다. 23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9명이 세례를 받았다.

해를 넘겨 2005년에는 전도본부와 협력해 전도집회 '피크닉'을 6월 15일, 22일, 29일 사흘 동안 수요오전예배시간을 이용해 개최했다. 5월 24-26일에는 세계적인 여성사역자 질 브리스코 사모(시카고 엘름브룩교회)와 스튜어트 브리스트 목사를 초청해 여성축제 'Eve2Mary'를 개최했다. 7월 7일에는 BEE 총재 사모인 린다 딜로우를 초청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강의를 듣는 등 축제가 없는 때에도 여성들의 업그레이드를 돕는 집회가 이어졌다.

2006년에는 '언니'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 대상으로하는 맞춤전도집회 '언니 사랑해'를 개최했다. 이듬해부터는 모든 캠퍼스의 여성사역팀들이 수요오전여성예배시간에 '5월의 세레나데', '5월의 프러포즈' 등의 전도집회를 진행했다. 전도집회 후에는 곧바로 후속 양육프로그램과 함께 세례식도 진행했다.

여성사역은 맞춤전도집회뿐만 아니라 여성사역의 골격인 예배와 큐티나눔방, 무릎선교기도모임, 성경일독학교에도 힘을 쏟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긍휼사역의 일환으로는 2006년 12월 20일 병원 신우회와 함께 '환우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두달에 한 번씩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이웃에 전하는 '모빌팀'이 구치소를 방문하고 있다. 서빙고 여성사역에서는 지난 2005년부




13조
8조
3조

터 12명의 권사가 주축이 되어 서울구치소 외국인 여성 수감자를 섬기는 사역을 진행했다.

서빙고 모빌팀의 구치소 사역이 생명을 낳는 거룩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자 구치소 사역을 희망하는 캠퍼스도 차츰 늘어 2010년에는 모든 캠퍼스의 여성사역 모빌팀에서 구치소를 방문했다. 한줄기의 빛과 양분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구치소에서 새 생명의 꽃을 피워가는 모빌팀의 사역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계획하심에 따라 점차 많은 생명들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고 있다.

13. 전인적 회복의 장을 연 온누리 회복사역

온누리 회복사역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탄탄한 규모와 영향력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2003년도에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회복사역은 다루는 범주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넓었다. 내적치유는 물론 이혼자 회복학교, 병원사역, 장례사역, 의료사역 등 회복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진 사역들이 회복사역의 범주로 묶였다. 이렇게 흩어져 있던 사역들이 2004년 '회복사역본부'로 재편됐다. 이때부터 회복사역은 빠르게 체계를 갖추며 성장을 거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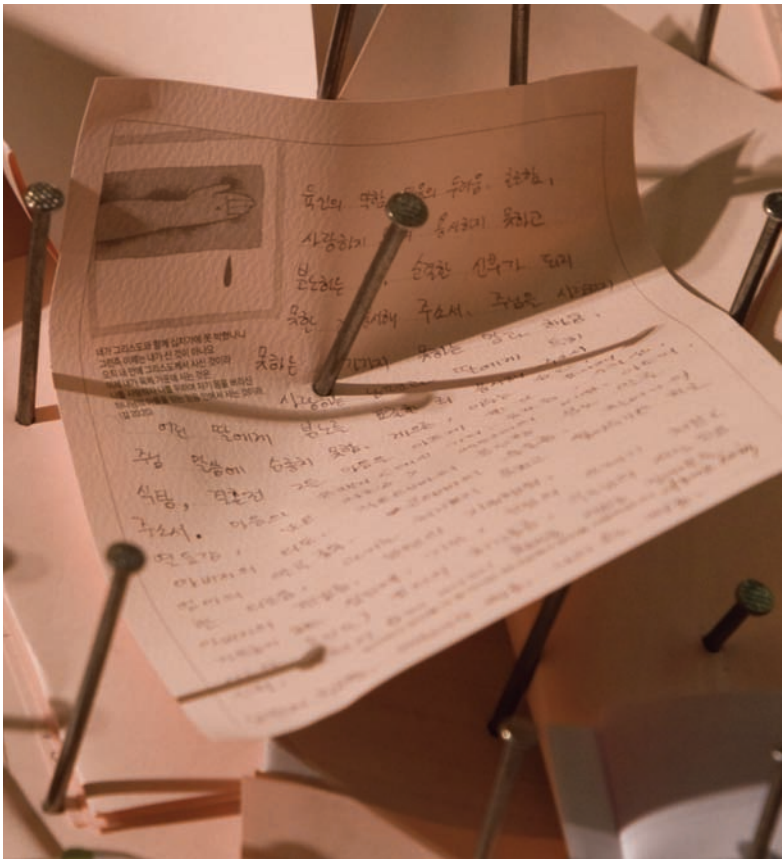
2004년 1월 12일,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 영적 성숙을 목표로 월요치유집회가 첫 문을 열었다. 알코올 의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모임도 1월 28일 첫 모임을 가졌다. 암투병 환자들을 위한 모임이 2월 10일부터 양재 드림홀에서, 암 환자 가족들을 위한 모

임이 2월 24일부터 서빙고 훌기도실에서 각각 문을 열었다. 발달장애자, 성 의존자들을 위한 모임도 꼬리를 물었다.

문화회복사역도 회복사역의 중요한 축을 형성해 오고 있다. 문화회복사역은 체육, 음악, 미술, 다도, 독서, 문화세미나와 이벤트 등 문화활동을 통해 한 사람이 전인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사역이다. 2004년 3월 5일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재즈댄스 프로그램인 'Joyful Dance'를 개설했다. 그동안 기존 수요예배는 2004년 2월부터 수요회복예배로 바뀌었고, 회복예배는 이후 목요일로 변경되었다가 2005년 11월부터 금요일로 다시 옮겼다. 회복예배에서 회복의 비결은 동일 중독 그룹별 모임과 그 중독 그룹 내에서의 자유로운 교제에 있다. 상담을 통해 이들의 구체적인 중독이 파악되면 이후 세부적인 중독 그룹으로 편입해 동일한 증세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치유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온누리교회는 회복사역을 시작한지 불과 2년 여가 지난 2005년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회복축제 '레인보우(무지개)'를 성황리에 치러내는 은혜를 누렸다. 11년 전 회복사역을 시작해 6년만에 축제를 열었던 미국 새들백교회에 비해 가파르게 성장곡선을 그렸다. 여기엔 회복사역팀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

2004년 회복사역팀 4명이 회복사역과 축제로 세계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새들백교회 회복축제를 참관한 데 이어 2005년 여름에는 서성렬



집사 등 회복사역팀 14명이 우울증과 스트레스의 세계적인 권위자 아치볼드 하트 박사가 몸담고 있는 퓰러신학교와 새들백 회복축제를 심도 있게 탐방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학습된 정보들은 다시 회복예배에 지속적으로 임상 적용되었고 이를 통해 회복사역의 역량이 축적돼 '축제'를 여는 데까지 이르렀다.

상처 내려놓고 회복의 기쁨 누려라

해가 거듭될수록 회복사역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동안 음지에 가려져 있던 사람들이 회복사역을 통해 양지로 나온 탓이다. 이러한 추세를 눈으로 확인한 사건이 2006년 열린 온누리회복축제 '아름다운 선택'이었다.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사흘 동안 하루 평균 1,800여 명이 참가해 회복의 기쁨을 맛봤다. 회복축제의 열기는 회가 거듭될수록 뜨겁게 불타올랐다. 2007년 '용서'를 주제로 열린 회복축제 '아름다운 선택'에서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십자가에 못 박고 쏟아낸 치유의 눈물은 본당을 가득 채웠다. 2012년 '고통의 선물'은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외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유와 회복을 기도했다. 2013년에는 주



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치유와 회복을 꿈꾸는 '왕의 임재'가, 2015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한 축제 'The 기쁨'이 마련됐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앞장서 달려가는 회복사역은 '맞춤형 회복사역'을 표방하며 각종 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임종을 앞둔 지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자를 양성하는 호스피스학교, 전문적 회복사역자를 배출하는 회복사역자학교, 상처로 인해 생긴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내도록 돕는 내적치유학교, 정신질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사역자를 양성하는 정신질환자치유사역자학교 등이 그것이다.

또한 2006년 시작된 어린이 회복사역 '하트스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역이 미술, 음악 등의 매체를 이용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어린이하트스쿨이다. 같은 일정으로 부모하트스쿨도 열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회복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있다.

14.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Acts29 패밀리

협력사역

Acts29 비전을 함께 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위해 온누리교회는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한동대학교,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두란노, 경배와찬양, CGNTV 등과 함께 다양한 협력 사역을 펼치고 있다.

전주대학교

전주대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바탕으로 온누리교회와 협력해 여러 사역을 진행해오고 있다. 2008년 7월 7-8일 전주대 JJ아트홀에서는 전주대와 두란노가 함께하는 사역 컨퍼런스 '더 웨이브(The Wave)'가 열렸다. 두란노 바이블칼리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사역을 함께 나누기 위해 열린 이 컨퍼런스는 호남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되었다. 2009년 11월 3일에는 온누리 대청연합의 '샤우트(Shout)

2009'가 전주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를 통해 전북지역의 10개 대학선교단체(CCC, CMF, CMI, DEC, DSM, ESF, IVF, JOY, SEC, YWAM)의 연합이 이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전주대는 샤우트집회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캠퍼스 복음화와 Acts29를 향한 비전을 품고, 지속적인 캠퍼스 부흥집회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제자훈련을 진행 중이다. 또한 대학생들을 위한 '샤이닝 글로리'도 전주대학교에서 열리고 있다. 2010년 6월 29일에는 하루 동안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전라북도 지역교회 목회자 및 리더십들을 위한 2010 말씀과 성령축제 '영성과 교회성장'을 개최했다.

2010년 9월 14일에는 TIM · KIBI · BEE Korea · 창조과학회와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분야개발 ▷정보교환 및 인력양성 ▷분야별 공동연구 ▷취업지원 및 취업정보교환 등을 이루고 있다.

전주비전대학교

2005년 개교 30주년을 맞은 전주비전대는 제2창학정신으로 '전문인선교사양성반'을 개설했다. 이는 다양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국내외 장기선교사와 동역자로서 협력할 평신도 전문인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전문인 선교사 양성반은 이후 '전문인선교사과정'으로 2010년 기타모집으로 학생들을 받았다.

전주비전대는 2006년 11월 29일 TIM(두란노해외선교회)과 선교협정을 체결했다.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TIM과 선교협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TIM 파송전문인선교사로 선교지에 파송할 수 있게 됐다. 2008년에는 국제문화과를 신설하고 경배와찬양 예배예술과정을 모집했다. 예배예술과정은 예술과 감성의 시대에 현대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를 움직이는 가치와 철학을 살펴보고 실제적인 예술 분야를 기능별로 배우는 2년제 전문학사 과정이다.

한동대학교

창조신앙을 바탕으로 정직, 성실, 인성을 갖춘 전문 지식인을 키우는 것에 목표를 둔 기독교대학 한동대학교는 기독신앙에 기초한 학문적 탁월성과 전인교육을 추구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2009년 12월 7일에는 온누리복지재단과 한동대학교가 '교류협력 협약식'을 갖고 적극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했다. 이 협약으로 앞으로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며 상호발전에 기여했다.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이하 횃불트리니티)는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온 교수들과

학생들로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있으며 특히 미전도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기독교재단 횃불선교원과 미국의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TEDS)의 협력 아래 1998년 3월 개교한 횃불트리니티는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 과정을 영어로 교육하는 등 그동안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는 신학대학원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화된 교회 지도자들을 배출해왔다. 횃불트리니티 산하 연구소로는 기독교상담센터, 기독교교육센터, 성서학연구센터, 한국이슬람연구소, 크리스천리더십센터가 있다.

15. CGNTV, 더 멀리 & 더 가까이

복음 싣고 땅 끝까지

CGN(Christian Global Network)TV는 650만 해외 한인들과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Acts29의 비전을 전파하도록 돕기 위해 2007년 태어났다. 9개 권역으로 설치된 인공위성을 이용해 전화와 인터넷마저 이용하기 여의치 않은 곳에 흩어져있는 선교사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CGNTV의 전신인 온누리TV는 온누리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고 빠르게 전하기 위해 2000년에 탄생했다. 당시 온누리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디지털 목회를 선언한 때였다. 그 해 5월 14일 온누리TV는 첫 시험방송을 시작했고, 5월 15일에는 온누리 리더십을 대상으로 인터넷 방송설명회를 열어 인터넷방송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온누리신문은 이에 △디지털



혁명 △디지털시대의 사고 전환 △디지털에 속지 마라 등을 연재하며 성도들이 디지털 목회의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온누리교회는 같은 해 10월 온누리TV의 개국과 동시에 '디지털 세상, 불멸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온누리 사역축제(OMC)를 열어 사이버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비전을 공유했다. 온누리TV에 이어 12월에는 온누리 라디오까지 전파를 쏘아 올렸다. 온누리TV는 방송 8개월 만에 전체방문자 100만 명, VOD 1,542개, ADO 1,742개 하루 평균 13,000명이 접속하는 영향력 있는 방송국으로 자라났다. 2001년 3월 양재 온누리교회의 순항을 비롯해 이후 부천, 수원, 대전, 남양주, 미주, 일본, 중국 등 비전교회의 부흥은 온누리TV에 힘입은 바가 크다. 온누리TV는 예배, 세미나, 집회 등을 생중계하며 모든 온누리교회의 영성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이후 온누리TV는 월요큐티집회, 화요성령집회, 수요집회, 토요청년집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방영했고, 2004년 5월 17일부터는 서빙고 새벽기도회를 위성 생중계했다. 이외에도 2003년 11월에는 온누리 전도축제 '체인지업'이 축제로는 처음으로 국내 20개 교회로 생중계 되

었고, 이듬해 '파워웨이브'와 '플러그인' 등 크고 작은 집회들이 꼬리를 물고 온누리TV 전파를 탔다.

2004년 9월에는 한국통신과 '글로벌 위성방송망 서비스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통신의 국내 최대 위성시스템과 해저케이블을 통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 5대양 6대주의 650만 해외교민에게 24시간 한국어, 영어, 현지어 방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온누리TV는 2005년 3월 29일 더욱 큰 위성선교방송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CGNTV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날 서빙고 본당에서 500여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국예배를 드렸다.

하용조 목사는 "아무리 돈이 많이 들고 희생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케이블TV나 공중파가 가지 못하는 세계 곳곳에 흩어진 수많은 선교사들과 열방에게 CGNTV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 오실 날이 가



까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GNTV는 그해 5월에 전주대학교와 산학협력 조인식을, 극동방송과 콘텐츠, 마케팅 등에 공동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8월 7일에는 예루살렘 평화대행진을 전 세계에 생중계해 극적인 감동을 안겨줬다. 8월에는 미주 CGNTV가 개국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문선교방송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 2006년 10월에는 일본 CGNTV가, 다음 해 8월에는 중문 CGNTV가 개국하며 글로벌 선교 방송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

CGNTV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현대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뉴미디어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CGNTV의 콘텐츠를 모바일, 위성, 인터넷, 케이블, IPTV,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게 됐다. CGNTV는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 2007년 아랍 최대의 크리스천 방송인 'SAT-7'과 업무조인을 맺었고, 지난해에는 미주지역의 디지털 채널 18.4(서부 기준)를 론칭하면서 미주 최초로 24시간 기독 방송을 송출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이처럼 날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CGNTV는 2005년부터 선교사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해 '드림 온(Dream On)' 캠페인을 벌

였다. 현지 선교사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 2015년 현재 81개 국에서 1만여 명의 선교사들이 CGNTV를 보면서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한국 선교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14.12. 약 26,677명)의 약 1/3이 CGNTV로 영적 공급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CGNTV는 2015년 현재 월평균 520여 편, 2005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편수 7만여 편의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장르별로 보면 말씀이 37%로 가장 많고, 이어 예배(16%), 세미나(15%), 문화(13%), 큐티(10%)순이다. CGNTV는 5개의 위성 6개의 빔으로 170여 개국에 위성방송을 하고 있으며,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러시아어, 불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독일어 등 12개 언어로 방송을 하고 있다.

위성 안테나 현황(2015. 8월 기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등지에 81개국 9,760대의 위성 안테나 설치.

16. 온누리 디지털 목회의 시작 '아이케어, 아이스쿨'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도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교적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다. 성도 1만 명의 교적부를 6초씩 훑어보는데 17시간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4월, 온누리 전산팀은 LAN(근거리 통신망)으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에스라'를 개발했다. '에스라'는 1만 명의 교적부를 5초 만에 검색해내어 디지털 목회의 훌륭한 대안이 됐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독려했던 선지자 에스라의 이름을 딴 이 시스템은 이후 온누리 교적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에스라II, 에스라III로 착실하게 업그레이드를 한 '에스라' 시스템은 2007년 10월 15일 Acts29 비전에 발맞춰 인터넷 버전을 선보였다. 인터넷 버전은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설계해 목회를 위한 통계,

분석 등 다양한 자료를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교적관리 뿐만 아니라 선교사관리, 헌금관리, 일만사역자관리, 후원관리, 온누리동산관리, 각종 증명서출력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 이로써 국내외 온누리교회 행정 네트워크의 길이 열렸다.

'에스라'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디지털 목회를 지원할 때, 온누리 인터넷방송은 외부적으로 디지털 목회의 선두에 섰다. 2000년 3월 말 수술을 마치고 귀국한 하용조 목사는 그해 5월 디지털목회를 선포했고, 이어 5월 온누리TV(onnuritv.com)가 시험 방송을 시작했다. 당시 하용조 목사는 디지털목회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 △2천/1만 비전을 더욱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이루기 위해 △약한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온누리교회의 사명을 위해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충족시켜 주기 위해 △네티즌, 무한한 젊은 차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디지털 세계를 구원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공을 넘는 온누리 사역을 위해 등 7가지로 설명했다.

2010년, 온누리교회의 디지털 목회는 또 한 번 도약했다. 온라인으로 온누리 성도들의 양육을 돕는 '아이 케어(iCare, 목양)'와 '아이 스쿨(iSchool, 양육)'을 시작한 것이다. '아이 케어'는 교회를 처음 찾은 사람들이 교회에 원활하게 정착하고, 공동체에 연결되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한 성도가 새가족으로 등록해서

공동체에 정착하고 임직자로 세워지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역자, 공동체 리더십, 성도의 일원화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고, 새가족 사역자, 전산 입력자, 일대일 사역자, 순장, 다락방장, 총무, 장로, 교역자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행정 절차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부터는 차세대에서도 아이케어를 사용하면서 학생들의 출석, 양육과정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 스쿨은 성도들이 양육 프로그램이나 스쿨에 손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한다. 산재해 있는 모든 온누리교회의 모든 양육,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볼 수 있고, 수강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온누리 디지털목회는 스마트 폰, 태블릿(tablet) PC 등을 이용한 모바일 목회서비스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아이스쿨 현황

연도	스쿨 수	신청인원	수료인원
2010	305	9,232	6,124
2011	1,055	15,511	10,305
2012	722	15,489	10,651
2013	927	22,207	16,727
2014	832	20,085	15,686
2015.1-8	672	11,933	72,28
합계	4,513	94,457	66,721

17. 통일을 준비하는 온누리

통일을 준비하는 온누리교회의 역사는 200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탈북민과 북한선교에 꿈을 가진 남한 청년 30여 명이 양재 온누리교회에 모여 시작한 기도모임이 탈북사역의 모태가 되었다. 이 기도모임은 입소문을 타고 가족과 떨어져 남한으로 온 탈북민들의 상처를 보듬는 어머니의 품으로 소개됐다. 이후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탈북민들이 곳곳에서 모여들었다. 이들을 섬기고자 평소 북한선교에 비전을 품고있던 지체들의 발걸음도 줄을 이으면서 기도모임은 '하나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사역에 박차를 가하던 하나공동체는 2005년 5월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성경빌딩 6층에 탈북자종합회관을 개관했다. 개관예배에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비롯해 탈북사역의 선구자인 주선애 장신대 명예교수, 하용조 목사 등이 참석했다. 2006년 4월 오픈한 양재 사

랑의 줄잇기는 수익금의 일부를 꾸준히 탈북민에게 제공했다. 또한 2009년 9월에는 탈북민들이 한국생활에 적응을 돕기 위해 하나원(안성 소재)에서 홈스테이를 시작했다.

이외에도 하나공동체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방법교육 ▷의사소통방법교육 ▷한국문화체험 ▷공부방운영 ▷탈북민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으로 탈북민들을 돕고 있다. 하나공동체와 탈북민종합회관을 주축으로 탈북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 곳곳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 자신이 탈북민 시절 중국에서 만난 선교사를 통해 목회 비전을 품게 되어 현재 하나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마수현 전도사가 대표적인 예다. 몇몇 탈북민 지체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통일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는 역군이 되고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10년 4월 탈북민종합회관은 명칭을 '한터'로 변경하고 양재동에서 강서구 등촌동으로 보금자리를 이전했다. 한터에서는 ▷예배 및 집회 ▷대안학교 및 공부방 ▷진학 및 취업기술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K 사역

온누리NK사역은 북한을 돕는 현지사역과 국내 새터민사역 및 후원으로 나눌 수 있다. 현지사역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냉면프

로젝트는 1996년 12월부터 시작하였는데, 평양 만경대 소학교학생, 병원, 노무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상황에 따라 밀가루, 옥수수가루 등 급식재료를 전달한다. 1998년에 시작한 유아원(탁아소)프로젝트를 통해 황해도 사리원의 유아원에 양육을 위한 필수용품을 제공하고 있다. 순교자 자녀 학비지원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2002년부터 순교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수십 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새터민사역은 국내 새터민 사역에도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양재성전에서 오후 2시에 드리는 새터민 예배 '하나공동체'를 마련하고 있고, 한터(구 탈북자종합회관)에서는 새터민에 대한 훈련과 양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온누리교회는 탈북자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후원하고 있으며, 탈북자 사역을 통해 탈북자동지회도 후원하고 있다.

울어라 한반도여

2013년은 온누리가 더욱 힘을 모아 통일을 위해 무릎을 꿇은 해다. 7월 4일 온누리 모든 공동체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모여 남북한의 통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했다. 이 집회는 온누리교회 차원의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한 집회였다. 당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누리 성도 약 8,100명은 남북한의 가로막혀 있는 견고한 철책이 무너지도록, 북한이 복음으로 회복되도록,

동양의 예루살렘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도록, 10년 안에 북한 땅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한마음으로 간구했다.

이 집회에 앞서 2천선교본부 북한사역팀에서는 하나원 방문, 북한선교브릿지, 휴전선 아웃리치, 북한선교학교 등을 열어 북한 사회를 바로 이해하고 알아가도록 도왔다. 또한 각 공동체에서도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모임, 마리아행전,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기도제목나눔 등을 계속 이어갔다.

이 집회를 기점으로 온누리는 통일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하기 시작했다. 2013년 7월 한달 동안에는 북한사역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수요북한선교집회를 했고,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등 7개 영역의 기도제목을 나눴다. 7-8월에는 '블레싱 한반도'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행진, 휴전선 기도집회, DMZ 자전거 행진, 순장영성수련회 등을 이어갔다.



3

선교중심의 교회

1. 선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는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정의한 하용조 목사는 온누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떠날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온누리 성도들은 초창기부터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선교와 연관해 생각하는데 익숙해졌다. 하용조 목사는 예수님과 사도행전적 교회론으로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온누리 교회는 다음과 같은 교회론과 목회 철학을 정립해 갔다.

교회는 △첫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공동체 △둘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공동체 △셋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 △넷째,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공동체다.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교회는 △첫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 △둘째, 양육하는 공동체 △셋째, 고난에 참여하는 공동체 △넷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온누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의 주체로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 결과 온누리교회는 창립예배를 드린 지 2개월 만인 1985년 12월 김의정 선교사를 인도네시아로 파송할 수 있었다. 당시 교회 건물은 아직 가건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열정을 막지 못했다. 곧이어 1986년 1월 5일에는 변재창 선교사를 일본으로 파송했고, 9월 21일에는 정민영 선교사(파푸아뉴기니)와 김창환 선교사(영국)를 추가로 파송했다. 온누리교회는 파송하는데 그치지 않고 선교사들에게 선교지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선교보고회'를 정기적으로 열었다. 또 주보에는 '선교지에서 온 편지'를 삽입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선교지의 감동과 기도제목을 나눴다.

선교지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1988년 2월부터는 매월 둘째 주일을 전도 선교 주일로 제정했다. 1992년부터는 1월 첫째 주에 전 성도가 해외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것을 정례화 했는데, 그해 헌금에는 1,500여 명이 참여해 약 4억 원을 작정했다.

한편, 해외선교와 동시에 온누리 성도들은 국내선교에도 힘을 모았다. 지금은 매립지가 된 시화공단에 예전에 작은 섬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형도교회를 온누리교회 창립 전인 1985년 7월부터 섬겼다. 성경공부 모임 4기가 진행되던 중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사역은 1986년 이후 더 확장되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던 성도가 배운 것을 실

천하기 위해 이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된 사람들이 모일 곳이 없자 '새누리교회', '탄불도교회', '어도교회'가 세워졌다.







2. 생명처럼 붙잡고 가라! ‘2천/1만 비전’

온누리교회에 있어서 1994년은 기념비적인 해다. 하나님께서 ‘2천/1만 비전’을 주신 해이기 때문이다. 당시 성도 수가 6-7천 명이던 온누리교회에게 ‘2천 명의 선교사와 1만 명의 사역자를 파송한다’는 이 비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온누리 성도들은 망설이지 않고 이 비전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다. ‘가는 선교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1993년에는 선교헌신자를 위한 공동체 훈련 과정으로 ‘헌신자훈련학교’가 서울과 용평에서 시작되었다. ‘보내는 선교사’를 위해서는 선교 강좌, 기도모임, 후원 행사 등이 줄을 이었다. 이상자 권사는 1988년부터 자신의 집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모임인 ‘한남동 기도모임’을 시작했다.

‘2천/1만 비전’이 선포된 이후, 성령사역과 기도사역은 더욱 활성화

되었고 '온누리 성도는 누구나 다 선교사'라는 사명감이 고취되었다. 사실 이 비전은 1994년에 갑자기 돌출된 것이 아니었다. 온누리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막연하긴 했지만 이러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하용조 목사가 성령사역을 선포한 뒤 '거룩과 순결'을 지향한 것이 이 비전 태동의 직접적인 견인차가 되었다.

1996년에는 '2천/1만 비전'을 향한 성도들의 열정이 더욱 뜨거워졌다. 4월 선교부활주일에 하용조 목사가 '부활과 선교'라는 제목의 설교 후 '2천/1만 비전'으로 초대하자, 918명의 성도가 선교사와 사역자로 헌신했다. 그 해 10월에는 창립 11주년을 맞아 8개의 미전도종족을 입양함으로써 '2천/1만 비전'을 더욱 구체화 했다. 이후 미전도종족 입양은 계속 이어져 1997년에는 6개 종족, 1999년에는 1개 종족을 추가로 입양했다. 특히 1997년에는 온누리공동체가 15개 미전도종족을 재입양해 아웃리치, 중보기도, 땅밟기 등으로 품을 수 있게 됐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열린 비전트립, 단기선교수련회 등은 교회의 선교 열정을 달아오르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2천/1만 비전'이 선포되면서 온누리교회 관련기관인 TIM, 경배와찬양, 인터콥, 미주 두란노 등과의 협력도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되었다. BEE 등 여러 선교단체들이 사용하는 훈련 소프트웨어를 종합 검토해 각 기관의 사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세계를 선교권으로 삼아 지역별, 종교별, 사회별 선교 정보 및 현황을 수집, 검토, 분석하는

작업도 체계를 잡아갔다. 선교 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으며 파송 선교사들의 사역과 생활에 대한 세심한 지원도 준비해 나갔다 '2천/1만 비전'이 선포된 이후 온누리교회의 성도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1991년 12월 3,305명, 1993년 12월 5,981명 등 매년 1천명씩 늘던 성도 수가 '2천/1만 비전'이 선포된 후부터는 매년 거의 2천 명씩 늘어났다. 그래서 1995년 12월 등록교인이 9,569명이 되었고 1996년 12월에는 1만 명을 넘어서게 됐다.

한편, '1만사역위원회'는 1996년 '2천/1만 위원회'로부터 독립해 1만 사역자 파송에 대한 계획을 진행해 갔다. 1만 사역위원회는 "'1만'이란 산술적 의미를 넘어 온누리 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성도"라고 정의



하고, 현장사역자, 순사역자, 교사사역자, 가정사역자 등 사역자 구분과 파송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 갔다.

선교사 파송현황(2015.9)

파 송 지	선교사 수
동아시아(6국가): 대만, 몽골, 일본, 중국, 한국, 북한	338
남아시아(16국가):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홍콩, 스리랑카, 싱가폴,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243
중앙아시아(5국가):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27
소아시아(1국가): 터키	44
중동(10국가):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이집트, 쿠웨이트	62
아프리카(11국가): 가나, 모로코, 감비아, 모잠비크, 세네갈,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케냐,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튀니지	47
유라시아(8국가): 러시아, 보스니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20
북미(2국가): 미국, 캐나다	25
중남미(7국가): 니카라과, 과테말라, 도미니카, 멕시코, 아이티, 페루, 쿠바	24
오세아니아(5국가):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통가, 호주	11
대기	14
파송 누계: 1,785명 / 사역 중인 선교사: 855명	

입양 미전도종족

- **1996년 10월 13일:** 하니족, 아제리족, 이반족, 브리야트족, 우즈벡족, 베다족, 투르크족, 위그루족
- **1997년 10월 12일:** 타라후마라족, 미헤족, 인타족, 람풍족, 스와힐리족, 쿠르드족
- **1999년 10월 10일:** 카라칼팍족을 추가 입양해 모두 15종족을 공동체별로 연결

3. '땅끝선교'를 이뤄낼 영적 도장 'Acts29 비전빌리지'

1994년 선포된 '2천/1만 비전'을 따라 1996년 6월 8일 온누리벧엘교회와 온누리이천만훈련원이 개원했다. 훈련원이 위치한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에는 교회 소유의 땅이 없었지만, 목회자도 없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낙원벧엘교회 성도들의 요청으로 온누리교회에서 노후한 건물을 수리하고, 온누리벧엘교회로 이름을 바꾸어 이상규 목사를 담임목사(1996.6.8.-1998.12.31.)로 파송했다. 그리고 이 터에 있는 건물을 보수해 온누리이천만훈련원이 문을 열었다.

선교사들을 위한 영적 훈련장으로 사용되던 온누리이천만훈련원은 전 세계가 2002 한일 월드컵의 열기로 달아오른 6월, 전 세계에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온누리세계선교센터(OWMC; Onnuri World Mission Center)'로 거듭났다. 김사무엘 선교사를 초대 원장으로 한 온누리세계선교센터는 선교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하는



2000선교본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두란노해외선교회(TIM)와 더불어 전 세계에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를 세워 나가는 역할을 감당했다.

이를 위해 OWMC는 그 해 6월 18일, 온누리 리더십을 대상으로 '리더스 선교캠프'를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이재환 선교사는 온누리 리더에게 선교의 중요성을 각인시켰고, 리더들은 먼저 기도로 미전도종족을 섬기겠다는 결단과 헌신을 했다.

리더스 선교캠프를 시작으로 OWMC는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나누

는 일을 감당하기 위한 '장기선교사훈련학교(OSOM; Onnuri School of Missions)'와 '단기선교사훈련학교(TP; Turning Point)' 등의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평신도에게 선교의 의미와 은혜를 일깨우는 '와이 미션(Why Missions?)'은 온누리 해외비전교회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고, 중고등학생 주일학교인 '파워웨이브' 안에서도 시작되었다. 또한 부산의 큰터교회 등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와의 협력 사역으로 확대되었다.

2010년, OWMC는 'Acts29 비전 빌리지(Vision Village)'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 비전 빌리지는 ▷전 교인의 선교사적 삶을 위한 훈련 Mission2all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Mission# ▷장기선교사 훈련 Missionary Training ▷민족과 열방을 위해 24시간 기도하고 중보기도자를 세우는 Prayer all ▷국제적인 선교 컨퍼런스 등 전략적 선교네트워크를 위한 Global Leadership all 등 다섯 가지 비전을 선포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용조 목사 비전 빌리지 개원 메시지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모든 성도들이 3년 전부터 모은 헌금으로 양지에 ‘Acts29 비전빌리지(Vision Village)’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온누리 공동체 ‘Acts29 비전 빌리지’가 문을 열게 된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Acts29 비전빌리지’는 온누리교회의 다섯 가지 핵심가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가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개인의 영혼에 심어주는 것이고, 선교는 국경을 초월해 미전도종족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전도가 땅 끝까지 가면 ‘선교’가 됩니다. 온누리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온누리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눈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가 매년 개최하는 성령집회의 목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삶을 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온누리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에는 약속 있

는 기도와 약속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뤄집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꿈, 내 열정으로 하는 기도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와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기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연합과 나눔'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서로 연합하고 친밀한 교제를 갖는 교회입니다. 비전교회를 포함해 온누리교회에는 6만여 명의 성도가 있지만, 6명이 모이는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이 '연합'입니다. 또 하나는 '나눔'입니다. 하나님이 온누리교회에 부어주신 모든 축복을 전 세계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인 일본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와 나누고, 국내에 있는 많은 개척교회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를 꿈꿉니다.

마지막 핵심가치는 '청년'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불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대학부와 중고등부까지 다음 세대를 짊어질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선교하라

이것이 온누리교회의 핵심가치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핵심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전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는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제목을 붙인 책도 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훈련시키는 것도 선교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교사처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를 돕는 것도 선교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는 일이 모두 선교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Acts29 비전 빌리지는 이런 비전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28장 18~20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선교단체장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목숨을 거십시오. 이 비전에 여러분의 몸을 불태우고, 헌신하는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누리신문 806호(2010. 6. 27.)

4. 선교의 비전, 온누리를 덮다

온누리 선교 훈련과 프로그램은 점차 다양화, 전문화되었고 대상과 지역 또한 확대되었다.

2006년 7월에는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 IV)'에서 발표된 '한국 선교2030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온누리교회는 한국 선교단체들과 동일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었다.

2009년 9월에도 12개 선교단체의 대표들을 초청해 선교 협력강화에 나섰다. 이날 모임에는 온누리교회 선교사역팀 리더십들과 YWAM, 인터콥, GO, HOPE, GMP, WEC, GBT, OM, UPMA 등의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온누리교회의 선교사 케어 시스템과 선교센터 건립 및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그동안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온누리교회에서 케어해주고 후원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06년 11월에는 두란노해외선교회(TIM)와 한동대학교, 전주비전대가, 2010년 9월에는 전주대학교가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선교인력 양성을 목표로 선교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을 통해 각 대학에서 TIM에 매 학기 교내 학생을 단기선교사로 추천, 위탁해 TIM에서 일정기간 훈련(단기선교사훈련)을 거쳐 선교지로 파송되도록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

2006년 12월에는 미주두란노해외선교회(TIMA)가 설립되었다. TIMA는 중남미에 1,000개의 교회 개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미전도종족과 복음이 열악한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섬기기 위해 CGNTV, 두란노, 아버지(어머니)학교, 비전/협력교회들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2009년 7월 1일 저녁에는 '수요선교집회'가 서빙고 본당에서 시작됐다. 이 집회는 교회의 선교역량을 한 데 모으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지속되어 오던 '선교사 기도모임'의 확장판이었다. 2000선교본부는 선교집회를 시작하면서 안내부스를 설치하고 선교 동원에 나섰는데, 한 달 동안 180명이 중보기도자로 헌신했으며, 79명이 선교사 헌신 서약서를 작성했다.

또한 '2000선교본부'는 2010년 창립 25주년을 맞아 미전도종족 복음화와 전방개척선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청년 미션 프론티어스(Mission Frontiers)'를 세웠다. 2010년 2월 21일에는 온누리 대학 청년을 주

축으로 'TIM 단기 리서치 전문인 선교사'를 1년 동안 파송했다. 이들은 동북아, 중앙아/소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 종족 및 지역에서 종족 리서치와 선교지 개척 사역, CGNTV 통신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리서치 자료는 협력단체인 UPMA(미전도종족선교연대), 한동대국제지역연구소, CGNTV와 공유하고 있다.







5. 영원한 형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서사시

온누리교회의 본격적인 이스라엘 선교는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모임이 형성된 1990년에 시작되었다. 1994년에는 이스라엘 회복운동을 전문적으로 펼칠 KIBI(한 · 이 성경연구소)를 창설해 언약의 그 날을 준비하며 숨 가쁘게 달리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는 먼저 성경적인 무장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에는 조프 바나드(Dr. Geoff Barnard), 키이스 인트레이터(Keith Intrater) 목사를 초청, 이스라엘 선교세미나와 이스라엘 선교를 위한 워크숍 등을 열었다. 이어 KIBI 주관으로 성지순례가 진행되었다. 1차 성지순례(1994년 2월 14-23일) 때는 성령집회를 열고 갈릴리 바다에서 선상예배를 드렸다. 2차 성지순례(1995년 2월 12-23일) 때는 150여 명의 크리스천 유대인, 아랍인들이 함께하는 연합 집회를 열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1997년의 4차 성지순례는 '비전트립(Vision Trip)'이란 이름으로 열렸고, 200여 명이 동참했다. 특히 이 성지순례에서는 '열방교회(All Nations Church)' 설립이라는 비전을 품게 되었다. 이는 1997년 6월 30일 갈릴리 코리안 레스토랑 개원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후 이 사역은 중단되었지만, 향후 온누리교회가 이스라엘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데 귀한 경험으로 축적됐다. 1999년엔 KIBI를 중심으로 유대인 귀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4월에 비로비잔(극동유대인자치구)과 사할린에 1차 컨테이너(라면 5천 8백 상자)를 지원했고, 7월에는 2차 컨테이너(의류 133상자)를 지원했다. 9월엔 코르샤코프(사할린)와 레닌스크(비로비잔)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귀환 사역과 병행해, 2001년부터 이스라엘 비전스쿨을 개최함으로써 이스라엘 회복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회복과 귀환 사역은 '2004년 예루살렘 평화행진'으로 인해 (KIBI가 한국문화주간 행사에 협력 단체로 참여)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04 평화행진에 온누리교회가 공식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직접 참가하거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젖과 꿀이 흐른 땅, 메시아가 나셨던 땅, 그 땅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온누리교회의 열정은 2005 예루살렘평화행진으로 이어졌다.

2006년에는 이스라엘 소식을 성경적 ·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사

월간지 〈이스라엘 투데이-한국어판〉을 10월 호부터 발간했다. KIBI는 이스라엘 현지에서 발행되고 있는 〈이스라엘투데이〉와 협력해 〈이스라엘투데이〉한국어판 보급, KIBI 사역과 한국 내 유대인 귀환사역 관련 소식을 담당하고 있다.

〈이스라엘 투데이〉는 독일에서 온 '메시아닉 쥬(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인 루드위그 슈나이더(Ludwig Schneider) 씨가 처음 발행했으며, 1993년 독일어판, 1999년 영어판, 2003년 일본어판, 2007년 네덜란드어판으로 발행되고 있다. 2006년 1월 8일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부흥을 위한 기도의 깃발이 올랐다. 자양동 예수생명교회에서 기도의 깃발(GPNK; Global Prayer Network for the Kingdom) 출범식이 열렸다. 매주 기도문과 기도제목을 올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게 됐다. 주별기도제목과 긴급기도제목을 비롯해 각 지역별 기도현황을 GPNK 홈페이지(www.gpnk.org)에서 볼 수 있다.

2007년 3월, KIBI는 유대인 귀환사역을 위해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미국에 'KIBI 아메리카(KIBI-America)'를 설립했다. KIBI 아메리카는 미국교회에 유대인 귀환사역을 알리고 SGS(소그룹 성경공부)와 KIBI의 다양한 사역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10년 1월 18일부터 3일 동안 이스라엘의 회복과 한국 교회의 각성을 위한 제1회 '한국 · 이스라엘 기도성회'를 개최했다. 이 성회

를 위해 KIBI, ICM경배센터, IHOP, 영화 '회복'팀 등 이스라엘을 위해 사역하는 14개 단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지난 2천년 동안 교회가 이스라엘을 핍박한 것을 회개하며, 이스라엘의 평화와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또한 열방의 구원,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선포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다.

2005 예루살렘 평화행진 "은혜와 감격의 대장정"

무더위에도 2,500여 명 완주
팔레스타인들의 열렬한 환영 받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정착을 위한 '2005 예루살렘 평화행진'이 2005년 8월 10일(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이어진 6km 구간에서 열렸다. 이번 행진에는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할렐루야교회, KIBI, 인터콥 등 교회와 선교단체 기독교인 2,500여 명이 참가했다. 행진에 앞서 오전 8시경 테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하용조 목사는 "평화행진은 기도행진"이라고 정의하고, "한발 한발 내밀 때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의 화해자가 되고, 이 땅의 평화를 통해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Peace March 2005
Peace March 2005 Peace March 2005



행진은 오전 10시30분 예루살렘 월 스폿(Wall Spot)에서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30~50명씩 그룹을 지어 질서정연하게 이동했으며, 약 1km에 달하는 행진대열의 선두에는 온누리교회, 인터콥, 차세대 어린이들과 이 행사의 공동대표인 하용조, 이동원, 김상복 목사, 최바울 선교사, 송만석 장로가 섰다. 참가자들은 "이스라엘이여, 평안하라(Shalom Israel)"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고, 거리나 창가에 나온 이스라엘인들은 "한국이여, 평안하라"며 웃으면서 화답했다.

약 1시간 후 대열은 출발지점에서 3km 떨어진 베들레헴 체크포인트(Check Point)와 분리장벽을 지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접어들었다. 플래카드는 "팔레스타인이여, 평안하라(Salam Palestine)"라고 적힌 것으로 교체되었다. 이스라엘 관광청 아브라함 치르존 장관은 베들레헴 체크포인트까지 나와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을 찾아 평화행진을 계속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최바울 선교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행진에 대해 이스라엘인들은 대체로 미온적이었던데 반해 팔레스타인들의 호응은 상상 이상으로 대단했다. 거리엔 "우리의 친구인 한국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들이 걸려있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열 곁으로 나와 선한 눈빛과 진심어린 환영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 식료품 가게 주인은 지난해 평화행진을 기억하며 참가자수를 물어왔고, 아이라비델과 그의 언니, 유하프, 라프, 모멘,

자민 등 새까맣게 그을린 10세 안팎의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호기심으로 뒤를 좇았다. 특히 엘리아스라는 이름의 팔레스타인은 3명의 자녀와 함께 차를 몰고 나타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라는 한글이 적힌 태극기를 휘날리며 열렬히 환영했다. 취재를 위해 AFP통신, 로이터TV, 이스라엘TV, 팔레스타인TV 등 외신기자들이 몰려 이 행진에 대한 외신들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2시간 여 만에 베들레헴 예수탄생광장에 도착한 평화행진단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갈등과 분쟁의 현장마다 주님의 용서와 화해가 임하도록 통로가 되는 데 앞장선다는 뜻의 선언문을 낭독했다. 기독교도인 빅터 바타르쉐 베들레헴 시장은 환영행사에서 "평화행진은 한국과 팔레스타인의 우호증진은 물론 국제사회가 최근 분리장벽 강화 등 베들레헴의 절박한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하고 "이제 우리가 분쟁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부활시킬 때"라고 강조했다. 주 이스라엘 박경탁 대사도 환영인사에 나서 "여러분의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평화의 말알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온누리신문 556호(2005. 8. 14.)

6. 아프간 선교

온누리교회의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사역은 2001년 9 · 11 테러사건 이후 미국과 아프간을 위해 기도하던 한 성도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 이남식 집사가 아프간 난민을 위해 써달라며 2천만 원을 파키스탄 대사였던 윤지준 대사에게 전달한 것이 신호탄이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영어예배, 성인예배에서 모금한 500만 원이 아프간 난민의 텐트를 짓는데 보내졌다.

2002년 4월 14일, 윤지준 대사가 온누리교회 영어예배에 참석해 탈레반 정권 하에서 고통당하는 아프간 난민과 기독교인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아프간 지원 사역이 점차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5월부터는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고 아프간 현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정탐팀이 구성되었다. 1차 정탐을 위해 김창옥 전도사(2천 선교본부)와 장선철 편집국장(온누리신문)이 2002년 5월 7일 출발

했고, 곧이어 5월 31일 하용조 목사 외 5명이 2차 정탐을 떠났다.

하 목사는 현지에서 아프간 정부 각료들과 만난 뒤 단기, 중기, 장기 전략에 따른 계획을 논의했고, KOICA 초청으로 한국에 들어온 각료들과도 논의를 지속했다. 이후 장기지원계획에 따라 학교와 보건소 건립, 마을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동서문화개발교류회(ECC)'를 7월 30일 설립했다. 이를 위해 비전헌금과 아프간 특별헌금 2만1천 달러가 조성되어 8월말 구호자금과 의자, 피아노, 강대상 등을 아프간과 이웃 파키스탄 교회로 보냈다. 이외에도 아프간을 돕기 위한 방법이 전방위적으로 모색되었다. ECC에 대한 위상도 높아졌다. 12월 ECC는 KOICA의 아프간 지원 사역비 3천300만 원을 배정받았고, 2003년 1월에는 현지 NGO로 등록해 본격적인 지원 사역에 뛰어들었다. 2003년 4월 12일에는 ECC 사역을 위해 손정래 장로와 선교사들이 아프간으로 떠났다.

이후 농촌마을개발, 의료사역, 문화센터를 통한 문화사역, 컴퓨터 교육, 거리 학교 사역, 심장병 어린이 수술, 프레스센터 지원 사역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점차 늘어나는 사역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아프간한인교회가 탄생했다. 또한 ECC가 차세대 리더 양육을 위해 건립을 추진했던 와지르굴샤이드 초등학교가 2005년 3월 6일 완공됐다. 학교는 700여 명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학생들에게는 노트, 스케치북, 연필



등 학용품이 전달됐다.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영어와 컴퓨터 교사를 파견하고 컴퓨터, 도서실, 양호실을 갖출 수 있도록 추가 도움도 약속했다.

2006년 7월, 온누리 대학 청년부는 여름 아웃리치를 아프간에 집중했다. 힘겨운 환경과 불안정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200여 명의 젊은이들은 카불대 IT교육, 하꿈마 마을 봉사, 유치원교사 교육, 아트센터 교육, 의료 사역, CGNTV 위성안테나 설치 등으로 아프간 재건을 위한 길을 닦았다. 하지만 다음해인 2007년, 샘물교회 봉사단 23명이 탈레반에 피랍을 당한 사건 직후 현지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후 외교통상부가 해외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아프간에 파견된 장단기 사역자들이 모두 철수했다. ECC도 그해 8월에 한국으로 철수하면서 현재 아프간 관련 사역은 일시 중단되었다. 하지만 아프간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임이 이어지고 있다.

7. 이라크 선교

2003년 3월 20일,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공습이 개시된 직후 세간에는 이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중동 지역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온 온누리교회로서는, 그러한 논쟁을 떠나 전쟁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 되었다.

온누리교회의 이라크 선교는 김사무엘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하용조 목사를 찾아가 하나님께서 이라크로 갈 것을 명령했다며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에젤선교회가 이라크를 위한 바자를 열면서 본격적으로 성도들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선교정탐과 대민봉사, 의료 사역을 위한 첫 아웃리치팀이 구성돼 나시리아와 바스라 일대를 다녀왔다(2003년 7월 21일-8월 2일). 아웃리치팀은 이라크의 기독교 현황과 함께, 기독교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 신학교 건립과 외국교회들의 교회

설립 시도가 앞 다투어 진행되는 중임을 보고했다.

김사무엘 선교사는 요르단 암만에서 수단, 이집트, 이라크 등 아랍계 목사들을 대상으로 교회성장세미나를 인도했다. 그리고 한인교회 개척과 아랍인 목회자 훈련원 건립이라는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다. 때마침 현지 장로교회에서 장소를 빌려주고 한인 단체에서 개척을 지원해 10월 10일 이라크한인연합교회 첫 예배를 드렸다. 이어서 두 번째 교회 개척을 위한 북부 모술 지역 정탐여행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라크 선교를 진두지휘하던 김사무엘 선교사는 건강 이상으로 11월 서울로 잠시 귀국했다가 혈액암을 진단받았다. 미국에서 급히 수술하고 깨었을 때 "이곳이 바그다드냐?"고 몇 번씩이나 확인할만큼 그의 머릿속은 이라크로 가득차 있었다. 그러나 결국 김사무엘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이후 온누리의 이라크 선교는 일대 전환점을 맞았다.

이라크 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사역자 9명이 요르단 암만으로 피신하면서 모든 사역이 중단됐다. 사역팀과 국내기도 모임은 이라크를 위한 중보기도를 계속했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라크한인연합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무역회사 직원 김선일 형제가 2004년 6월 22일 피랍돼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후 모든 사역팀이 이라크에서 철수, 현재 이라크 선교는 일시 중

단되었다. 하지만 현지 교회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뿐 아니라 무릎 선교로 그 땅을 섬기고 있다.

이라크 선교세미나

“예언이 성취될 것”

“이라크(앗수르)와 이집트(애굽), 이스라엘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 19장 23절의 예언이 곧 성취될 것입니다.”

2009년 4월 7일 서빙고 순형홀에서는 이라크 선교세미나가 열렸다. 이라크 개척 초기부터 함께 한 A선교사는 이라크에 아직 그루터기가 남아 있으며, 1,300여 년 전 당나라까지 선교사를 보낼 정도로 번성한 기독교 국가였다가 이슬람의 침입으로 교회가 무너져 내린 이라크가



다시 회복의 때를 맞이하고 있다는 소망을 전했다.

A선교사에 따르면 온누리교회는 이라크 전쟁 이후 C국을 중심으로 △올리브 마운틴 컨퍼런스(2005년) △에젤 이라크 목회자 컨퍼런스(2006년) △OMC에 이라크 목회자 초청 △횃불트리니티를 통한 이라크 선교인재 양성 등 중단 없는 이라크 선교를 펼쳐왔다. 또한 온누리교회는 향후 △현지인 선교사 파송 △한인연합교회 재개척 △이라크 신학교 및 현지인 교회 개척 지원 △NGO 사역(고아원, 학교사역, 여성사역) △아웃리치 등 인적 · 영적 지원 등 적극적인 선교를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강연에서 B전도사(횃불트리니티 재학)는 이라크에 불고 있는 부흥의 바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눴다. 그는 "내가 사역 중인 바그다드 교회는 이슬람을 배경으로 한 어린이들이 매주 400여 명이 모여들어 이라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이라크 내 교회의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전하고, 한국교회가 이라크를 위해 더욱 기도와 헌신으로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B전도사 부부를 위해 안수기도하고, 이라크의 부흥을 위해 눈물로 중보했다.

온누리신문 743호(2009. 4. 12.)

8. 일본 선교

한국의 사마리아 일본. 온누리교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깊은 민족적 감정의 골을 넘어 창립 초기부터 일본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왔다.

온누리교회는 창립예배를 드린지 3개월 후인 1986년 1월 5일, 변재창 선교사를 일본으로 파송하면서 일본 선교의 깃발을 올렸다. 그리고 1989년 일본 선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일본 어린이들을 초청해 토요학교를 시작한 것이다. 이 토요학교는 일본인들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교회 인근 동부이촌동 지역에서 호응을 얻었다. 자연스럽게 어른들도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들을 위한 예배가 필요해졌다. 그렇게 그 해 10월 일본어예배가 시작되었다. 2천/1만 비전이 선포된 1994년에는 온누리교회의 첫 장로 선교사인 조성록 선교사가 일본으로 파송됐다. 조성록 선교사는 그 해 6월 12일 야치요 온누리교

회의 전신인 오와타신덴(大和田新田)그리스도교회에서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에 앞서 1994년 2월에는 조을희 선교사를 파송했다. 2002년 11월 27일부터 2박 3일 동안 일본 하코네에서는 '일본온누리공동체수련회'가 열렸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일본교회 리더십, 일본인 성도가 한 자리에 모인 이 수련회에서 리더십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헌신했다.

이 자리에서 하용조 목사는 일본을 향한 비전을 선포했다. "저는 일본교회가 일어나 걷고 뛰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본 사회를 뒤집을 것을 믿습니다. 일본의 수많은 파친코 네온사인 불빛이 모두 십자가의 붉은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일본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본 선교는 하용조 목사의 안식년과 깊은 관련이 있다. 1차 안식년을 떠난 1990년에 토요학교, 일본어예배가 시작되었고, 간암 수술로 인한 2차 안식년(2001년)에는 일본 현지에 비전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다. 하용조 목사는 치료를

일본 온누리비전교회 개척 일지

- **1994년 6월 12일** 야치요 온누리교회
- **2000년 4월 23일** 오사카 온누리교회
- **2001년 4월 7일** 동경 온누리교회
- **2001년 10월 27일** 우에다 온누리교회
- **2003년 6월 10일**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 **2008년 5월 15일** 나고야 온누리교회
- **2012년 5월 6일** 교토 온누리교회

위해 일본에 머물면서 교회 개척에 힘을 쏟았다. 1994년 야치요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2000년에는 오사카 온누리교회, 2001년에는 동경과 우에다 온누리교회가 창립예배를 드렸고, 2003년 요코하마, 2006년 나고야, 2012년 교토 온누리교회가 문을 열면서 일본에는 총 7개의 비전교회가 세워졌다.



9. 일본 부흥의 불길 '러브소나타'

2007년,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를 맞아 온누리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 '40일 특별새벽부흥집회'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하용조 목사가 강단에 올라 말씀을 선포하고, 연인원 50만 명이 성령체험을 하면서 부흥에 대한 열망과 갈급함이 온누리교회에 가득 넘쳤다. 이때 온누리교회는 일본을 주목했다. 2006년 10월, 일본 CGNTV 개국때 일본교회들의 부흥에 대한 갈망이 온누리교회에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러브소나타' 일본 열도 강타

일본인을 위한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는 당시 일본에 한류열풍을 일으킨 '겨울연가'(일본에서는 '겨울소나타'로 방송)에 편승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리라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당시 온누리교회는 열린예배, 맞춤전도집회, 온누리축제 등을 진행하면서 문화전도집회를 진행할 수 있는 노하우가 쌓여 있었고, 일본 CGNTV는 일본 교회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러브소나타'는 조금씩 구체화 되었다.

일본 요도바시교회의 미네노 다츠히로 목사가 한국을 방문해 하용조 목사와 비전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러브소나타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첫 집회가 열렸던 오키나와와 후쿠오카 교회가 금식하며 무릎을 꿇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일본어 통역과 중보기도 등으로 섬길 자비량 봉사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일본 현지에서는 '이런 대형집회가 가능한가?', '연합사역을 할 수 있

을까?'하는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으로 다가가자 서서히 모든 장애물이 하나씩 걷어지기 시작했다. 오키나와와 후쿠오카 현지 교회는 집회를 준비하면서 복음파, 성령파, 장로교, 개신교, 성공회 등 일본의 150여 개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연합하기 시작했고, 후쿠오카에서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연합사역이 이뤄졌다.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부흥에 대한 갈망으로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집회를 준비하면서 가깝고도 먼 나라였던 한국과 일본이 서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에서 450여 명의 성도들이 자비량으로 참석해 새벽부터 집회를 준비했고, 집회를 마치고 일본인들이 귀가할 때까지 끝까지 섬기는 모습에 일본교회 성도들과 참석자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갈수록 풍성해진 러브소나타

오사카부터는 불신자들을 위한 '문화전도집회'와 함께 일본목회자와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교회 본질과 사역을 소개하는 '교회 부흥세미나'도 함께 진행되었다. 오사카 러브소나타는 일본에서는 소위 '황금연휴'라 불리는 기간에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열린교회 부흥세미나에 2,300여 명, 문화전도집회에는 4,8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지 일본 목회자들은 이 기적적인 인원이

모였다는 것에 모두 놀라워했다. 2만 명 집회라는 하나님의 대규모 프로젝트, 동경 러브소나타는 기적의 절정이었다. 한국인 5,007명, 일본인 15,554명이 동경 사이타마 슈퍼아레나를 가득 메웠다. 일본인 참가자 중 8,000명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다.

동경 러브소나타는 '한일리더십포럼' 발족이라는 또 하나의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 한국 280명, 일본 520명, 대만 28명 총 828명의 리더십들은 프린스파크 도쿄타워호텔에 모여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동경 러브소나타로 인해 일본 전역에 러브소나타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삿포로부터는 일본 현지 교회의 협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일어났다. 삿포로 주변 170개 교회 중 71개 교회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 연합했고, 문화전도집회가 열린 후생연금회관의 총 좌석은 2,300석이었는데 한국인을 포함해 3,102명이 몰려왔다.

일본 내에서 소외된 지역, 문화 혜택이 척박한 지역, 연합사역이 어려운 지역인 센다이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 지역적 특성상 1년 내내 홍보해도 센다이에서는 500명이 모이기 어렵다던 기존의 통념을 깨고 선플라자에서 진행된 문화전도집회에 총 2,260명이 참석했고, 이 중 일본인이 1,830명이었다. 81명이 결신하고 139명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40일 특별새벽부흥집회로 시작된 2007년은 일본에서 '러브소나타'로 하나님의 부흥을 노래하며 이렇게 막을 내렸다.

2008년 첫 러브소나타는 반세기전 원폭으로 폐허가 된 히로시마 땅


Love Sonata


Reebok
CLASSIC
EOS DIGITAL



에서 울려 퍼졌다. 특히 히로시마 러브소나타는 본부 중심이 아닌 온누리교회 캠퍼스가 섬김의 주축이 된 첫 러브소나타였다. 한국교회와 일본교회 성도들은 교제하고 섬기며 하나가 되어 국경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다.

일본에 복음의 문을 연 항구도시 요코하마를 통해 부흥의 물결이 요코하마를 뒤덮었다. 당시 '일본선교 150주년 기념대회'도 국립대홀에서 열 계획을 갖고 있던 일본교회는 자신감에 넘쳤다. 요코하마의 200여 개 교회가 연합해 러브소나타를 준비하며 2009년에 열릴 150주년 기념대회도 문제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요코하마 러브소나타 문화전도집회는 당초 5,000명 규모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9,000장의 초청장이 배부되었고, 4,500여 명의 전도 대상자가 접수되었다. 예상을 뛰어넘는 접수로 인해 100명 이상 참가하는 교회는 20% 정도 초청장을 반납했고, 일본 온누리 비전교회는 대부분 각 교회에서 스크린을 통해 참여했다. 문화전도집회에는 6,000여 명이 참여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아오모리는 그동안 열렸던 도시 중 가장 작은 곳이었지만 일본교회가 연합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헌금으로 행사장을 빌린 첫 집회로 기록되었다. 특히 아오모리 인근 지역인 아키타, 이와테, 하코다테 등으로 확대해 교회 연합을 모색한 첫 집회란 점도 관심을 모았다.

문화전도집회는 아오모리시 문화회관에서 믿지않는 일본인 1,440

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날 하용조 목사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원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앞으로 오라"는 부름에 100여 명이 자리를 떠나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순교와 원폭의 상처를 간직한 나가사키에서도 '일본교회의 부흥'이라는 비전에 새로운 희망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나가사키 러브소나타는 2007년 3월 오키나와 집회 이후 10번째 러브소나타여서 일본과 온누리교회 관계자들의 감회가 남달랐다. 아무런 밑그림조차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러브소나타가 2년여 동안 일본 열도를 종단하며 10번의 기적을 써 내려간 것에 감사하기 위해 11월 4일에는 나가사키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감사예배가 드려졌다. 이 자리에는 10군데 개최지 실행위원장급 리더십들이 모두 참석했고, 각 캠퍼스 담당 교역자 등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와 러브소나타 개최지 교회가 자매결연을 했는데, 서빙고가 동경을, 양재가 오사카를, 부천이 후쿠오카를, 수원이 요코하마를 각각 입양해 향후 러브소나타 이후 큐티, 일대일, 아버지학교 등으로 일본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로 했다.

2009년에는 러브소나타와 함께 '일본 기독교 선교 15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다. 러브소나타는 고베와 나고야에서 진행되었다. 1995년 한신대지진의 '상처'와 성공적인 복구 과정에서 생긴 '인간적인 자신

감'이 공존하는 고베에 서막을 올린 러브소나타에는 일본인 2,097명이 참석해 130명이 결신했다. 나고야 러브소나타는 1,550명이 결신카드를 제출, 135명이 결단하는 열매를 수확하며 일본 열도에 하나님의 향기를 짙게 흩날렸다. 일본의 최북단인 북해도에 위치한 땅 아사히카와에서도 2010년 8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러브소나타가 열렸다. 아사히카와 시민문화회관 대홀에서 펼쳐진 '러브소나타'는 소규모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1,260명의 초청 대상자가 참석했고, 이중 71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신하는 열매를 맺었다. 일본의 대표적 여류작가이자 기독문학가였던 미우라 아야코의 신앙과 문학의 배경이 되는 도시에서 열린 만큼 아사히카와 러브소나타는 한국인 참가자에게도 깊은 감동과 은혜가 넘쳤다.

하용조 목사의 소천 소식은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에 큰 슬픔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러브소나타는 계속되어야 했다. 2011년 나가노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울려 퍼졌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본을 사랑했던 하용조 목사님의 마음과 뜻을 이어가기 위해 이곳에 왔다"면서 1,660명의 참석자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이후로도 러브소나타는 ▷2012년 다카마스, 가고시마, ▷2013년 오키나와, 군마, ▷2014년 시모노세키, 오비히로, ▷2015년 교토, 오이타(예정) 등으로 이어졌다.

2007년 시작된 일본을 향한 러브소나타는 2015년 9월 현재 총 22회

가 열려 총 1,853개 교회가 협력해 59,923명 일본인 참가자를 초대했고, 그중 2,757명이 결신하는 열매를 맺었다. 무엇보다 지난 9년 동안 일본 교회가 서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고, 이들을 섬겼던 한국인 참가자 13,405명의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일본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졌다는데 의미가 있다.

꿈꾸는 대만, 부흥의 중심에 서다

2008년, '러브소나타'는 일본을 건너 대만으로 향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집회(10월 30일-11월 2일) 등 대형 집회가 연이을 정도로 전례없이 부흥에 대한 갈증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열린 대만 러브소나타는 대만교회와 성도들에게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길을 제시했다.

6월 19~20일 이틀 동안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열린 문화전도집회에는 19,603명이 참석했고, 무려 2,574명의 결신자가 나왔다. 아레나 경기장의 천장 부근 자리까지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하용조 목사의 영상 메시지,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의 설교와 차인표, 한혜진, 유승준의 간증과 공연 등에 환호성을 지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리당교회에서 6월 19~20일 열린 교회부흥세미나에는 101개 교회에서 이틀 동안 718명이 참석했다. 18일 그랜드호텔에서는 대만 크리스천CEO포럼이 정식 발족했다. 이 자

러브소나타 연혁 (2015. 9. 현재)

년도	지역	일정	장소	협력교회	참가자	결신자
일본						
2007년	오키나와	3.29	컨벤션센터	76	2,075	173
	후쿠오카	3.30	선팔레스 호텔	78	2,100	192
	오사카	5.3-4	국제회의장	208	3,700	158
	도쿄	7.23-24	사이타마 슈퍼아레나	380	15,687	339
	삿포로	10.31-11.1	후생연금회관	71	2,580	153
	센다이	11.22-23	선프라자	74	1,830	139
2008년	히로시마	4.22-23	후생연금회관	86	1,862	112
	요코하마	7.28-29	파시피코 요코하마	209	5,260	264
	아오모리	9.24-25	시문화회관	62	1,440	34
	나가사키	11.4-5	브릭홀	49	1,690	101
2009년	고베	4.14-15	고베국제회관	141	2,097	130
	나고야	11.25-26	아치현예술극장 대홀	130	2,400	139
2010년	아사히카와	8.30-31	아사히카와 시민문화회관	55	1,310	71
	니가타	3.29	니가타현민회관 대홀	56	1,683	70
2011년	나가노	11.15-16	호쿠도문화홀	69	1,660	66
2012년	다카마쓰	4.25-26	알파아나부키홀 대홀	67	1,891	113
	가고시마	11.15-16	가고시마 시민문화홀	52	1,862	130
2013년	오키나와	5.15-16	오키나와 컨벤션센터	101	2,047	122
	군마	11.13-14	베이시아문화홀 (군마현민회관)	61	1,854	34
2014년	시모노세키	5.14-15	시모노세키 시민회관	87	1,524	62
	오비히로	11.13-14	오비히로 시민문화홀	85	1,485	54
2015년	교토	4.8-9	비와코홀	87	1,889	101
합계	**협력교회 2,284개(중복 제외 1,853)**		**참가자 59,923명**	**결신자 2,757명**		
대만						
2008년	타이베이	6.19-20	타이베이 아레나		19,603	2,738

리에는 토니청(GoodTV 대표) 등 대만 리더십 600여 명과 한국 112명, 일본 53명, 싱가포르 3명, 홍콩 3명 등이 함께해 대만 포럼을 축복하고 연합을 다짐했다.

하용조 목사 일본 CGNTV 개국 메시지

일본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일본 전도 위한 주인공은 바로 '일본인'

일본 전도는 일본인이 해야 합니다. 한국 정서로 일본인들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일본을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일본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엑스트라가 되기 원합니다. 설교도, 간증도, 연출도 여러분이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아이디어와 열정과 노하우를 다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살면 아시아가 살고, 세계가 삽니다. 일본의 최고는 전 세계의 최고입니다. 과학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정상을 달립니다. 일본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신세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젊은이들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먼저 자신들의 문화를 포기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일본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돕기 원합니다. 저는 일본어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잘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감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려운 데를 잘 모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표면적인 것 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일본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하면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민족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치적 갈등도 해결될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도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대안입니다. 오늘 그런 일들을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투석을 하고 왔습니다. 1주일에 3번 투석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병원에 누워있었는데, 제 가슴은 온통 이 집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 찾아오는 선교지 다문화 가족 선교

다문화 가족들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온누리교회는 이들에게 전도의 눈을 돌렸다. 다문화가족선교야 말로 국내에서 펼치는 해외선교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의 온누리교회 다문화 가족 사역은 크게 4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제1기-긍휼 사역기(1994년~1996년) | 온누리교회 다문화 가족 사역의 기원은, 1994년 11월경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노방전도, 심방전도 등으로 알게 된 다문화 가족들의 공장과 숙소로 찾아가 함께한 일대일 제자훈련이었다. 1995년 3월 당회에서 다문화 가족사역을 '온누리미션'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온누리미션의 초기 사역은 주로 '쉘터(Shelter)를 통한 긍휼 사역'이었다. 1994년 12월에는 영등포와 군포시에 쉘터를 오픈했다.

제2기-긍휼 사역에서 예배로(1996년~1998년) | 1996년에 접어들면

서는 나라별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쉘터 중심의 사역에서 주일 예배 중심의 모임으로 사역의 성격이 바뀌었다. 1996년 5월에는 미얀마어예배위원회가 발족되었고, 1997년 1월에는 다문화 가족 열린예배가 시작됐다. 특히 열린예배 때는 주로 '친구초청잔치'를 열어 무슬림이나 불교권 소수 민족을 초대해 복음을 제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와 중보기도를 했다. 1997년 4월에는 군포쉘터에서 네팔어 예배가, 1997년 5월에는 우르드어 예배위원회가, 7월에는 파키스탄인을 위한 원당쉘터가, 12월에는 몽골어예배가 개설되었다. 이후에도 2000년 2월 이란어예배, 4월 러시아어예배, 2003년 5월 인도어예배 등이 줄을 이었고, 온누리미션 예배는 점차 모양새를 갖춰 나갔다.

제3기-예배에서 제자양육 및 선교로(1998년~2005년) | 1998년은 온누리미션이 '2천/1만 비전'에 따라 다문화 가족들의 양육과 선교사 파송에 주력하는 원년이 되었다. 각 예배별로 이뤄지던 일대일 양육과 다문화 가족 훈련학교(FDTS)를 밑거름으로 삼아, 1998년 6월부터 체계적인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했다. 네팔어, 우르드어, 몽골어 등의 일대일 교재도 번역해 순차적으로 내놓았다. 온누리미션은 사역 3년째인 1998년부터 서서히 열매를 맺었다. 한 예로 그동안 온누리미션에서 양육받은 다문화가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때문에 1999년부터는 네트워크 중심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자국으로 돌아간 다문화 가족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고, 사역하는 사람에게는 후원하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좀 더 인접한 곳에서 다문화 가족들을 품고 섬기기 위해 4층 건물의 미션센터가 다문화 가족들의 노동과 생활의 중심지인 안산의 원곡동에 2005년 12월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종교적 분위기를 최소화하고,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거나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4기-100개 나라 예배개척비전 선포(2006년~2010년) | 온누리미션에서는 안산 온누리 M센터를 중심으로 예배학교와 거리찬양축제 등을 열고 이주자선교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매주 언어별 예배와 명절연합집회를 통해 온누리미션 사역 및 미션 근로자들을 발굴해 신학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2월, 14기 TP에서 8명의 외국인 훈련생들을 배출했고, 2009년 7월 15기에서는 6명이 입학했다.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생 3명과 온누리미션 예배 사역자 3명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파키스탄, 인도, 케냐,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등 모두 5개국 출신으로, 훈련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2009년 5월부터는 국내 다문화 가족 선교의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주자 선교학교(이하 엠미션 M-Mission)'가 시작되었다. 서빙고와 양재에서 2010년 9월 현재 엠미션 4기가 진행 중이다. 평신도 선교훈련과정인 '와이미션'수료자들이 국내에서 선교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선교사 파송 예정자에게는 선교현장을 미리 경험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엠미션에서는 이주자 선교

이론을 살펴보고 안산 M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주자 선교 현장을 나눈다.

온누리미션은 2009년 8월 15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한국 이주자 선교 엑스포'에서 그동안의 사역을 함께 나눴다. 이 행사에는 100개 국 외국인 7,000여 명과 한국인 3,000여 명 등 1만여 명이 참가했는데, 온누리미션은 이주자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 네트워크(이선한네트워크)를 구축했다. 2009년 12월 19일에는 이주자 선교를 위한 후원의 밤 '땅끝 여행 축제'가 열렸다. 이날 '100개 나라 예배 개척'의 비전을 선포했으며, 참석자들은 '국내선교사로서 이주자 선교에 동참할 것'을 결단했다.



11. 온누리 순교 열전

2000년 새해 첫날, 온누리교회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1993년 학원 선교와 제과제빵 사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고 중국으로 파송된 박모세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박모세 선교사는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해 온누리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다. 갑작스런 그의 죽음에 가족은 물론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순교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꼈다.

2004년 2월 21일, 온누리교회는 또 다른 순교자로 인해 슬픔에 젖었다. 김사무엘 선교사가 박모세 선교사의 뒤를 따랐기 때문이었다. 김사무엘 선교사는 2003년 9월 18일 전쟁의 상처로 아파하던 이라크 땅에 들어가 그 해 10월 10일, '이라크한인연합교회'를 세웠다. 김사무엘 선교사는 이 교회에 머물며 이라크 한인들과 현지인들을 돌보는 등 이

라크 개척 사역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12월 한국으로 돌아와 검사를 받았는데, 혈액암 진단을 받고 곧바로 미국 조지타운병원에 입원해 투병했다. 수술 후에도 김사무엘 선교사는 바그다드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늘 바그다드를 염려했지만, 생전 소망대로 빌립보서 1장 20~21절 말씀으로 천국환송예배를 드려야 했다. 이라크로 떠나기 전에 팀원들과 여행자 보험을 들면서 "만약 우리 중 누군가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그 돈으로 선교사 100명을 다시 파송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김사무엘 선교사의 뜨거운 선교에 대한 열정은 온누리교회와 일본, 이라크, 중국 등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었다.

1993년부터 1995년 6월까지 중국선교사로 언어 훈련과 교회 지도자 훈련을 해온 김사무엘 선교사는 1995년 7월에 온누리교회 선교 목사로 부임해 온누리교회의 사역을 총괄했다. 1983년 C&MA교단으로부터 일본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그 후 동경에서 시부야교회를 개척했고, 이후로도 요시카와(吉川)복음교회(1986년), 이치카와(市川)복음교회(1988년), 센겐다이교회(1989년), 나리타(成田)복음교회(1990년), 야치요(八千代)복음교회(1990년), 지푸(岐阜)얼라이언스교회(1991년) 등을 개척했다. 온누리교회에서도 교회 개척은 계속되어 온누리교회가 일본에 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었다.

국내 선교지에서도 첫 순교자가 생겼다. 2004년 8월, 이태화 형제가

경남 하동 화개제일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아웃리치팀과 함께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순교했다. 2005년 6월에는 중국에서 사역하던 권소망 선교사가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곁으로 떠났다. 권소망 선교사가 치료를 받던 군인병원 복도에서는 하루 세 번 예배를 드렸고,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찾아온 중국 현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같은 달, 창조과학회 1호 선교사이자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된 전광호 선교사의 소천 소식도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에서 학원선교를 하다 지병 치료차 들어왔는데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인도네시아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창조과학회의 요청으로 육신의 안녕을 과감히 뒤로했던 그였기에 성도들의 안타까움이 더했다.

온누리 순교열전에 A국 민족을 섬기던 최보라 선교사의 이름이 더해졌다. 2006년 10월 11일 온누리교회 여섯 번째 순교자로 이름을 올린 최보라 선교사는 남편인 박주만 선교사와 1999년 온누리 파송 선교사로 A국을 향해 떠났다. 최 선교사 부부는 드러내놓고 선교할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들을 양육했는데, 선교의 문이 점점 닫혀가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로부터 늘 감시당하면서 운신의 폭이 좁혀졌으나 오히려 사역에는 더 힘을 얻어 교회는 부흥을 더했다. 그러던 중, 허리 통증을 느껴 한국으로 들어왔

고, 검사결과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아 7개월 동안 투병하다 향년 36세에 주님 품에 안겼다. 소천하기 며칠 전 최보라 선교사는 천국을 보고 와서 "사람이 지은 곳이 아니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고백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1999년 11월 몽골선교를 준비하다 소천한 심재학 형제의 뒤를 이어 박관태 형제가 선교사로 헌신해 몽골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진리처럼 그들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 밀알이 되고 있다.



“당신의 뒤 따르겠습니다”

하용조 목사

김사무엘 선교사님, 그분은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능력도 뛰어나고 성격도 강직하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 성령 세례를 받자 바로 주변을 정리한 후 41세 때 신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학교 졸업 후 목회를 시작하지만 그 분은 졸업하던 날, 하나님께서 주신 ‘7개 일본교회 개척’이란 비전에 순종하여 곧바로 선교지로 뛰어드셨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이지만, ‘Acts29’는 그분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일본으로 달려간 그분은 시부야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7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제가 시부야교회에 초청을 받아 갔을 때, 일본 현지인 300여 명이 모여 경배와 찬양을 했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하면 모두 5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이 정도면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목회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 선교사님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일본 사역을 접고 북한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북한, 중국으로 가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본을 떠나 온누리교회 선교팀을 이끌고 북한으로, 중국으로 다니며 선교지경을 넓혀 나가셨습니다.

Acts29 비전 꽃피운 밑거름

이라크 전쟁이 끝난 직후, 선교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라크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보내 주십시오."

그분은 청년들과 팀이 되어 이라크로 떠나셨고 곧 NGO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이라크는 빈발하는 테러로 한국대사관에서 교민들에게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라크로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귀국하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혈액 암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워싱턴 소재 조지타운대학병원 2차 정밀 검사에서도 결과가 같아 곧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골수 이식 수술을 받은 후 두 달 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저는 고인을 추억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9년 동안 김사무엘 선교사님은 안식년에도 아랑곳 않고 생명을 걸고 계속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복음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무조건 뛰어드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나셔서 저와 교회는 큰 슬픔을 느낍니다. 선교 사역도 많은 차질을 빚게 돼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영광 중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순교는 Acts29 비전을 꽃피우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온누리 3만 성도는 그분을 소중히 가슴에 품고 '2천/1만 비전'을 꽃피우기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그분을 좇아 금 면류관을 바라며 죽기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

온누리신문 477호(2004. 2. 29.)

12. 투병 중에 더욱 커진 선교의 비전

하용조 목사의 투병 생활과 안식년은 온누리교회가 한층 성숙해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영국에 있을 때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의 꿈을 꾸며 하 목사는 12가정과 함께 온누리교회의 밑그림을 그렸다. 1992년 1월 하와이로 안식년을 다녀온 후에는 온누리교회에 성령사역이 선포되었고, 각종 성령집회와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헌신자훈련학교 등이 시작됐다. 1999년 말 정기건강검진 중 암을 발견한 하 목사는 2000년 3월말 수술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 해 5월 디지털목회를 선포하며 온누리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누리인터넷방송을 통해 나누기 시작했다. 2001년 1월, 2차 간암 수술을 받은 후 안식을 위해 방문한 일본에서 하 목사는 4월 7일 동경 온누리교회를 개척했다. 간암이 10개월 만에 재발하자 하 목사와 모든 성도가 기도에 힘쓰게 되었고, 하 목사는 기도중에 선교사로서 원

했던 것을 기억하며 안식년을 선교사로서 보내기로 결심한다. 하 목사는 일본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일본에 교회를 세울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일본에서 선교사로서의 삶, 개척교회 목회자로서의 삶을 새로 시작했다.

2001년 8월, 하 목사는 세 번째 수술을 받으면서도 10월 27일 우에다 온누리교회를 개척했다. 그리고 2004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수술을 받은 하 목사는 Acts29 비전과 CGNTV의 꿈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하 목사는 "수술을 받을수록 비전이 더욱 강해지고 분명해진다"면서 "누구도 죽기는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걸고 해야 하며, Acts29 비전도, 목회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한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온누리교회의 기도가 활화산이 되고 Acts29 비전을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성도를 축복했다. 2008년 4월, 하 목사는 여섯 번째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후에도 일본에 머무르면서 계속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노래 '러브소나타' 집회를 준비했다.

하 목사는 "아파서 잠을 못 잘 때는 새벽 2~3시에 일어나 아내와 함께 막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라는 찬송가를 부릅니다"라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을 기도로 견디고 있음을 고백했다. 그런 중에도 나고야 · 고베 · 히로시마 · 나가사키 러브소나타 · 일본선교 150주년 기념 요코하마집회, 10월 성령파 집회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온누리가 살아있는 교회, 화해와 일치가 이뤄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속될 것을 선포했다.

2009년 11월, 일곱 번째 수술을 받은 하 목사는 창립 초기의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말씀과 성령'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말씀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바로 그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다. 2010년 봄에 투석을 하던 중 가슴에 통증을 느낀 하 목사는 긴급하게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심장 혈관이 좁아져 인공조형물(심혈관용 스텐드)를 삽입하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계속 투석을 받고 병마와 싸우면서도 지속적으로 한국에 있는 12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Acts29 비전 빌리지를 통한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 비전도 확대해 나갈 것을 선포했다.

병치레를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아플 때마다 교회는 성장했다.
이상하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영적인 충만을 경험한다.

나는 20대부터 병을 짊어지고 살아왔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대학 입학을 앞에 두고 장티푸스로 입원하여 격리 수용이 된 적도 있었다. 생각해 보면 무려 40년 동안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보낸 해가 없었다. 질병은 인생의 동반자와 같다.

하나님은 왜 이 병들을 허락하셨을까? 그 원인을 요즘에야 깨닫는다. 그것은 '오늘날의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병이라는 고난의 풀무 불에 집어넣어 나를 연단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은 내가 교만할 것을 아시고 바울의 가시처럼 질병을 꽂아 놓으셨다. 까불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병이 도지면 나는 꼼짝 못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병 때문에 설교를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병과 설교는 언제나 동행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병을 통하여 나를 붙잡아 주신 놀라운 방법이다.

그래서 내게 아픈 것은 아프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참 이상하다. 나는 설교하면 살아난다.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살아난다. 그런데

설교를 안 하면 기가 팍 죽는다. 기운을 못 차린다. 그래서 나는 살기 위해서 설교한다. 밥을 먹으면 살듯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죽을 때까지 설교할 것이다.

고혈압도 있다. 지난번에는 심장에 세 개나 브리지를 꽂았다. 눈에도 레이저 치료를 많이 받았다. 혈관에 석회석이 많이 끼어 있다고 한다. 머리카락도 다 빠졌다.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 누군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입니다."

맞는 말이다. 생각해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도, 잘난 구석도 하나 없다. 이런 몸을 가졌지만 끊임없이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 또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생각해 보니, 병이 나를 어쩌지 못했다. 고난이 나를 어쩌지 못했다. 사탄의 공격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했다. 사탄의 공격이 와도, 병이 와도, 환경이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고난과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상하게 파도를 넘듯이, 산을 넘듯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는다. 병치레를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아플 때마다 교회는 성장했다. 이상하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영적인 충만을 경험한다. 내 마음에는 늘 아픈 사람들이 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나의 가족처럼, 동창생처럼 느껴진다.

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아픈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 온누리교회가 화려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매일 병과 투쟁하는 속에서 태어난 것이다. 언제나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으려 하는 것도 이런 나의 경험과 연관이 있다.

하용조 목사 『사도행전의 교회를 꿈꾼다』에서

다섯 번째 암수술을 끝낸 하용조 목사와 함께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라"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유리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간질환, 당뇨, 혈압으로 30년씩 앓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합병증이 생겨 신장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라"(고후 12:10)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회할 건강이나 사역할 건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란노, 온누리교회, Acts29 사역 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돌이켜보면 대학생 때는 폐병을 앓았고, 연예인교회를 섬길 때는 간질환과 당뇨를 앓았습니다. 15년 전에 간경화 진단을, 4년 전에 간암 진단을 받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루도 건강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아픔이 온누리교회와 Acts29 비전을 낳는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수술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픈 사람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저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환경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꿈을 막지 못합니다. 약하고 힘들고 수술을 받을수록 비전은 커지고 더욱 강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전을 주셨습니다. Acts29와 인공위성을 완성할 수 있는 비전입니다. 이런 비전들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저희 온누리교회 리더십과 성도, 선교지 교회들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멀리 보이던 이런 비전이 수술을 통해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첫째, 7개 인공위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수술이 10월 첫째 주일에 비전헌금을 작정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김사무엘 목사님, 김선일 형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걸고 해야 합니다. Acts29도,



목회도 그래야 합니다. 이 마음이 성도들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픔으로 성도들이 새벽기도회도 하고, 저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Acts29를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둘째, 선교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다 어렵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생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라고 우리 온누리교회를 크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온누리교회가 사람을 키울 수 있도록 한동대학교, 전주대학교,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을 엮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로 어려운 수술을 잘 마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저 때문에 기도하셨지만, 이제는 온누리교회의 기도가 활화산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cts29 비전을 이루어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나약해 지지 말고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저와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누리신문 496호(2004.7.11.)

4

긍휼을 베푸는 교회

1. 가시밭에 날린 '예수향기회'

'예수향기회'는 7년여 동안 2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의 섬김으로 40여 만 명의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사랑공동체였다.

여느 사역처럼 예수향기회의 탄생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자체였다. 1989년 하용조 목사와 장로 몇 사람이 미국 맨해튼을 방문했을 때 천주교 수사들이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았다. 귀국 후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하던중 한 성도의 헌금으로 '예수향기회'가 탄생했고, 몇 년 뒤 한 부부의 헌신으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독지가의 헌금으로 1994년 8월 17일 예수향기회 버스가 마련되었고, 기타 필요한 기구와 재료들이 기부금을 통해 채워졌다. 자원봉사자들의 지원도 쇄도했다. 1994년 8월 28일부터 노인 20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장소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효창공원으로

택했다.

첫날, "교회 밥은 절대 안먹겠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노인들이 상당수 있었지만 봉사자들은 "저희는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밥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며 설득했고, 이후 몇 개월 동안 말씀 없이 식사만 대접했다. 사역 초기 이른바 '컨테이너 사건'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자되고 있다. 1994년 11월 중순쯤, 밥을 먹기 위해 노인들 200여 명이 추운 날씨에도 줄을 서 있었다.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던 당시 진용환 집사는 용산구청장을 찾아가 컨테이너를 놓게 해 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그러나 구청장은 불가 입장이었다. 며칠 후 진 집사는 새벽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을 받고 시장실로 가서 눈물로 호소했다. 그날 저녁, 구청장이 직접 찾아와 컨테이너 설치를 허가했다.

예수향기회의 활약은 단순히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았다. 1995년 6월 30일 일어난 삼풍백화점 참사가 그 대표적인 예다. 당시 희생자 중에는 온누리 성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무려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당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삼풍백화점 참상이 '부패공화국'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타락한 세상에 기인한 것임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하지만 온누리교회는 밖으로 향한 손가락질을 거두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고자 하는 뜻에 먼저 초점을 맞췄다.

온누리교회는 아비규환인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당시 구조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 중의 하나가 구조대원들의 식사 문제였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온누리교회에 협조 요청을 해왔고, 이에 따라 온누리교회는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 동안을 '삼풍사고봉사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자원봉사자 모집에 나섰다. 이 기간 동안 230여 명의 성도가 2개의 대형 천막 아래에서 2천여 명분의 식사와 간식, 야식 등 하루 다섯 끼를 24시간 제공했다. 이날 온누리교회의 사역을 지켜본 현장 소장은 "그동안 이곳에서 자원봉사 하는 종교 단체 중, 개신교의 활동이 미진한 것 같아 무척 아쉬웠는데, 온누리교회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을 지켜보니 답답한 가슴이 풀리는 것 같다"며 봉사자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성수대교, 지하철 가스폭발사고 등을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다가올 재난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96년 6월 29일 한국기독교재난구조협의회를 창설했다. 협의회에는 온누리교회를 비롯해 사랑의교회, 지구촌교회, 두레교회 등 20개 교회와 국제기아대책기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남북나눔운동, 치과의료선교회, 장미회, 이웃사랑회 등 24개 단체가 동참했다. 창설예배에서 하용조 목사는 로마서 8장 18-25절을 본문으로 "한국 기독교의 많은 운동들이 내실을 기할 때가 됐다"면서 "분열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예수향기회가 모태가 되어 1999년 8월 온누리복지재단이 탄생했다. 같은 해 12월 청소년을 위한 쉼터 하나로와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번동 코이노니아 개원을 시작으로 온누리복지재단은 2002년 4월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을 개원하고, 2005년 8월에는 중풍, 치매 노인들을 위한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2006년 중증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을 위한 양지 온누리요양센터를 개원했다. 또한 2009년에는 청파노인복지센터를 개원하면서 용산구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온누리복지재단은 노인을 섬기는 활동 외에도 청소년 및 장애인을 섬기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이 외에도 온누리희망밥차,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자연치료센터 및 농업실습지, 온누리 가족 나무동산 등을 운영하며 온누리에 예수님의 향기를 흩날리고 있다.


10월 28일(목)
10:30~11:30 모두 함께 즐겨요(공연관람)
13:00~16:30 도전! 게임의 제왕
15:00~16:30 ending – 미8군 군악대 연구
나눔




복날 찜통 더위를 날리자
7월 19일(월) 오후 1:00 ▸장소 : 2층 으뜸마당 ▸주최 :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후원

2. 세상과 함께 울고 웃은 온누리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 겨울은 끝도 없이 얼어붙고 있었다. 하용조 목사는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의 붉은 등을 켜고 계신다며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주일강단에서 외쳤다. "이번 일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에 온누리 성도들은 나라 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결단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운동을 펼쳤다.

첫째, 나라 살리기 생활강령이 담긴 전단지를 만들어 이웃에게 나눠주고 회개와 절약, 그리고 작은 일(사치품과 수입품 쓰지 않기,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말 쓰지 않기 등)부터 솔선수범 하기.

둘째, 매일 30분씩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와 군, 학생, 노동자,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 그리고 북한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

셋째, 이런 내용을 1주일에 한 번씩 편지로 써서 주변 사람부터 전해 이 운동에 동참하게 하고 스스로 위로와 힘을 얻어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 전하기.

1998년도가 되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나라 살리는 일에 발 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온누리교회도 더욱 구체적으로 근검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생활 강령을 발표했고,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던 '금 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 아래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운동'은 교회 내에서 '열린나눔장터'를 여는 밑거름이 되었다. 성도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문을 연 '열린나눔장터'는 1998년 3월 8일 본관 지하 1층에서 개장예배를 드렸는데, 개장 이틀 만에 160여 만 원의 수익금을 올릴 만큼 높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4월에는 열린나눔장터의 주관으로 IMF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고통분담바자'가 열렸다.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6월에 곧바로 두 번째 바자가 열렸다. 또한 물고기 모양의 저금통을 통해 기금을 모으는 '오병이어 운동'이 온누리교회를 비롯해 남서울은혜교회, 사랑의교회, 지구촌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함이었다.

온누리교회는 이 외에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새출발비전대학'(VNSC; Vision & New Start College)을 개강했다. 교수들 중심으로 꾸려진 강사진이 여러 분야의 강의를 통해 남성들의 재취업 및 창업을

돕는다는 취지였다.

재난의 현장 속으로

각종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와 함께 슬퍼하며 복구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온누리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진행되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 이미 구제와 봉사에 적극 나섰던 온누리교회는, 태풍 피해로 해마다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를 도우면서 재난구조 시스템을 정착시켜갔다. 2002년 8월, 강원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는 하루 870㎜의 폭우를 쏟아 부어 엄청난 인명 · 재산 피해를 냈다. 온누리교회는 1억 원의 헌금을 전달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수재민들을 위한 물품을 모아 피해 복구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삼척시 미로면에 베이스캠프를 차린 복구팀은 수재민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밭농사 돕기, 마을 재건, 지역 교회 건축, 의료 봉사 등 본격적인 구제 활동을 벌였다. 생필품과 김치, 서적 등을 보급하기도 했다.

청년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복음화율 5%의 미로면을 2003년 아웃리치 지역으로 선정하고 장기적인 봉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다. 대청연합은 2002년과 2003년에 이어진 삼척, 문경, 삼천포 아웃리치로 교회에 대한 불신자들의 인식 변화를 꾀한 동시에 지역 목회자, 사모, 사역자들의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다. 2003년 2월 말 대구 지하철 참사로 전국이 슬픔에 잠겼을 때도 온누리는 함께 울었다. 온누리 청년과 교역자들은 매캐한 연기가 남아있는 대구 중앙로역 사고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들의 손을 부여잡고 함께 눈물 흘리며 중보기도를 드렸다. 또한 예배와 음식 바자에서 모은 헌금을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2004년 4월 22일 북한 용천에서 열차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의류, 침구류, 음식류, 의약품 등을 모집했고 구호용품 마련을 위해 특별헌금을 조성했다. 수집한 물품과 밀가루 120톤은 국제기아대책기구를 통해 북한에 전달됐다.

2004년 연말에는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근해에서 '쓰나미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몇 해에 걸친 수해 복구 작업을 통해 단련된 온누리교

회는 이전보다 발빠르게 재난구호팀을 조직해 스리랑카로 파송했다. 1차구호팀은 암파라 지역에서 방역을 중점으로 사역을 펼쳤다. 의료진이 합류한 2차구호팀은 암파라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바티콜로아 지역에서 방역과 의료사역을 병행했다. 구호는 3차, 4차로 이어졌고 북부 반군의 거점 지역에서도 사역을 진행해 현지 공무원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내용의 서신을 받기도 했다.

2005년 1월 6일에는 '사랑의 줄잇기' 서빙고점이 문을 열었다. 2006년 4월에는 탈북자들을 섬기기 위한 '사랑의 줄잇기' 양재점을 오픈했다. 사랑의 줄잇기를 통한 수익금은 다문화 가족 사역, 장애우 사역, 북한 돕기 등에 사용되고 있다.

3. IMF 파고를 넘은 남성 대각성 운동

1997년 12월 3일 한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며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이날, 그동안 범한 죄를 회개하며 남성 대각성 운동을 펼쳤다. 12월 14일, 하용조 목사는 "이 땅은 6.25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광범위하고도 총체적인 회개 운동과 도덕적인 재무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이므로 새롭게 고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를 갖자"고 당부했다. 이에 그동안 영적 수면 상태에 빠져 있던 남성들이 순결과 성결의 삶을 결단하며 일어나기 시작했다. 1998년 새해가 밝자마자 '남성들을 위한 영적대각성 집회'가 열렸다. 연일 2천여 명의 남성들이 모여 들었다.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는 참석자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을 권면하고 "이 집회가 한국 남성들의 눈물샘이 터지는 출발점이 되길 원한다"고 했다. 둘째 날에는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가 '소망을 담은 언어, 악의 소득까지 미워하는 마음, 바른 말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지라고 당부했다. 마지막 날에 하용조 목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움켜잡고 가정을 돌아보는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남성이 될 것"을 권면했다.

3월 9일부터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남성제자리찾기 모임'을 갖게 되었고,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온가족 한마당', '10대 자녀와 아버지의 만남' 행사를 열고 삼정운동(정결, 정직, 정의)을 펼치는 등 남성 회복 운동은 달을 거듭하며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그러다가 온누리 역사에 획을 긋는 중요한 운동으로 골격을 갖추게 된다. 바로 아버지학교다.

아버지학교는 이미 1995년 10월에 서울본부를 창설해 운동을 펼쳐 왔지만, 국가 경제의 침몰과 함께 무너진 이 땅의 수많은 아버지들에게 치유와 소망의 빛을 던지며 부상했다. 이론이 아닌 삶의 실천 운동으로 탈바꿈을 시도한 아버지학교는, 1998년 대구 아웃리치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KBS의 '추적 60분'에서 이 시대 아버지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소개되면서 비기독교인들도 적극 참여하는 범사회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다. 아버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성경적인 남성상, 가정의 목자, 교회의 지도자, 사회의 리더'로서의 사명을 밝혔다. IMF가 터진 직후 "위기는 곧 기회요, 축복이 될 것"이라고 한 하용조 목사의 선포는 남성 대각성 운동을 거쳐 결국 아버지학교라는 사회적 대안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10주년 맞아 새 비전 선포 … 개설 2,000회 돌파

2005년 12월 17일 창립 10주년 모임에서 아버지학교는 △결혼 이전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예비아버지학교 개설 △소외된 계층을 위한 아버지학교 개설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사회활동 전개 등을 새 비전으로 선포했다. 이 비전은 '아버지학교'의 대상이 기혼 남성에

서 미혼 남성으로, 현재의 아버지에서 미래의 아버지로 확대를 뜻했다. 이에 따라 2006년 9월 충주 37사단 112연대에서 '예비아버지학교'가 열렸다. 남성들이 결혼 전에 아버지의 의미를 깨닫고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아버지학교 개설 2,000회를 맞은 2008년에는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열린 아버지학교가 개설되어 5월 29일 1기 태안 희망의 열린아버지학교, 10월 23일 2기 태안 희망의 열린아버지학교가 진행되었다. 그 해 9월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아버지, 평일에 분주한 아버지들을 위해 주일 오후에 진행하는 '열린아버지학교'도 개설됐다.

미래에 아버지가 될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아버지학교'도 진행됐다. 충북교육청의 요청으로 2009년 5월 12일 충북 진천중학교가 첫 테이프를 끊었으며, 20일에는 증평정보고등학교, 22일에는 덕벌초등학교가 청소년 아버지학교를 잇달아 열었다. 이것은 충북 경찰청의 요청으로 더욱 확대되어 청소년 비전캠프로 이어졌다.

해외에서도 성경적인 아버지의 정체성 확립과 가정의 회복을 위한 아버지학교가 개설되었다. 인도, 네팔, 싱가포르,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국경을 넘어선 아버지들의 감동과 회복의 이야기가 온누리로 뻗어나갔다. 2015년 아버지학교는 전세계 62개국에서 총 29만5천635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4. 램프-온에서 CMN까지
"세상에 희망의 빛 비추다"

2006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강원도 평창군 전역이 극심한 수해를 입었다. 사망자 9명, 실종자 2명, 이재민 1,211명이 생겨났다. 결실을 맺어야할 논이 황토빛으로 뒤덮이고, 가난한 몸을 의지해 나란히 뉘었던 낡은 집마저 처참히 무너져 내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온누리교회는 한국기독교재난구조협의회 같은 외부 단체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와 같은 단체 또는 사역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7월 18일 새벽, 하용조 목사는 성인사역, 여성사역, 대청연합, JDS, 의료선교팀 등 온누리교회 모든 사역팀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긴급하게 구호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긴급재난구호팀 출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당회운영위원회는 '온누

리긴급재난구호팀'을 상설기구로 출범시키고, 긴급수해복구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온누리의료선교센터(OMMC, 이후 CMN으로 통합)는 수재민들을 도울 의료봉사자를 모집했고, 이렇게 구성된 온누리긴급재난구호팀은 발 빠르게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온누리 성인공동체, 대청연합, JDS, 여성사역, 의료선교팀 등 1차 복구활동에는 매일 평균 100여 명씩 총 2,296명이 참여해 30도가 넘는 불볕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구사역에 전념했다. 중국 비전교회를 비롯한 온누리 성도들이 3억 원을 헌금해 전달했다.

이렇게 탄생한 '온누리긴급재난구호팀'은 이후 'LAMP ONNURI(이하 램프온, LAMP ON)'로 거듭났다. 램프(LAMP)는 'Love And Mercy, Peace', '온 세상을 향해 비치는 등불', '긴급재난을 상징하는 사이렌과 같은 비상신호'의 의미를 담아 지구촌 어느 곳이든 긴급구호가 필요한 곳을 향해 신속한 구호의 손길을 내민다는 전략을 담았다.

램프온 사역은 평창 수해복구사역을 계기로 국내외로 뻗어 나갔고, 이듬해인 2007년 12월 21일 원유 유출로 피해를 입은 태안 땅의 복구를 위한 사역에서 빛을 발했다. 태안 복구를 위해 온누리 성도들은 1억7천500여 만 원의 비전헌금을 모았고, 전주대학교에서는 오염 방제에 특효를 가진 EM 활성액 80톤을 지원했다. 램프온은 광성수산 해변, 원진수산 해변, 어은돌 해수욕장, 파도리 소치 해변 등 4곳에서 집중적으로 기름을 제거했다. 한 달여 동안의 봉사 후에는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블레싱 태안'잔치를 열어 피해 복구에 지친 태안 주민들을 위로했다.

2009년 12월 12일 강원도 정선 하늘문교회에서는 '카지노 장기체류자와 함께하는 사랑 콘서트'를 개최하고, 강원랜드와 협력해 도박중독 장기체류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봉사에 주력하고 있다. 램프온은 2010년부터 긴급재난구조기구에서 상시사역체제로 전환해 명실상부한 대사회 봉사기구의 면모를 갖췄다. 그 해 1월 12일,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했다. 확인된 사망자만 17만 명에 육박하는 참사가 일어나자 램프온은 긴급 구호에 나섰다.

램프온은 2010년 1월 24일, 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등의 의사, 약사로 구성된 긴급구호팀을 아이티로 파견해 매일 3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온누리 성도들은 1월 17일 주일예배에서 아이티를 위한 비전헌금 1억9천800만 원을 모아 아이티 지진피해 복구사역에 힘을 실었다. 7월 16일에는 온누리성도들과 CMN이 연합팀을 이뤄 아이티를 위한 2차 긴급구호사역을 진행했다.

온누리 의료선교의 시작

1989년에 첫 선을 보인 온누리교회의 의료선교회는 국내 외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 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왔다. 온누리의료선교팀은 1989년 양의, 한의, 치과, 약사, 간호사, 일반인들이 모여 발족되었다. 당시에는 사역이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다가 1992년에 정식 선교회로 조직되었고, 때마침 마련된 다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원근 각처를 돌며 환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했다. 회원들의 수는 나날이 증가했고, 점점 새로운 팀을 만들어냈다.

2000년 5월에 시작된 B팀은 베트남 의료선교를 위해 모였던 이들이 자연스럽게 팀을 구성해 탄생됐다. B팀은 2003년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갖고, 매달 두 번째 주일에는 열악한 농촌 교회로 의료선교를 나갔다. 2004년에는 팀 내에 찬양 중보기도 모임이 출범해 진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찬양과 기도로 지원했다. C팀은 2002년 봄, 교회 내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의료인의 밤'에서 헌신한 30여 명이 뭉쳤다. 이들은 그해 6월 전북 순창 아웃리치를 시작으로 주로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섬겼다. '라파팀'과 '청년안디옥의료팀'은 국내에 있는 다문화 가족들을 섬



졌다. 라파팀은 교회 내 기관인 온누리미션에 참석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료했다. 청년 안디옥의료팀은 근로자들이 집중돼 있는 인천, 안산, 수원의 다문화 가족 쉘터를 정기적으로 방문, 주님의 손길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D팀은 네 번째로 조직된 것 같지만 실제 태동의 시기는 좀 더 이르다. 2000년 영어예배부가 캄보디아로 아웃리치를 갔다가 필요성을 절감하고 귀국 후 곧바로 의료선교팀을 꾸렸다. 그 해 겨울부터 매년 두 차례 캄보디아로 갔다. 이들은 바자회 등의 수익금으로 캄보디아 현지에 교회 두 곳을 세웠고, 자매 두 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미용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2005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지에서 치료하기 힘든 환자를 데려와 치료해 주었다.

Acts29 비전 선포 이후, 의료선교팀은 사역의 범위를 넓혔다. 2000~2002년 3년 연속 중국에서 펼친 의료 사역은 중국 당국을 감동시켰고, 그 해 12월 단동 온누리교회가 정부로부터 정식 외국인교회로 인가받는 데 크게 기여했다. 2000년의 베트남 아웃리치팀은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온누리 의료기구 CMN 본격 시동

그동안 의료팀과 온누리의료선교센터(OMMC)로 나뉘어 각계 전투를 해온 온누리교회 의료인들은 2007년 4월 10일, 지원팀과 함께

‘CMN(Christian Medical Network)’으로 조직을 통합, 재정비해 온누리 긴급재난구호본부 ‘램프온(LAMP ON)’ 산하 의료기구로 탄생했다. 이철 CMN 대표는 “CMN은 더욱 체계적인 의료봉사를 통해 한국사회에 새로운 교회 역할을 제시하고 선교의 문을 열겠다”며 Acts29의 비전에 더욱 헌신할 것을 선포했다. 실제로 CMN은 2007년 태안 원유 유출 사고, 2010년 아이티 지진, 2011년 일본 대규모 지진, 2013년 필리핀 하이엔 태풍 피해, 2015년 네팔 대규모 지진 등이 있었을 때 타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피해지역 주민들과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냈다.

2007년 8월 20일에 열린 아웃리치 보고 및 하반기 사역설명회에서는 CMN의 중요한 비전이 선포됐다. 교육과 의료를 통해 캄보디아 재건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이 비전은 지난 1980년대 폴 포트 공산정권의 민간인 200만 명 대학살 과정에서 지식인들이 대부분 사라져 국가 성장 동력을 상실한 캄보디아에 크리스천 인재를 양성해 국가 재건을 돕는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CMN은 2020년까지 캄보디아를 이끌어갈 크리스천 인재 300명을 양성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 비전을 ‘블레싱 캄보디아 2020’으로 명명했다. CMN 현장사역팀은 ‘블레싱 캄보디아 2020’을 위해 매년 캄보디아로 아웃리치를 떠나 현지 교회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 프놈펜 시내 기숙사 건립, 우수인재 외국유학 후원 등을 중점으로 캄보디아 재건 사역에 힘쓰고 있다.

한국의료선교와의 연합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2007년 9월

14일 할렐루야교회에서 열린 10차 의료선교대회에서 80여 개 의료선교단체와 상호 비전을 공유했고, 2009년 2월 23일 스프링데이에서는 분당선교연합, 새문안교회, WAM, 지구촌교회 의료선교부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의료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눴다. 2010년 2월 18일 열린 스프링데이 및 아이티지진사태 보고회에서는 영락교회, 동구제약, 글로벌비전뱅크, 한국의료선교협회 등 여러 단체에서 참석한 가운데 아이티 복구 사업 및 구체적인 재건 계획을 검토했다.

2015년 현재 CMN은 7개의 현장의료팀, 6개의 지원팀, 3개의 네트워크팀, 선교사 케어팀(CMN사이버병원, www.cmn21.org) 등 총 17개 팀이 사역을 펼치고 있다.

CMN 현장사역팀 현황 (2015. 9.)

팀명	국내 사역지	일정(매월)
드림	김포 M센터(외국인근로자)	둘째 주일
BEE	경기도 포천 지역 외국인 노동자&농어촌교회 서울역 노숙인 사역	둘째 주일 셋째 목요일
마노아	양지 비전빌리지(국내 안식선교사&현지 노인사역) 국내 (농어촌교회)	셋째 주일
마하나임	충북, 충남, 강원도 지역 농어촌 교회	넷째 주일
라파	서빙고 예배당 진료실(외국인 노동자) 안산 M센터(외국인노동자)	매주일 셋째 주일
토브	양재 예배당 치과진료실(탈북자) 한중사랑교회(조선족근로자)	매주일 넷째 주일
샬롬	안산 M센터(외국인 노동자)	둘째 주일

5. 세상 속에서 빛이 된 리더십 '크리스천 CEO'

2006년, '온 세상을 향한 교회'를 표어로 내건 온누리교회는 이를 위해 실업인들과 전문인력을 네트워킹하여 전도, 양육, Acts29의 비전을 나누는 모임의 필요성을 느꼈다. 10월 15일에는 사회 곳곳에서 CEO로 활동하고 있는 기독실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독실업인 공동체의 출범을 구체화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07년 2월 23일, 1800년대 부패한 영국 사회를 살린 클라팜공동체처럼 성경적 원리로 사회변혁에 앞장서는 모임이 될 것을 결단하며 '크리스천CEO 포럼(CCF)'이 발족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하용조 목사(포럼 이사장), 이용만 회장(전 재무장관) 등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각계 기독교 지도자들 200여 명이 모였다. 포럼 회원들은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크리스천 CEO 과정에서 훈련을 받은 리더십들이었다. 하용조 목사는 이날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

초한 포럼, 치유와 회복이 있는 포럼, 문화적 안목을 갖춘 포럼, 선교적 포럼, 섬김의 리더십과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포럼이 되어서 민족과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그어주길 바란다"고 비전을 제시하며 격려했다. 이후 포럼은 교회 네트워킹 형성, 차세대 리더십 양성, 한중일 CEO 네트워크 형성 등 국제협력, 기금조성과 협력사역, 문화예술활동 및 지역화합, 노사화합운동 참여 등을 펼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다.

CGNTV 후원, 러브소나타에 적극 동참

CCF는 러브소나타 섬김에 앞장서기 시작했다. 2007년 3월 오키나와, 후쿠오카 러브소나타를 시작으로 2010년 8월 아사히카와 러브소나타에까지 일본에서 크리스천 리더십 포럼을 개최해 일본기독교 지도자들과 뜻을 함께했다.

2008년 CCF는 기도와 선교에 더욱 집중했다. 하용조 목사는 CCF 총회와 함께 CGNTV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마련한 2008년 첫 모임에서 "가난한 사람, 미전도종족을 위한 방송은 없기에 우리가 하는 일이 가치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은퇴를 하고 죽음도 맞겠지만 그 날이 오기까지 CGNTV에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CCF도 CGNTV를 후원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그 해 5월 15일, 도이 류이치 의원, 소마 코지 일본 CBMC 이사장 등 일본 각계 크리스천 리더십 13명은 CCF에 도전을 받아 '일본 크리스천 CEO 포럼'을 공식 출범시키자



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2007년 동경 러브소나타 때 일본 크리스천 CEO 1천여 명이 모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게 되었고, 이 모임을 계기로 한국, 일본, 대만 CEO 포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회의 갈등과 불신, 부도덕 등을 추방하고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는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다.

2009년 8월 14일에는 한국, 이스라엘 리더십들의 만남이 있었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현직 국회의원들과 크리스천CEO 포럼 회원들이 롯데호텔 피콕홀에서 양국 민간차원의 협력방안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선교의 땅 끝'으로 여겨지는 이스라엘의 현직 국회의원 10명이 한국을 찾아 종교를 초월한 만남을 가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2008년 12월 14일에는 선교분과와 사회분과의 주관으로 CEO 맞춤

전도집회 'The(더) 멋진 당신'을 열었다. '최경주 선수와 함께하는 디너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500여 명의 미신자 리더십들을 위한 멋진 무대가 되었다. 이어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십들을 대상으로 2009년 7월 5일과 12월 13일에 2, 3회 집회가 열렸으며, 계속해서 공직자, 언론 종사자, 사업가 등 여러 분야의 전문인과 CEO들로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다.



6. 더 멋진 세상을 꿈꾸며 'The Better World'

2010년을 맞으며 온누리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밟을 수 없는 땅을 향해서 Acts29의 비전을 펼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NGO '더 멋진 세상'(The Better World)이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그 설립 취지는 온누리교회에게는 전 세계가 공동체이며 우리의 '순'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난과 질병, 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도움을 베풀며 정의, 화해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외교통상부의 인가를 받아 국제개발 NGO '더 멋진 세상(Better world)'이 시작되었고. 국내외에서 아동보호사업, 긴급구호, 지역개발, 의료/교육지원,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1대 회장에는 하용조 목사가 취임했고, 2012년에 사단법인 '더 멋진 세상'에 이재훈 담임목사가 회장으로 취임했다. 다음은 이재훈 목사와 함께 NGO, 더 멋진 세상에 대해 이야기 나눈 것을 기록하였다.

좋은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세상'

▷먼저 NGO '더 멋진 세상'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NGO의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세상이 '더 멋진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더 멋진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는 다른 것이 소중한 가치가 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끌려가는 사회라면, 더 멋진 세상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섬기는 서번트(servant) 리더십 사회입니다. 세상이 많이 가진 사람들과 적게 가진 사람들이 갈등하는 구조라면, 더 멋진 세상은 사랑과 나눔을 통하여 갈등과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화합의 구조입니다. 세상은 경제논리에 의해 움직이지만, 더 멋진 세상은 모두가 더불어 사는 나눔과 섬김의 원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산상수훈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 나눔을 실시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더 멋진 세상입니다. 이러한 더 멋진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만 해도 흐뭇합니다."

나눔, 청지기 의식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눔, '더 멋진 세상'이 꿈꾸는 나눔은 어떤 것이지요?

• 나눔에 대한 성경적인 철학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세상적인 나눔이라면 성경적 나눔은 본래부터 내 것은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성경적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선교와 나눔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청기기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더 멋진 세상' …故 하용조 목사의 간절한 소망

▷NGO '더 멋진 세상'이 어떻게 설립하게 되었는지요?

• Acts29 비전은 사회참여(LAMP ON 활동 등), CGNTV, 온누리 비전교회, Acts29 비전빌리지 이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NGO '더 멋진 세상'은 긴급구호, 지역개발, 사회참여를 통해 Acts29 비전을 실현시킨다는 목적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故 하용조 목사님은 창립 25주년이던 2010년에 온누리교회가 받은 축복을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해 9월에는 40일 동안 나눔 캠페인이 실시되었고, 10월에는 온누리 리더십축제가 '더 멋진 세상'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창립기념주일

인 10월 10일에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드린 기념예배에서 '온누리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들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희망을 부어주자. 천국이 있음을 선포하자. 온누리교회가 앞장서서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자'던 하 목사님의 메시지가 원동력이 되어 NGO '더 멋진 세상'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샤바즈 바티 장관의 순교

▷2010년, 온누리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여러 행사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파키스탄과 온누리교회의 만남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故 샤바즈 바티 파키스탄 소수민족부 장관의 온누리 방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충격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온누리교회와 파키스탄의 故 샤바즈 바티 소수민족부 장관이 처음 만난 것은 그가 하 목사님의 초청으로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 명예리더십 박사학위를 수여받으러 왔을 때였습니다. 샤바즈 바티 장관은 온누리교회 창립 25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했는데 온누리교회가 당시 최악의 홍수로 신음하고 있던 파키스탄을 돕기 위해 수해복구기금 1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샤바즈 장관은 죽을 줄 알면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행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한 파키스탄에서 크리스천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성모독법 폐지 및 소수민족과 종교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려다 지난해 3월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암살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하 목사님은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테러와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언제 죽을지 몰라 결혼도 하지 않았을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말이다. 그의 죽음은 순교이다"라고 하시며 그를 애도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음까지 뛰어 넘은 그의 순교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파키스탄 예수마을에 세워지는 센터

▷그의 순교가 만들어 낸 기적이 그의 고향인 후시푸르 마을에 세워지고 있는 '샤바즈 바티 비저너리 센터'인 것 같습니다. 오는 5월에 문을 열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故 샤바즈 바티 장관의 고향에 살고 있는 8천여 명의 주민들은 극심한 가난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샤바즈 바티 비저너리 센터는 그들의 자활과 그들이 건강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NGO '더 멋진 세상'에서는 새마을 운동중앙회와 협의해서 후시푸르 마을의 리더십 2-3명을 초청해 새마을운동을 배우게 할 것입니다. 한국을 변화시킨 새마을운동을 그들에게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를 구

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과 협의해서 마을청년 2-3명을 한국으로 데려올 예정입니다. 그 청년들이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교육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전문인/선교사 훈련을 받게 하여 파키스탄으로 돌아가 전문인으로 활동하며,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마 기독NGO의 새로운 사역 모형이 마련되리라 기대합니다.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더 멋진 세상'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소개해 주십시오.

• NGO '더 멋진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의 지평을 넓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도가 선교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NGO를 활용한 사회참여, 지역개발, 재난구호가 선교의 주요 방향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에는 NGO 활동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슬람권을 비롯한 선교가 어려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전문인선교이고 또 다른 하나는 NGO사역입니다. 전문인 선교와 NGO활동이 마지막 세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NGO '더 멋진 세상'이 바로 그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정부와 다른 NGO와 적극적으로 협력

▷이미 활동 중인 NGO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협력해 나갈 건지요?

• NGO '더 멋진 세상'은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KOICA 등 정부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해외원조단체협의회에 정식으로 가입하기 위해 실사를 받았습니다. 승인이 되면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NGO '더 멋진 세상'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국제개발사역과 북한사역을 추

진할 계획입니다. 유니세프와 WHO의 자료에 의하면 아프리카 최빈국의 어린이 약 25%가 기생충에 의해 사망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입니다. 컴패션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월드비전이 배고픈 아이들을 구호하고 있듯이 '더 멋진 세상'은 사랑, 섬김,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를

▷성도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 Acts29 비전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 재난, 기근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대형교회가 감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누리'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온누리라는 이름에는 온누리교회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누리를 섬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교회 이름처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난, 사고, 기아 등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온누리신문 894호(2012.4.1.)

7. 사회선교본부 출범
'Loving U'



2014년 1월 20일 늦은 7시, 서빙고 캠퍼스 한동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가 신설됐다. 이 본부는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소외된 약자를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긍휼선교사역을 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세워졌다.

사회선교본부 본부장으로 섬기게 된 이훈 목사는 1월 14일 온누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통치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의 사회적 소명에 대해서도 "누군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며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회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는 미가서 6장 8절을 기초로 공의, 긍휼, 겸손을 추구한다. 참여와 실천, 의존보다 자립, 갈등과 분쟁 중재와 사회통합이 목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책임, 사회봉사, 사회통합, 방문지원, 나눔 사역으로 영역을 나눴다.

▷사회책임 영역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전인적 회복을 돕는 '회복적 정의',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생명과 환경사역', 청지기 정신을 고취시키는 '청지기사역'을 실시한다.

▷사회봉사 영역에서는 사회적 약자 한명을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지원하는 아둘람(아름다운 마음으로 둘러선 사람들), 해외입양인들과 농어촌 목회자들이 서울에 올 경우 제공하는 홈스테이 '쉴만한 물가', 입양가정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제이홈', 은퇴자들과 사회단체를 연결하는 '늦봄'(후에 '은빛날개'로 개명), 노동선교사를 세우는 '새벽빛', 갈등과 분쟁을 중재하는 평이람(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사역을 한다.

▷사회통합사역은 탈북민을 위한 하나공동체, 한터, 미래홈, 하나원과 다문화사역을 담당한다.

▷방문지원사역은 농어촌미자립교회와 교정기관 방문 사역을 감당한다.

▷나눔사역은 사랑의 줄잇기, 사랑의 나눔 장터 등 구제 봉사를 실천한다.

각자의 은사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회선교본부의 비전은 2015년으로 이어지면서 온누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으로 도전하듯 다가왔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이재훈 담임목사가 2015년 표어로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빌 2:5-11)를 선포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포 후에 송구영신 40일 새벽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온누리의 성도라면, 순이라면, 다락방이라면 모두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그 자리까지 낮아져야 함을 도전 받았고 스스로 다짐하게 되었다.

이에 힘입은 사회선교본부는 2015년도 'Loving U'라는 캠페인을 제시했다. 'Loving U'에서의 'U'는 'Uncomfortable'(불편함을 낮아짐의 시작으로 보고 감수하는 것), 'Unfamiliar'(익숙함을 포기하고 낯선 이들에게 다가가 관계를 맺는 것), 'Unsafe'(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를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Loving U' 캠페인을 통해 '행복한 불편함'을 온 성도 개개인이 실천하기 위해 4월 12일과 10월 4일 창립 30주년 기념주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차 안가져오기' 운동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리고 사회선교본부는 교회적인 실천과제를 매월 새롭게 제시하고 있으며, 공동체의 실천 캠페인인 한 다락방 한 사역(지역환경개선참여, 지역 내 도움 필요한 이웃과 관계 맺기)과 순의 자발적 참여(가까운 소외 이웃 품고 돌보기, 통일 위한 중보, 환경/인권/경제/정의 관련 세미나 참여 등)가 사회선교 사역을 정착시켜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도전을 주었다.

또한 청년 실업 대란의 시대에 도전을 주는 사역으로 “2015 러빙유(Loving U) 청년벤처대회”를 개최하여 4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는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와 크리스천CEO포럼(CCF)에서 주최하는 사역으로 청지기 의식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성경적 원리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청년들을 발굴·육성하고 사회 현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의 역할에 대한 공동체적 공감대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5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1.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시절을 따라 풍성해지다

1985년 10월 6일 가건물에서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창립예배를 드린 온누리교회는 예배에 집중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창립 초기에는 주일예배를 한 번 드리고 그 외 시간은 교제, 큐티, 나눔, 아웃리치에 썼다. 하지만 성도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주일예배 시간을 늘렸다. 창립 후 한 달이 지난 11월 3일부터 오후 7시 30분에 저녁예배를 드렸고, 다음 날인 4일부터는 새벽기도회를 시작했다.

이듬해인 1986년 3월 2일부터는 주일예배를 2부로 나눠 드렸다. 1987년에는 큐티한 말씀을 나누는 '큐티 간증예배'도 드렸다. 같은 해 3월부터는 매월 첫째 주일에 전 성도가 함께 성찬식을 했다. 1993년부터는 주일예배를 3부(오전 7시, 9시, 11시)로 나눠서 드렸고, 주일 오후 3시에는 경배와찬양 예배로 드렸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4부(오

전 7시, 9시, 11시30분, 오후 2시)로 늘어났고 온누리교회 예배의 은혜를 사모해 찾아온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동시통역 서비스가 시작되었다(일본어는 1996년부터). 이후에도 1995년 5부(오전 7시, 9시, 11시, 오후 1시, 3시), 1998년 6부(오전 6시, 7시 30분, 9시 30분, 12시, 오후 2시, 4시), 2002년 주일 오후 9시 예배를 시작하면서 7부 예배를 드리게 됐다.

1997년 1월 11일에는 '열린예배'(Seeker's Service)를 선보였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문턱을 낮춘 '열린예배'는 워십댄스, 드라마, 연주 등으로 구도자들의 마음을 열고, 하용조 목사의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열린예배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으며, 2002년에는 양재에서도 시작되었다. 월드컵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위해 '다문화초청열린예배'도 있었다. 1999년에는 한시적으로 토요일에도 예배를 드렸다. 1부는 '토요헌신자예배'로, 2부는 열린예배로 드렸다. 토요 헌신자예배는 주일날 사역으로 인해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제직과 사역자들이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꿈땅과 파워웨이브예배로 함께 토요일에 있었고, 온누리신문도 예배 참석자를 위해 토요일에 발행되었다. 토요예배는 그 해 7월 25일 양재에서 시작되었고, 2000년 예배가 확대되면서 주일예배로 다시 환원되었다.

외국인들을 위한 예배도 신설되었다. 1988년 영어예배, 1989년 일

본어예배, 1996년 중국어예배가 시작되었다. 이외에도 인도어, 미얀마어 등 온누리미션 산하에 언어권별 예배가 신설되어 이주민 선교를 위한 예배가 더욱 풍성해졌다.

주일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예배도 계속 늘어났다. 월요일에는 말씀의 깊은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큐티집회, 화요일에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뜨거운 홀리임팩트집회, 수요일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수요오전여성예배와 수요선교집회, 목요일에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경배와찬양, 금요일에는 영혼을 터치하는 회복예배와 철야예배를 드리고 있다.

특히 2009년 7월 1일부터는 수요부흥예배를 수요선교집회로 특성화시켰다. 온누리교회 초기부터 힘써 온 선교에 대한 중보기도와 선교비전을 굳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그해 9월 2일부터는 '온누리워십예배'를 매주 수요일 저녁에 드렸다.



2. 문화에 복음을 실은 교회

1987년 7월 19일 서빙고 본당 입당예배를 드린 성도들은 깜짝 놀랐다. 교회 안에 서점, 커피숍, 소극장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사회에서 그것은 하나의 충격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서점은 성도들이 신앙 관련 서적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로 자리 매김했고, 커피숍은 예배 후 일대일 양육을 하는 장소로, 소극장은 청년들이 문화공연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하용조 목사는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다가가야 동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 안에 문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강단이었다. 강단에는 예배인도자를 위한 특별한 자리가 없었다. 누구나 다 강단 아래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강단으로 올라갔다. 이러한 파격적인 시도는 "목사도 예배자이기 때문이다"는 하용조 목사의 예배관

이 반영된 것이었다.

하용조 목사는 복음이라는 뼈대 위에 문화의 옷을 입혔고 그것을 현실화시켰다. 예배의 순서와 순서 사이를 찬양으로 대신했다. 자신의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 즉 찬양은 예배에서 성도들이 새로운 감동과 성령충만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다.

교회 안에서 기타와 드럼을 치는 모습도 온누리교회가 창립된 1985년에는 다른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이것은 별도의 찬양모임을 낳았고 후에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사역으로 발전했다. 경배와찬양은 포스트모더니즘과 상대주의, 다원주의, 뉴에이지의 사회 속에서 교회의 예배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위해 1987년 하스데반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경배와찬양은 그 후로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행진을 하고 있다.

두란노 사역도 한국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주었고 한국교회가 문화사역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하용조 목사는 연예인교회를 섬길 때부터 잡지에 대한 꿈이 있었다. 〈뿌리 깊은 나무〉와 〈문학사상〉에 도전을 받고, 이런 잡지를 만들기 위해 애썼지만 정부에서 허가해 주지 않아 포기했었다. 하지만 영국에 가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잡지에 대한 자료를 모았다. 귀국 후 정부 관계자를 만나 결국 허가를 받아 냈다. 정부에서는 기독교에만 잡지 허가를 해 줄 수 없으므로 가톨릭에는 〈생활성서〉, 불교에는 〈금강〉이라는 잡지를 같이 허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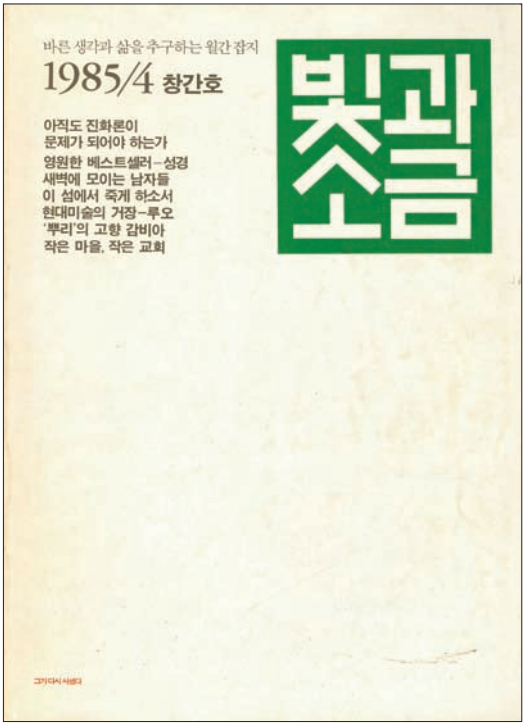
주었다. 그렇게해서 〈빛과소금〉이 탄생했다. 하용조 목사는 "연예인 교회를 사직하고 받은 800만 원으로 1980년 신촌에서 두란노 사역을 시작했다. 그동안 월세를 못내 집주인이 문을 폐쇄한 일, IMF 등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거치며 지나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했다.

1985년 당시 〈빛과소금〉은 기독교 매체 중 유일한 평신도 잡지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매체가생겨났다. 그런 많은 매체들 가운데 〈빛과소금〉은 평신도와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동역자 역할을 감당해 문제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분열보다는 화합과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2008년 12월을 기점으로 〈빛과소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마음 산책'이라는 콘셉트로 표지, 디자인, 콘텐츠 등에 걸쳐 재 창간 수준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일반 평신도와 비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크리스천만을 위한 전문지에서 탈피해 위로와 희망을 찾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대폭 늘어났다. 또한 두란노는 성도들에게 매일 매일 생명의 양식을 주고자 큐티 잡지 〈생명의 삶〉을 발간하고 있다. 〈생명의 삶〉은 1985년 4월, 빛과소금의 부록인 〈생명의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인 이후 1987년 8월 26일 〈생명의 삶〉으로 이름을 바꾸고 매월 발간되고 있다.

현재 〈생명의 삶〉의 활용서인 〈생명의 삶 PLUS〉를 비롯해 영어판




바른 생각과 삶을 추구하는 월간 잡지
1985/4 창간호
빛과 소금
아직도 진화론이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
영원한 베스트셀러 – 성경
새벽에 모이는 남자들
이 섬에서 죽게 하소서
현대미술의 거장 – 루오
'푸리'의 고향 감비아
작은 마을, 작은 교회

〈Living Life〉, 일본어판〈リビングライフ〉, 중국어판 〈活潑的生命〉(간자체와 번자체 두 종류로 발간), 스페인어판 〈Vida Viva〉이 발행되어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의 소중한 양식이 되고 있다. 2007년에는 남미 두란노(Duranno Latina)가 설립되고, 페루의 집필진과 함께 콜롬비아의 현지 인쇄를 시작했다. 이로써 더 많은 스페인어권 복음주의 교회에 스페인어판 〈생명의 삶〉을 보급할 수 있게 됐다. 선교적 차원에서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다른 외국어 판들도 확대 발행할 예정이며, 군대와 교도소 선교용도 발간 중에 있다.

2007년 6월에는 〈큰 글자 생명의 삶〉을 창간해 그동안 작은 글씨 때문에 큐티에 불편을 겪었던 성도들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두란노는 독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어린이 신앙도서 전문 브랜드인 '두란노키즈',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영향력 있는 세상의 리더십들을 세워가는 경제경영브랜드 '비전과리더십',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꽃삽' 등 브랜드를 점차 확장하고 있다.

2010년 12월 창립 30주년을 맞은 두란노는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킬 크리스천 저자 발굴을 위한 1억원 고료 '두란노문학상' 작품을 공모하기도 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 문서 선교사역을 감당할 두란노는 3,000여 종의 단행본을 출판했으며, 7종의 잡지(목회와 신학, 빛과소금, 생명의 삶, 생명의 삶 플러스, 새벽나라,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의 꿈아이)를 발간하고 있다.

3. 온누리를 휩쓴 찬양의 물결

초창기 온누리교회는 '두란노교회' 또는 '경배와찬양교회'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것은 매주 목요일에 있었던 찬양 모임 때문이었다. 1987년 서빙고 본당에서 시작된 목요찬양모임은 '두란노경배와찬양' 사역이 되었다가 오늘날의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으로 발전했다.

1986년 9월, 통합 운영되던 대학부와 청년부가 분리되어 각각 새로운 공동체로 탄생할 때 하스데반 선교사는 대학부를 담당하게 되었다. 짐 그래함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영국의 골드힐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다가 돌아온 직후였다. 골드힐교회는 50~60대 성도들도 탬버린과 박수를 치며 찬양하는 교회였다. 경배와찬양은 이 교회의 영향을 받았다.

1987년 2월, 아직 가건물이던 온누리교회에서 몇몇 형제자매가 모여 소수의 악기를 동원해 찬양을 드리다가 7월부터는 매주 목요일에

'목요찬양모임'을 가졌다. 이것이 오늘날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의 시작이었다. 경배와찬양은 1988년 9월 올림픽을 맞아 대학로에서 집회를 열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황폐해진 대학을 깨우기 위해 열린 대학로 집회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도전을 주었다. 경배와찬양은 같은 해 일본에서도 집회를 열었고, 이후 1990년 8월 대만 장개석광장 집회, 1991년 2월 일본 동경 하라주쿠 집회, 1992년 8월 타이베이 경배와찬양 큰잔치, 1992년 러시아, 1994년 홍콩 경배와찬양큰잔치 등 아시아 전역으로 지경을 넓혔다.

국내에서는 경배와찬양 사역을 위한 학교가 시작되었다. 1988년 7월 제1기 경배와찬양 학교가 문을 열었는데, 악기 연주법이 아니라 예



배 ·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등이 주내용이었다. 1990년에는 중고등부와 기능인을 위한 학교가 시작되었다. 교회에서는 급속도로 확장되는 경배와찬양 사역을 위해 '경배와찬양위원회'를 조직했고(1992년), 온누리교회의 예배와 경배와찬양사역을 후원했다.

1994년, 경배와찬양은 한 단계 도약했다. 경배와찬양의 비전을 품은 선교사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ANI(All Nations Worship & Praise Institute)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미국 등에 ANM센터를 세워 경배와찬양선교사들과 현지 스태프들을 훈련시켰다.

한국교회에 신선한 충격 던지다

1996년을 기점으로 온누리교회가 성도 1만 명 시대를 열면서 찬양을 사모하는 평신도들이 주축이 된 찬양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매주일 온누리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양소리의 주인공은 주찬양, 주사랑, 주향한, 주의빛, 주기쁨, 주영광, 주함께, 주높임 찬양팀 등이다. 이들은 9개 캠퍼스 성가대로 주일예배마다 성령님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주옥같은 찬양을 선사하고 있다.

이 외에도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 새 생명을 전하는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찬양하는 기쁨에 언제나 청춘인 실버합창단, 자신의 고난과 기쁨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부르짖는 횃불남성합창단 등이 찬양 아웃

리치를 통해 열방에 복음 꽃을 피우고 있다. 2010년 7월에는 서빙고 4부예배를 섬길 역동적 찬양팀 '온누리 워십콰이어'가 창단됐다. 앨범을 통해 찬양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일도 많아졌다.

온누리교회 예배 인도자들이 함께한 '온누리워십' 앨범이 2008년과 2009년에 발매됐다. 열린예배 중창단 '브니엘'은 가수 강인원, 박강성의 노래와 하용조 목사의 설교를 담아 'Come & Go'를 발매했다. 예배 인도자들의 개인 앨범도 줄을 이었다. 2008년 김영진 목사가 'Walking Worshiper'를, 이상진 목사가 '워십인'을, 쟈니리 목사가 '가장 큰 소리로'라는 이름의 앨범을 발매했다. 2009년에는 문영재 목사가 '주나목(주님은 나를 이끄시는 목자) 3집' 앨범을 발매했고, 2010년에는 김창석 목사가 '행복한 예배자'라는 앨범을 발매했다.

4. 하나님의 비전을 밝히 제시하는 '온누리신문 창간'

온누리신문은 온누리교회에 부어주신 말씀, 은혜, 감동을 모든 성도와 나눔으로써 비전을 향해 한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왔다. 온누리성도들은 온누리신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삶을 헌신하는 성도들의 감동적인 고백을 듣고 자신들도 헌신했다. 창간 이래로 온누리신문은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비전의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해왔다.

1994년, 출석 인원 6천여 명에 사역팀 44개로 온누리교회는 왕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 무렵, 그동안 계속돼 온 각 위원회 활동과 선교 사역보고 시간이 없어졌다. 자연히 각종 보고서와 선교 편지는 주보에 간지로 삽입하게 되었다. 그러자 주보가 점점 두꺼워졌고, 급기야 소책자 두께의 주보가 등장하게 되었다. 홍보위원회는 두꺼운 주보를 대신할 새로운 매체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기도 중에 온누리신문을 창

간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기도로 태어난 온누리신문은 '타블로이드판 순 한글 가로짜기 신문'으로 1994년 4월 3일 첫 선을 보였고, 지난 2014년 5월 18일 1000호를 발행했다.

하용조 목사는 신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격주 또는 매주 발행할 것을 부탁했다. 이에 따라 홍보위원회는 편집위원회를 신설하고 월간 8면 발행하던 온누리신문을 5월부터는 격주, 6월부터는 주간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그해 12월 15일에는 처음으로 16면을 발간했고, 1995년 5월 14일부터는 컴퓨터로 신문을 자체 제작했다. 2005년부터는 온누리교회 캠퍼스별 소식을 구분하여 게재하는 등 온누리교회의 성장에 발맞춰 은혜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온누리신문이 '2천/1만 비전' 선포에 앞선 1994년에 창간됐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로마가 닦은 길을 따라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듯이, 2천/1만 비전은 온누리신문을 따라 온누리 전체로 퍼졌다. 성도들은 온누리신문을 통해 한마음으로 비전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다. 2003년 'Acts29 비전'이 선포됐을 때도 온 누리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의 삶을 기획 보도했다.

온누리신문은 온누리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수한다는 기록 사역의 역할도 100% 감당하고 있다. 1994년

부터 2014년까지 매년 발행된 신문을 묶은 축쇄판은 목회자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하용조 목사의 설교, 각종 사진, 온누리 주요 역사 등을 담은 단행본 『온누리행전 14년』, 『온누리교회 20년 단숨에 읽기』, 『Talk & Talk 온누리교회 25년』은 온누리교회를 이해하는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온누리신문은 전도의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간증, 강의 등이 가득한 온누리신문은 생명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특히 재소자, 군인, 유학생 등에게 온누리신문은 반가운 친구, 친절한 교사, 따뜻한 위로자, 뜨거운 전도자로 다가가 그들의 곁을 지키고 있다.

한편, 2009년 11월 1일에는 미주판 온누리신문을 창간했다. 미주지역 온누리교회 연합(OMA)의 요청에 따라 창간한 미주 온누리신문은 매월 16면으로 제작되어 미주지역 온누리 비전교회의 연합과 정보 공유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하용조 목사 온누리신문 창간 2주년 축하메시지

심장이 되고 눈과 손발 되어…

'온누리신문'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온누리신문은 온누리 성도들의 심장이요 발이요 손이요 눈입니다. 짧은 2년을 20년처럼 일하면서 충성을 다 해온 편집장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과 담당 위원회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누리신문을 생각하며

온누리신문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신문이란 사람들의 생각과 여론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일어난 소식들을 취사선택해서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거나 아예 무관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온누리신문은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취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과 비전과 간증들이 가득한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성경적 사고방

식 또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온누리신문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는데, 우선 버릴 기사가 하나도 없고 양이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좋은 것은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찔러쪼개는 역사가 있습니다.

셋째, 비전을 제시하는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이란 이상이요 목표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이상이 확실해야 합니다. 고생이나 핍박이나 환난도 비전이 있으면 의미가 있고 유익합니다.

온누리교회의 꿈

온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적인 교회의 꿈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재현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의도하셨던 교회의 완성입니다.

둘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입니다. 2천 명의 선교사와 1만 명의 사역자를 이 땅을 비롯하여 세상 곳곳에 보내는 꿈입니다. 우리 시대에 주신 꿈입니다. 교회의 완성과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온누리 방주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항해합니다.

1994년 4월 3일(일) 온누리신문 창간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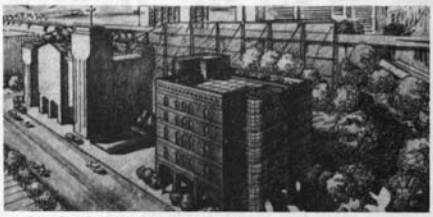
온누리신문

온누리교회의 5대 목표
1. 성경중심의 교회
2. 복음중심의 교회
3. 선교중심의 교회
4. 긍휼을 베푸는 교회
5.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발행인 : 하용조 / 편집인 : 송인석 / 편집국장 : 이광형 / 인쇄인 : 이종원
우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96 온누리교회 ☎ 793-9696(대) FAX 796-074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세계선교 교육센타' 4월 착공

연건평 3천 8백평 · 10층 규모, 영적수련장으로 활용



▲ 오는 4월 착공예정인 '세계선교 교육센타' 조감도

온누리교회의 숙원사업이던 영적수련장 세계선교 교육센타 신축공사가 오는 4월에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신축될 교육센타는 본당 건물앞 대지 1천 2백 27평에 연건평 3천 8백평으로 지상 5층, 지하 5층 등 총 10층 규모로 건립된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행정관계서 심의를 마칠고 곧착공가가 나오는대로 기공할 계획이다.

새로 건립되는 교육센타에는 1층은 전교실과 커피숍, 2층은 유아부와 중등부, 3층은 고등부와 대학부, 4층과 5층은 분반교실과 다목적실을 배치하고 지하 1층은 예배실과 사무실, 지하 2층은 예배실, 사무실과 기계실, 지하 3층은 예배실, 사무실과 주차장, 지하 4,5층은 주차장을 배치하였는데 지하주차장에는 차량 2백2대가 주차할 수 있다. 특히 지하 1,2층에서는 본당건물과 교육관 건물간에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스라엘 현지 성령집회 가져

카이스 인트레이터, 하용조목사 말씀 선포, 10일동안 은혜 기운데 마쳐



▲ 성지순례중 므깃도 산정에 오른 참도들

이스라엘 현지 성령집회가 교인 186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은혜가운데 베풀어졌다.

이번 성령집회에는 예루살렘의 온누리교회 파출선교사 카이스 인트레이터 목사의 말씀 선포가 있었으며, 2월 20일 주일 날에는 하용조의 「내니 두려워 말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갈릴리바다 한가운데에서 선상예배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날에는 4대의 버스에 분승, 각 버스마다 다른 노선으로 성지를 순례하고 저녁에는 함께 모여 성령집회를 가졌다.

해외선교임원간담회
교회간 선교협력방안 모색

지난 3월 19일(토) 오후 4시부터 3시간 동안 우리 교회 담회실에서 교회자원의 선교적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해외 선교 임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 교회 해외선교 협력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우리교회를 비롯하여 남서울교회, 남서울중앙교회, 할렐루야교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1부순서에서는 김인배집사(온누리교회)의 사회로 공석남 장로(남서울교회)의 기도와 황영연목사(온누리교회)의 설교가 있었으며, 2부순서는 우리교회 선교협력위원회의 김원경위원장이 우리교회 선교사역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3부순서로는 황재규장로(온누리교회)의 사회로 「각교회의 선교사역의 방향및 주요사역 현황」과 「교회간의 구체적인 선교협력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를 통해 협력선교의 원칙과 선교지명 선교비지원의 차별화, 적절한 선교사역의 분배, 선교헌신자의 양육 및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 및 해외선교예산의 독립적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서로간의 선교활동에 대한 필근이 이루어졌다.

「온누리 신문」 창간

오랜 성도들이 고대해오던 「온누리신문」이 4월 3일자로 창간되었다. 타블로이드 8면, 순한글, 가로짜기 체제로 창간된 온누리신문은 온 교회내 각종 소식, 설교, 사역, 간증, 기도, 제언, 문예, 동정 등을 다양하게 수록한다.

이번 창간호는 1면에는 교육센타 신축, 이스라엘 성령집회 등 주요 교회소식이 게재되었고 2면에는 하용조 담임목사의 시상설교 "내니 두려워 말라"와 창간사, 그리고 3, 4, 5, 6면에는 44개 위원회의 소개 및 주요 사역내용이, 7면에는 동정, 알림 등이, 8면에는 간증과 선교지에서 온 편지가 게재되었다. 홍보위원회(위원장 이두송집사)가 주관하여 창간된 온누리신문은 조만간 주간신문으로 발전시킬 계획인데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기대된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94 부활절 간증집회 위해 안이숙사모 초빙

금년도 부활절 집회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인 안이숙사모를 강사로 초빙하여 오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본당에서 갖는다.

교회는 이번 집회를 위해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한주간 동안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갖었다. 새벽기도회는 담임목사인 하용조목사가 인도했다.

이번 기도회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었다. 이 새벽기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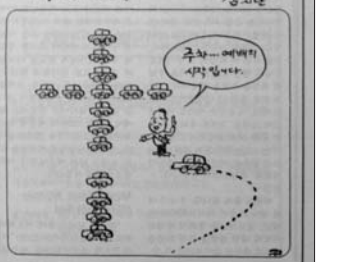
'94 부활절 간증 집회의 주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이며 집회에 따른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날 :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 둘째날 : 더 중요한 것
- 셋째날 : 사랑

L.T.C.위원회 발족

제도자 훈련학교(Leadership Training Course)가 지난 2월 28일 개설되어 3월 1일까지 이틀간 입학식 후보를 위한 1차 훈련을 가졌다. 이번 L.T.C.는 첫날에는 등록과 예배, 하용조목사의 말씀, 둘째날 둘 전목회와 이튿날에는 새벽기도, 첫째기 묵기 순으로 진행됐고 훈련사항은 새벽기도, 큐티와 목후감을 제출도록 했다.

L.T.C. 위원회는 앞으로 새로 입학생을 사랑합니다 시부, 사역, 안식, 헌늘장로, 전사, 집사 등 기존 입학자들도 훈련을 시킬 계획이다. 앞으로의 훈련내용은 새벽기도, Q.T. 노트 제출, 월1회 목후감 제출, 성경통독, 목회사역(일대일 양육, 순예배 참석, 환자심방, 상가심방, 주차봉사, 중보기도회 참여) 등이 있다.



온누리신문의 역할

이러한 신문이 되기 위해서 온누리신문이 해야 할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세상의 지혜나 방법이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과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며 성령충만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고 이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나의 의

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의지를 발동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여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적극적인 응답을 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문의 바른 역할은 모든 성도들에게 비전을 밝히 제시할 뿐 아니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깊어져서 성숙하며 능력이 충만한 성도들로 성장하도록 심장이 되고 눈이 되고 손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온누리신문 96호(1996. 4. 28.)



5. 온누리와 지역사회가 하나되는 자리 '비전의 땅'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온누리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성장하고 성숙해왔다. 그 첫 번째 비전은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이었고, 두 번째 비전은 '2천 1만'의 비전이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성숙되어 세 번째 비전인 'Acts29'의 비전으로 선포되어 그 꿈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었고, 이제 네 번째의 미래적 비전의 태동을 느끼고 있었다.

2011년 5월,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의 비전 선포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전의 땅'이라는 꿈이었다. 이를 위해 하용조 담임목사는 자신을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평생 체험하고 살아온 여러분의 종'이라고 표현하며 온 세대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고백하듯 선포했다.

"이제 우리는 온누리교회 새 시대를 준비하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합

니다. 저는 15년 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기도했던 서빙고 본당 옆 부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온누리교회의 새 시대를 여는 Acts29의 베이스캠프가 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가는 청소년들이 세계를 품고 설 영적인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꿈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목회를 시작한 지 25년이 됐는데 비전의 땅은 제 생애 마지막 사역이 될지 모릅니다. 새로운 건축이 이루어진 이후 제가 그곳에서 설교할 수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제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루어야 할 마지막 사역이요, 또한 우리 온누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 40일 특별새벽집회가 끝나는 다음 주일 우리 모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의 헌신, 최대의 헌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합시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것이 온누리교회의 역사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얼마를 헌금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믿음과 환상,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Acts29의 비전을 이루어 가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는 '비전의 땅, 꿈의 땅' 헌금 작정을 하기 전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비전 40일 특별새벽집회'에 동참하여 기도의 역사에 동참했다. 그리고 특별새벽집회가 끝나는 5월 28일과 6월 5일에 온누리 새 시대를 여는 '비전의 땅, 꿈의 땅'을 위한 헌금을 작정했다. 특별히 이번 헌금 작정은 '나의 한 평'이라는 주제로 홍보되고 준비되었다. 성도들은 각 세대별로 '나의 한 평은 회복의 방', '나의 한 평은 기적의 화수분', '나의 한 평은 꿈의 구장', '나의 한 평은 존재의 텃밭', '나의 한 평은 행복의 푸른 초장', '나의 한 평은 창조의 작업장' 등 주제를 선포하며 헌금을 작정하고 참여하는 뜻 깊고 따뜻한 헌신의 시간이었다.

이제 온누리 새 시대를 여는 비전의 땅, 꿈의 땅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변의 8,500평의 부지로, 다음 세대를 짊어질 ▷차세대를 위한 공간, Acts29비전을 이루기 위한 ▷베이스캠프,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간으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표어로 보는 온누리행전 30년

1985년 10월 6일 창립예배를 드린 온누리교회는 창립 2달 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초기부터 선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온누리교회는 일대일과 큐티를 목숨처럼 부여잡고 참된 제자의 양육에 무엇보다 매진했다. 안식년을 떠났던 하용조 목사는 1991년 귀국, 성령사역을 선포했고, 교회는 창립 때부터 품어온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을 2천/1만 비전으로 구체화했다. 그리고 1995년부터 온누리교회는 매년 표어를 정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구체화하는데 힘을 쏟았다.

1995년 … 영적 부흥과 참된 축복

말씀 중심의 목회에서 성령 중심의 목회로 옮겨가며 창립 10주년을 맞은 교회는 1995년 표어를 '영적 부흥과 참된 축복'으로 정하고 부흥의 전기를 힘차게 내디뎠다. 1994년에 선포된 2천/1만 비전은 이를 주도할 '위원회'가 개설되면서 비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6월 30일 삼풍백화점 참사가 발생하자 교계는 '인간의 물질에 대한 탐욕'이 빚어낸 결과라고 개탄했고, 교회는 신앙의 원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각성이 일었다.

1996년 … 거룩과 순결

이렇게 해서 1996년 '거룩과 순결'이란 표어가 탄생했다. 그 축복으로 교회는 8개 미전도종족을 입양하면서 열방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본격적으로 뻗기 시작했다. 온누리미션이 나라별 예배를 시작하는 등 선교의 열기 또한 갈수록 부풀어 올랐다. 온누리 리더십들의 윌로우크릭 방문은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구도자예배가 탄생하고 차세대사역이 뼈대를 드러낸 것은 물론 장기적인 교회의 비전이 새롭게 움텄다. 12월 말에는 성도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1997년 … 순종과 헌신

'거룩과 순결'을 지나 1997년은 '순종과 헌신'의 단계로 나아갔다. 마지막 때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150여 명의 성도가 연초부터 이스라엘 비전트립을 떠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실천했다. 그리고 축제를 시작했다. 세상의 축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누는 축제를 '온-누리'와 함께 했다. 가정사역축제가 첫 테이프를 끊었고 온누리 사역축제가 그 뒤를 이었다. 그 해 말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했다. 하용조 목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의 붉은 등을 켜고 계시다며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외쳤다.

1998년 … 회개와 부흥

1998년 교회는 '회개와 부흥'을 표어로 각성에 초점을 맞췄다. 새해가 밝자마자 '남성들을 위한 영적 대각성 집회'가 열렸다. 연일 2천여 명의 남성들이 사방에서 모여 들었다. 이어 '남성 제자리찾기 모임'이 이어졌다. 1995년 시작된 아버지학교는 외환위기로 가정이 붕괴되고 있던 그 해 남성, 아버지, 가정 회복의 구심점으로 급속히 부상했다.

1999년 … 변화와 성숙

1996년 외환위기를 통과하며 교회는 회개를 통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을 깨닫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섬기고 회개해야 한다는 '변화와 성숙'을 1999년의 목표로 잡았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본격화되었다. 성령축제, 비전과 리더십축제, 사역축제 등 각종 사역이 오픈된 상태에서 공유되었다. 그 변화를 주도할 강력한 일꾼들도 필요했다. 그 해 처음으로 예수제자학교(JDS)가 시작됐다.

2000년 … 새 영을 부어주소서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둔 2000년, 교회는 향후 10년 동안 새 하늘과 새 땅을 간구하며 '새 영을 부어주소서'를 표어로 삼았다. 하지만, 성도들은 새해 첫 날, 박모세 선교사의 순교소식을 접해야 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영의 회복은 순교의 자세와 무관하지 않음을 일깨워 준 일침이었다. 하용조 목사도 1999년 발견한 암으로 힘든 투병을 마치고 귀국하게 된다.

2001년 … 새로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하용조 목사는 투병 중에 얻은 확신, 즉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아무 것도 없다는 믿음에 따라 '새로운 환상을 보게 하소서'를 2001년 표어로 삼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디지털 목회의 시작이 세상을 놀라게 했고, 하 목사가 안식차 방문한 동경에서 온누리교회가 개척됨으로써 Acts29의 씨앗이 태동했다.

2002년 … 건강한 사회를 꿈꾸는 교회

9.11테러로 어두웠던 세상에 2002년 교회는 더욱 '건강한 사회를 꿈꾸는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고 빛과 소금으로 일어섰다. 3.1절에는 1만 명의 성도들이 잠실운동장에 모여 '가정 사회 세상 밝히기 위한 10계명'에 서약했다. 월드컵이 열리자 96시간 띠 기도가 시작됐고, 수해지역으로 아웃리치가 꼬리를 물었다.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 문을 열고 탈북자에 대한 지원도 큰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맞춤전도집회가 본격화되어 봇물처럼 새 생명을 쏟아냈고 부천 온누리교회가 개척되었다.

2003년 … 거룩한 리더십을 세우는 교회

'거룩한 리더십을 세우는 교회'로 출발한 2003년의 가장 큰 사건은 'Acts29 비전'의 선포였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운다는 교회의 창립정신이 18년 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새 도약을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수원, 요코하마, 대전 등 각처에 사도행전적 교회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전쟁의 상흔으로 아파하는 아프간, 이라크 등 전 세계를 향해 폭발적으로 아웃리치를 떠났다.

2004년 … 꿈꾸는 교회, 춤추는 교회

Acts29는 2004년 들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표어대로 '꿈꾸는 교회, 춤추는 교회'였다. 부흥, 리더십, 예배축제가 교회와 세상을 달궜다. 회복사역이 시작되어 회개와 치유의 눈물이 흘러넘쳤다. 러브터치 등 직업별 맞춤전도집회로 전도패러다임을 주도했고, 북한 용천 사고지원, 아프간 어린이 치료 등 세상을 향한 사랑의 손길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의 부흥 뒤엔 순교의 피가 필요했다. 2월 21일 들려온 김사무엘 선교사의 죽음은 온누리 전 성도의 영성을 깨웠고,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줬다. 이태화 형제가 온누리 순교열전을 이어갔고 2005년 6월 중국 권소망 선교사, 전광호 선교사가 그 뒤를 따랐다.

2005년 … 온 세상을 위한 교회

이 같은 순교의 터 위에서 온누리교회는 2005년 '온 세상을 위한 교회'로 달려 나갔다. 3월 정식 개국한 CGNTV는 순교를 각오하고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교회에 등불과도 같았다. 어노인팅, 업그레이드 등 은혜 넘치는 축제가 CGNTV를 통해 세계에 흘러갔다. 8월에 있었던 이스라엘 평화행진에는 온누리교회를 비롯해 지구촌교회, 할렐루야교회 등 모두 2,500여 명이 참여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화해, 평화, 회복을 외쳤다.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개원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혔고, 북경, 맨해튼, 뉴욕, 샌디에이고,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등으로 Acts29 비전이 흘러갔다.

2006년 … 온 세상을 향한 교회

Acts29 비전이 선포된 이후 온누리교회는 본격적으로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헌신과 섬김이 필요한 곳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 달려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다. 안산시 외국인을 선교를 위한 온누리M센터가 문을 열었고,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병을 양육하기 위한 연무대 군인교회 교육관이 완공됐다. 인천 온누리교회가 창립했고 온누리요양센터가 개원했다. 온누리긴급재난 구호팀(램프온)이 출범해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등에 신속하게 봉사단을 파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처럼 폭포수처럼 받은 은혜를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하며 사랑과 희생, 섬김과 나눔으로 복음의 꽃을 피워 나갔다.

2007년 …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해가 바뀌어도 세상을 향한 온누리교회의 나눔 열정은 식지 않고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온누리교회는 교회가 세상에 유일한 희망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한 해를 보냈다. 대학청년부가 3 · 1절을 맞아 12시간 동안 구국기도회를 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기독교인 CEO들로 구성된 '크리스천CEO포럼'이 출범했고 온누리교회 1천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적인 한 해로 기록됐다. 세계여성리더십을 초청해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워가(WOGA) 2007'도 열렸다. 국내 최악의 해양기름유출 사건으로 기록된 태안반도 기름유출 현장을 찾은 램프온은 그곳의 검은 상처를 닦아내며 아픔을 나눴다. 경제위기, 청년 실업난 등 각종 악재 속에서 신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 메시지는 새 생명을 움트게 했다. 러브소나타를 비롯해 온누리교회가 내딛는 발걸음 마다 낙담해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2008년 … 세상에 평화를 심는 교회

2005년부터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 온 온누리교회는 2008년을 맞이하며 그 결실을 세상과 나누기 시작했다. '세상에 평화를 심는 교회'를 표어로 내걸고 가난과 저주, 질병과 고통 등이 아무리 사람들의 삶을 짓눌러도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다.

잠실벌을 울린 서울러브소나타가 열렸다. 건대 온누리교회가 창립돼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부흥의 전초기지가 마련됐다. 장애우와 기러기 아빠 등 소외되고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이들을 초청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맞춤전도집회가 열렸다. 또한 갈등의 벽을 넘어 화해를, 분노

의 강을 넘어 용서를, 미움의 바다를 건너 사랑을, 상처의 폭풍을 지나 치유를, 전쟁의 지진을 넘어 평화를 세상에 심었다.

2009년 … 화해와 일치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에 심은 온누리교회는 2009년 표어를 '화해와 일치'로 정하고 하나님과 자신, 타인과 자신, 자신과 자신의 회복을 위한 장을 열었다.

대학청년부는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지진현장을 찾아 실의에 빠진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군복무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열려 군선교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일본선교 150주년 기념대회가 열려 오랫동안 일본과 풀지 못했던 화해와 일치의 숙제를 푸는 전기를 마련했다.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선교 엑스포도 개최됐다.

2010년 … 말씀과 성령

기본으로 돌아가자!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는 온누리교회는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말씀과 성령'을 새로운 비전으로 내놓았다. 그동안 무수히 받아 온 은혜의 비결이 말씀과 성령이었다는 고백이었다.

중남미에 위치한 국가 아이티의 기반을 뒤흔든 지진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현장을 찾아 의료봉사, 재건활동협력 등을 펼쳤다. 온누리교회 목양과 양육시스템을 온라인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아이 케어(i-Care)'와 '아이 스쿨(i-School)'이 오픈했다. 선교사의 영적 재무장과 훈련을 돕는 'Acts29 비전 빌리지'가 개원했다. 지역 교회의 부흥을 돕는 '말씀과 성령축제'도 전주대학교에서 열렸다.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순에서부터 일대일, 큐티 나눔 등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에 발 벗고 나섰으며, 리더십축제, 성령축제 등 교회의 굵직한 행사에서는 성령을 초청하는 집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2011년 … 주여 나를 보내소서

2011년 온누리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처럼 온 누리를 향해 떠났다. 2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러브소나타가 열렸고, 3월에는 초대형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입은 일본으로 긴급구호팀을 파견했다. 여름에는 모든 교회가 미전도종족의 80%가 밀집해 있는 아시아 지역에

서 집중적으로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그러던 8월 2일, 온누리교회는 영적 지도자인 하용조 목사를 주님 곁으로 보내야 했다. 하용조 목사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와 베트남 호치민에 온누리교회를 세우고, '비전의 땅'에 대한 꿈을 나누는 등 Acts29 비전을 품고 푯대를 향하여 끝까지 전력질주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슬픔에 휩싸였지만, 온누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교회'의 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9월 24일, 이재훈 목사를 맞은 2기 온누리교회는 12월부터 한마음으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를 주제로 40일 특별새벽기도의 무릎을 꿇었다.

2012년 …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세상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 위해 온누리의 2012년은 분주하게 시작되었다. NGO '더 멋진 세상'이 새롭게 출범해 터키, 일본, 파키스탄, 아프리카 등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 위한 길을 닦았다. 5월에는 서빙고에 2천700여 명의 어머니가 모여 나라, 교회, 자녀를 위해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 전력난으로 불안해 하는 세상을 위해 에어컨과 전등을 끄고 온누리는 더욱 뜨거운 곳으로 나아갔다. 45개국 121개 지역에서 공동체 및 캠퍼스 52개팀, JDS 51개팀, 대학청년 48개팀, 차세대 24개팀, 국제부 및 간사팀 13개, CGNTV 및 기관 12개팀 등 총 200개팀 3천 여 명이 아웃리치에 참여했다. 무엇보다 아프리카 20개 국으로 586명이 찾아가 그 땅과 백성들을 축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시간을 보냈다. 회복축제 '고통의 선물', 부흥축제 '하나님의 흔적', 가고시마 러브소나타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

2013년 …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온누리의 새해는 '하늘은 땅에서 열린다'는 믿음의 선포로 시작되었다. 항상 한 해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했던 온누리는 2013년은 더욱 구체적인 제목을 갖고 무릎을 꿇었다. 고난주간에 온누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한 끼 이상 금식하며 기도했고, '울어라 한반도여' 집회에 모인 8천여 명은 남한과 북한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 65명은 통일전망대에서 임진각까지 320km 행군을, 289명은 DMZ에서 자전거로 순례를 마쳤다. 4월에는 마리아행전, 9월에는 회복축제 '왕의 임재', 10월에는 부흥축제 '절대 제자'에서 온누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

했다. 여름에는 265개 팀, 7,838명이 국내와 해외로 나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며 은혜를 나눴다.

2014년 … 은혜와 진리

온누리의 2014년은 사회선교부의 신설로 시작되었다. 사회선교부는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통치를 회복하기 원한다는 온누리의 고백이자 결단이었다. 은혜와 진리를 사모한 온누리는 고난주간을 맞아 5일 동안 국내 각 캠퍼스에서 '십자가의 길'을 주제로 심야예배를 드렸다. 이 기간 중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자 온누리 성도들은 가슴을 치며 눈물로 학생들과 이 땅을 위해 기도했다.

부모초청전도집회 '행복드림'에는 426명이 참석해 344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51명이 세례를 받았다. 지적장애인들로 구성된 '사랑챔버'는 창립 15주년 동안의 '은혜'와 '진리'를 연주했다. 온누리 차세대는 3개월 동안 선교 현장을 체험하는 FT 2기를 파송했다.

2015년 …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2015년 온누리는 더 낮은 곳으로 향했다. 4월과 10월 온누리는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인 차량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을 정했다.

하용조 목사 소천 4주기를 맞아 온누리는 그분을 통해 온누리에 주신 비전을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다. 7월 29일 Acts29 비전빌리지에서는 '하용조 목사 기념관 및 채플 준공식'이 열렸고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는 하용조 목사 기념 주간으로 보냈다. 여름아웃리치에는 국내 188개팀 5,998명, 해외 186개팀 2,449명이 참가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했다.

10월, 30주년을 맞은 온누리는 더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해 '부흥비전집회', '울어라 한반도여'를 준비하고 있다.

에필로그

예수바보행전

이재훈 담임목사

본문 : 사도행전 2장 42-47절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계속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동시에 새롭게 결단해야 하는 비전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슬로건입니다. 새롭게 찾은 비전은 ' 예수바보행전' 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바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전'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바보로 보일 것입니다.

바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성도들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더 직접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 , ' 그리스도께 완전히 몰입된 사람' , ' 그

리스도를 위해 바보처럼 사는 사람' 입니다. 이 의미들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된다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된다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바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보라고 표현한 것이 불경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보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던 경쟁, 이기심, 탐욕, 위선적인 삶을 결코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바보로 보였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루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자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시간을 당시 사람들이 만나기 꺼려하는 사람들과 보냈습니다. 외면 당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로 표현되는 세리와 죄인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33세의 나이에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바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바보고 또 다른 하나는 의도적인 바보입니다. 자연적인 바보는 지혜와 분별력이 부족

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바보는 자신에게 분명 손해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손해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외롭게 걸어가는 사람을 가리켜 의도적 바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바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왜 버리셨습니까. 바보 같은 선택 아닙니까. 예수님은 의도적 바보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흙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불의한 인간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인간이 감당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결코 하지 않는 일입니다.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 대신 죽는 바보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외면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친구가 되셨습니다.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 하지 않았습니다. 경쟁 중심적이고, 자신을 조금이라도 거부하면 가차없이 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같은 선

택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길

사도 바울은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님의 바보 같은 선택을 깨달을 때에만 복음의 위대함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고전 1:21~25).

'하나님의 어리석음'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감히 하나님께 어리석다는 단어를 어떻게 대입할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지혜의 근원이며,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이 타당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 하나

님의 어리석음'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이런 단어가 나왔을까요.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야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고 또 기록되기를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한 것을 아신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고전 3:18~20).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모두 자기 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꾀에 넘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자연적인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 바

보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낮아지는 길이요, 자신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성육신의 길입니다.

'예수바보' 로 사십시오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세계를 뒤집어 놓은 스티브 잡스는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5분밖에 안 되는 짧은 연설에서 자신의 인생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그는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다른 가정에 입양 될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지만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그만 두었다고 했습니다. 둘째, 대학을 중퇴하고 자신이 만든 회사에 들어갔지만 쫓겨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셋째, 암에 걸려서 사투를 벌였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삶을 움직인 문구를 설명했습니다. 그 문구가 바로 ' Stay hungry, Stay foolish' 입니다.

' Stay hungry' 는 굶주린 상태로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갈망 속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 Stay foolish' 는 어리석은 상태로 머무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미국 최고의 대학 졸업식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움직였고, 오늘의 자신을 만든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이해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그가 말한 문구

는 성경적인 가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지식이 있고, 조금만 재산이 있고, 조금만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금방 배고픔을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보로 여길까봐 똑똑한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어 보이는 길을 갑니다. 이것이 스티브 잡스를 움직였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바보가 누구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42절).

예수님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

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기 위해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로 보는 시각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살아 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속의 인물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도들이 떡을 뗐다고 했는데 그것은 배고픔을 위한 식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식사와 성찬을 거의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떼고 떡을 떼었다는 것은 그들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이야 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사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히 12:2).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바보입니다.

둘째, 예수바보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살피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44~45절).

그들은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이 구절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유재산을 금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강제적 재산공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금하는 것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그들은 공동소유나 공평이나 평등 같은 이념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필요가 생길 경우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조금도 자신의 것으

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아닙니까. 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을 가리켜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바보처럼 필요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필요는 욕심과 다릅니다. 자신은 필요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간절히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필요를 바로 보살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기근이나 재난 등으로 극심한 궁핍 가운데 있는 필요를 보고 바로 보살필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바로' 는 ' 올바로' 라는 의미도 되지만 '즉시' 라는 의미로도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후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해외선교에 헌신한 만큼 이웃의 필요를 보살피는 헌신도 같이 상승했으면 합니다. 해외선교를 줄여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선교도 하지만 이웃의 필요를 돌보는 일에도 그만큼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세계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사회선교를 통해서 우리 이웃을 돌보고 바로 보살피는 공동체가 예수바보공동체입니다.

셋째, 예수바보는 예수를 세상에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

들이 나타났습니다"(43절).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47절).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기적들이 그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상의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기적과 표적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복음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를 했을 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반응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과연 온누리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온누리교회가 주차장이 없는 교회가 되어도 출석하시겠습니까. 주차장이 이렇게 넓은데 주차장이 없는

교회가 된다면 "바보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결단을 내린다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받는 일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벤트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하게 세상을 섬길 때 세상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고, 세상의 필요를 바로 보살피고, 세상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할 때는 예수바보교회, 예수바보 행전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평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누리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리기를 바랍니다.

2015.10.4.

위험한 교회, 낮아진 교회, 연약한 교회

이재훈 담임목사

인생은 모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험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했고,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너무나 위험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매우 위험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위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위험 때문에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님께 진짜 순종하면 매우 위험한 길을 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 세상의 위험을 감

수하고 모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쓰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위험보다는 안전, 담대함보다는 조심스러움, 사명보다는 스스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은 바벨론 포로 시대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개신교가 핍박받는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비롯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소멸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를 보십시오. 중국 교회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핍박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직도 없고, 제도화 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법이 뭔지도 모릅니다.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위험한 교회

우리가 위험한 교회가 되어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위험한 교회입니까?

첫째, **거룩한 절박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거룩한 절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었습니다. 그때 중풍병자를 네 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매고 왔습니다. 사람이 꽉 차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갈 수 없자 그들은 지붕을 뚫었습니다. 절박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오늘날 교회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해야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붕을 뚫는 교회가 바로 위험한 교회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지붕을 뚫는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지불해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험한 교회입니다.

둘째, 위험한 교회는 **선교적 사명감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좋은 교회는 될 수 있어도 위험한 교회는 아닙니다. 선교적 사명이 없으면 어쩌면 율법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도피주의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적 사명감이 없으면 교회다워지지 못합니다.

문화인류학자 빅터 터너(V.W. Turner)는 '코뮤니타스(communitas)'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코뮤니타스는 더 강렬한 사명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커뮤니티(community; 공동체)가 아니라 코뮤니타스가 되어야합니다. 온누리교회가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코뮤니타스, 위험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위험한 교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위험

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위험한 교회는 그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각오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영적인 모험입니다. 모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안전하고 안일한 삶에 집착하는 것을 죄로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낮아진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생긴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교회는 생기기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원리는 예수님의 겸손이요, 낮아지심입니다. 이것이 성육신(incarnation)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의 DNA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이 있어야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만물을 어떻게 구속하시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성육신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역사도 알게 되고, 우리의 존재도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은 한번 이루어졌지만 영원히 지속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네 종류로 변화되었습니다.

첫째,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증인이 되는 '미셔너리 처치(missionary church)'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로 쓰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 다양한 사역을 하는 '미니스트리 처치(ministry church)' 입니다. 미니스트리 처치는 많은 활동을 합니다. 사회 속에서 제도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셋째, 유지하기에 급급한 '메인터넌스 처치(maintenance church)' 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시대적 책임보다 자신의 문제와 교제에 몰두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머지않아 네 번째 교회가 됩니다. 네 번째 교회는 '뮤지움 처치(museum church)'입니다. 박물관과 같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와 멀어져버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성육신적인 교회는 결코 박물관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가 바로 성육신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 찾아오신 교회가 바로 성육신적인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속으로 성육신한 교회입니다. 세상을 탈피하고,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의 문화를 등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침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

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세상 한복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육신적인 교회, 낮아진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을 바라보는(unto christ)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앞에 모시고, 바라보며,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성육신적인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낮아진 교회 성도들은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고, 만나는 연약한 지체들을 주를 대하듯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unto christ) 교회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위한(for christ)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을 보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소원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싶은 욕망이 마음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성장은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같은(like christ)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지 않고서는 세상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성육신적인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녀가 되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교회

연약한 교회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역설적 진리로 교회를 설명한 것입니다. 연약한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한 교회가 되면 무너지고, 깨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비의 공동체입니다. 사회는 지도자가 아프고 연약하면 무너지지만, 교회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주 안에서 더욱 강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헌금 액수가 높아지면 목회자가 교만해지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온누리교회의 능력은 많은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한순간에 믿음이 깨지고, 감정이 깨지고, 사랑도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많은 수의 군중이 나의 믿음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역한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진짜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입으

로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능력은 십자가를 지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회적인 힘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힘도 아닙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못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합니다. 연약한 교회는 예수님처럼 연약하게 못 박히는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A, B, C 알파벳 순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약한 교회는 **역경(adversity)이 변해 장점(advantage)이 되는 교회**입니다. 역경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역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장점이 됩니다.

또 **깨어짐(brokenness)이 변해 아름다움(beauty)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깨어짐이 아름다움이 됩니다. 선천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은 깨어짐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상처 받아본 적 없고, 깨어진 적 없고, 고난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본 적 없는 사람은 아름다움이 없는 것입니다.

위기(crisis)를 기회(chance)로 만드는 교회, 혼돈(chaos)을 창조성(creativity)으로 만드는 교회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



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더 귀한 일에 사용하시려고 변화시키는 기회입니다. 모든 종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위기에 처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 위기가 기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창조적인 역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쓰임 받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스스로 존귀한 자가 되어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천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취하여 부끄럽게 되

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천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선택 받아 쓰임 받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랑치 못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갈 길이 정해져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보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비참합니다. 멸시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게 연약함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자랑하거나 잘난 척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어떻게 하면 연약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지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스스로 강한 교회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더 깊은 헌신과 열심이 있지만 자랑하지 않는 것이 연약한 교회입니다. 물에 녹아버리는 소금처럼 촉매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연약한 교회는 소금처럼 녹아 없어지지만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품어야할 교회의 비전입니다.

2015.10.6-8.